

연구보고 2011-15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최윤경 양미선 도남희 박혜원 이진숙 정윤경 이보람

머 리 말

최근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초저출산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은 우리에게 도전과 함께 미래사회 대응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어린 자녀가 우리나라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체계와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서비스의 확장을 도모해왔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15만여명 중 62%를 차지하는 취학전 영유아 9만3천여명의 생애 초기 발달은 아동의 이후 성장경로에의 누적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크다.

본 조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현재 발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인지, 언어, 사회정서, 신체건강의 4개 영역 발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 요인을 함께 측정하여 아동의 현재 발달수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현재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지원 정책과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정책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 설계로 발전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다문화아동의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설계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더운 여름 다문화가족 영유아 조사대상의 섭외와 조사의 진행을 위해 협조와 홍보의 도움을 주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근로자지원센터 담당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발달수행검사를 수행한 울산대, 전북대, 가톨릭대 조사원 선생님들과 각 지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조사에 참여해준 다문화가족과 영유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모든 다문화가족의 행복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6월 기준 결혼이민자 141,654명, 외국계주민 1,265,006명의 분포를 보임. 다문화가족 자녀는 총 151,154명으로, 이 중 만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93,537명은 전체 다문화아동의 약62%를 차지함(행정안전부, 2011).
 -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다문화아동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중요성은 산술적 수치 이상임. 생애초기 경험의 이후 아동 발달에의 연속성과 누적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아동에 대한 영유아기 지원은 다문화 정책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과 자녀 지원 사업이 전국단위에서 보다 다양한 전달체계와 서비스로 구체화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1;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 그러나 다문화가족 성인 및 아동 세대 간 지원의 균형과 체계성이 보다 확보되고, 아동의 관점과 시각이 반영되어 결혼이민자 성인 중심에서 자녀세대의 발달 요구에 적합한 정책설계의 확장과 전환이 요구됨. 여전히 취학 전후 다문화아동의 생애초기 발달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논의는 부족함.
 - 다문화아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상으로서의 정의가 여전히 그들의 ‘취약성’이라는 동질적 특성에 근거함. 다문화아동 발달 연구들이 특정 발달 영역에 국한되거나, 다문화아동의 발달 점수를 일반 아동의 평균점수와 비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그들의 발달수준 열세가 규명되는 보고가 다수였음. 다문화아동의 발달과정은 특정 발달영역에 국한되거나, 부적 영향의 기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문화아동 취학전후의 발달영역 전반을 고려하는 유기적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 자녀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특성을 파악

하여 이것이 타당한 차이인지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다문화아동 지원의 맞춤형 설계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생성하고 다문화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연구내용

- 다문화 선행연구 고찰
 - 다문화아동 발달 및 가족환경, 양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과 관련 제도 및 발달 지원정책 현황 검토
 -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
 -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제도 및 발달 지원정책
 - 유럽의 다문화 정책
- 조사대상 다문화가족과 영유아의 생태학적 특성
 - 다문화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다문화가족의 부모 및 아동 특성
 -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특성
-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 다문화아동의 건강 및 신체 발달
 - 다문화아동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 유형화
- 다문화아동의 발달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다. 연구방법 및 설계

- 문헌연구
 - 국내·외 다문화가족 및 아동 연구문헌과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현황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및 영유

아 발달 현황과 외국의 사례와 정책현황을 비교, 고찰함.

설문조사

- 다문화가족의 모, 아동이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당 교사와 원장/교장을 대상으로 다문화아동의 발달실태와 양육환경에 대해 설문조사함.

발달검사

- 다문화아동 534명을 대상으로 언어(REVT), 인지(K-ABC), 사회정서(SCBE), 발달 그리고 건강·신체 발달에 대해 조사함.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살펴 보기 위해, 언어(REVT)-표현어휘력 검사를 실시함.

〈표 1〉 조사영역과 방법

구분	대상 및 방법	내용
영유아 발달	아동 수행검사	인지발달, 언어발달
	모/교사 설문조사	사회정서, 행동발달
	모 설문조사	건강 및 신체발달
부모 및 양육환경	모 수행검사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모 설문조사	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결혼만족도, 부의 양육참여 등
사회적 특성 및 서비스 이용	모 설문조사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사회적 지지 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전문가 자문회의 및 조사원 간담회

- 조사설계와 최종 정책제언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조사원 간담회를 총 7회 실시함.

라.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결혼이민자 가족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한 외국인근로자가정을 포괄하는, 광의의 다문화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함.
- 본 연구의 조사대상 다문화가족과 아동의 표집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를 신청한 경우와 주위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눈덩이표집으로, 본 조사

의 발달실태자료는 전국 다문화가족과 영유아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에 제한이 있음.

2. 이론적 배경

가. 다문화아동 발달 연구

- (언어발달연구)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연구는 다문화 가족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언어병리학적 관점에서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지연을 보고하는 연구가 많음.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아동과의 편차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 반대로 다문화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발달 차이를 좁혀 정상적인 발달을 해나간다는 연구보고도 있음(이민경·김경근, 2009; 박주희·남지숙, 2010; 정은희, 2004; 조수진·윤희원·진대연, 2008; 조혜영·서덕희·권순희, 2008).
- (인지발달연구)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교육에 관심과 열의가 있어도 언어능력 등의 부족으로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나타남(모선희 외, 2008). 다문화 아동은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데, 이러한 언어 발달의 지연이 한국 표준화 집단에 비해 지식 습득에 있어 낮은 인지적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 다문화아동의 인지적 결과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외에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사회정서발달연구) 우리나라 다문화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분노-공격적 행동특성과 불안-위축행동 특성이 높게 나타남(오성배, 2005; 박경자·김송이, 2007; 전해정·민성혜·이민영·최혜영, 2009). 언어발달 지연과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문화적 부적응이 기관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정서발달에 어려움을 보임(설동훈 외, 2005; 오성배 2005; 이재분 외, 2009). 언어발달의 지연이 취학 후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며, 이는 비동조성, 우울 및 공격적 사회성의 표출과도 연관됨(구효진, 2009; 한정환, 2010).

- 언어적 표현과 반응을 잘하지 못하던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보이고 사회적 기술과 유능감이 증가하는 연구결과도 있음(김희태·권영덕, 2007).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 차이는 학령기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박주희·남지숙, 2010)와 고학년이 될수록 다문화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일반아동에 비해 떨어진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음(이영주, 2007).

나. 다문화가족의 양육 및 가정환경 연구

- 2009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일반가정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음. 반면, 특기보습 및 문화센터, 방문학습지 등의 사설기관과 사교육 이용률이 일반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낮음. 다문화가정의 경우 혈연에 의한 돌봄, 특히 동거 조부모의 양육지원(19.5%)이 일반가정(7.2%)에 비해 높아 다문화 가정의 조부모 양육지원이 중요하며, 시댁식구와 이웃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함(최운경, 2010).
-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과 영유아발달을 논의할 때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의한 보편적 어려움과 다문화가족으로서의 문화적 어려움을 구분하는 게 필요함. 다문화가족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어려움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남(Johnson, 2000).

3.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지원 정책

가.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

- 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자녀는 모두 126만 5,00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함. 외국계 주민 자녀는 총 151,154명으로 2008년 58,700명, 2009년 107,689명, 2010년 121,93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외국

계 주민 자녀 가운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자녀는 126,317명(약90%), 부모 모두 외국인인 자녀는 9,621명, 부모 모두 한국인¹⁾인 자녀는 15,217명임.

나.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현황

-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 관련 제도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이들의 보육 및 교육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함.
-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시행됨.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중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과 사업은 생활지원사업, 언어·인지·학습 발달 지원사업, 사회성·정서발달 지원사업, 신체발달·건강 지원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나누어져 시행됨.
- 기타 사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자바우처 제도로,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발달지원 서비스,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인터넷·게임중독 치료서비스 등이 있음.

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외국사례

- 유럽의 다문화정책은 강력한 동화 혹은 배제의 기초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으로 변화함. 독일과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더 이상 다문화대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 취약계층 지원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파리시에서와 같이 지자체 수준에서 해당지역의 이주노동자 거주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이주민 대상 육아지원기관의 설립과 다문화교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베를린시에서와 같이 시의 육아지원기관 협의체가 자체개발한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통해 다문화

1) 외국인주민 자녀는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 취득자'의 자녀를 의미함. 외국인주민 자녀 중 '한국인 부모'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를 말함.

아동에 대한 구분 없이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다문화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4. 다문화가족의 특성

가. 다문화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결혼이민자가정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정(이 경우에 부모 모두 출신국이 외국)은 8.1%였음.
-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의 부모 연령은 부의 경우 93.6%가 36세 이상이며 35세 이하는 6.4%. 모는 아버지의 경우와 달리 과반수가 35세 이하며 36세 이상은 38.8%였음.
- 부 94.2%, 모 37.1%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맞벌이 비율은 32.8%임. 외국인근로자가정의 모 취업률과 맞벌이 비율이 결혼이민자가정에 비해 높았음. 부모 학력과 월가구 소득, 모 출신국과 체류기간 등이 취업률과 맞벌이 여부와 연관되어 있음.
- 조사대상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특성으로 육아지원기관 및 공공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0.9%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동이 현재 일정하게 다니고 있는 기관이 있음. 어린이집 62.7%, 유치원 24.0%, 초등학교 11.6%, 반일제 이상 학원 0.4%, 종교기관 0.2% 순으로 나타남. 기관이용에 모 취업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역사회 복지관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률이 아동 44.9%, 부모 71.0%로 다문화아동에 비해 부모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음. 일본, 몽골,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출신 모의 아동들이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일본과 몽골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음.
-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모 학력이 낮고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일수록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적어 다문화 취약계층에의 서비스 이용이 유의하게 낮음.

나.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 모 스스로 평정한 것으로, 4점 척도 평균 2.58점으로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님. 경제적(3.01)-육체적(2.45)-심리적(2.27) 스트레스의 순으로 조사됨.
- 종단조사는 아니나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취학전 만 2세에서 5세로 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줄다가, 자녀가 취학하면서 다시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임. 영아기와 취학직후 초등 1~2학년 시기의 모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이해됨.
-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지각하고 응답한 경우,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음. 모의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즉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듦.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혀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음.
- 모의 양육행동은 4점 평균 3.26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양육행동을 여가활동, 발달·교육, 규제·지도, 친밀감·반응성의 4개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대체로 4개 영역 양육행동이 '약간 그런 편이다(3점)'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임. 친밀감·반응성의 양육행동점수가 가장 높고, 규제·지도의 영역에서 가장 낮음.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모 학력이 높을수록, 발달·교육과 규제·지도 영역의 모 양육행동이 많음.
- 다문화가족 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의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스트레스 간에 그리고 4개 영역 모 양육행동 간에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음.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모가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여가활동과 친밀반응의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발달교육의 양육행동을 많이 하며, 함께 놀아주고 애정표현과 대화를 많이 하는 모가 자녀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책을 읽어주는 등의 학습지원 행동을 함.

5.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가. 다문화아동의 건강 및 신체발달

- 모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91.2%의 대다수 아동이 장애나 질병이 없으며 질병이 있다고 응답된 아동이 7.5%, 장애가 있는 아동은 13%였음.
- 아동의 키, 몸무게를 바탕으로 비만도를 산출한 결과, 82.8%의 대부분의 아동이 정상으로 분류되었고, 비만 6.7%, 허약 4.9%로 분류됨.
- 다문화아동 모의 95.0%가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 주기적으로 산전 관리를 받았다고 응답함. 출산형태와 관련해서는 66.7%가 자연분만, 32.8%가 제왕 절개를 하여 아동을 출산함. 출산 시기와 관련하여 조산 11.5%, 만산 2.3% 임.
 - 산전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와 조산한 경우에 아동이 질병을 가지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만산을 한 경우에 아동이 비만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만 2세에서 허약/비만범주에 속하는 아동이 많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허약/비만 아동의 비율이 줄다가 만5세와 만7세 이상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허약/비만 아동의 비율이 많았음.
-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과 모의 우울과 결혼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남. 이는 모가 우울하고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을 의미함.

나.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비율이 전체 약78%로 다수였으며, 한국어와 어머니 모국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약20%였음.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이중언어 사용 비율은 점차 줄어듦.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입학후에 12.5%의 아동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보다는 여아의 이중언어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모와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은 대체로 모가 교사에 비해 아동의 한국어 능력을 좋게 평가 함.
- 어휘력 검사(REVT) 결과, 다문화 아동의 표현언어와 수용언어에 차이가 없었음. 언어발달지체로 조사된 아동은 약 40%였으며, 정상범주 약 45~47%, 우수(매우+약간)한 아동 약 8~10%로 조사됨.
 - 연령에 따라 언어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연령이 낮은 만 2, 3세보다 만 4, 5세 아동의 발달 수준이 높았으나 취학연령인 만 6, 7세가 되면 다시 발달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즉 육아지원기관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2세 미만의 영아기 아동과 초등학교 진학시기의 만 6, 7세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에 비해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을 통해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표현언어발달에는 아동의 인지발달(인지처리과정)(.39), 모 표현어휘력(.23), 모의 체류기간(-.10)이, 아동의 수용언어 발달에는 아동의 인지발달(인지처리과정)(.39), 모의 표현어휘력(.17), 모 연령(-.12), 아동의 성별(여아 .10)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 자신의 인지처리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모의 언어능력으로 나타남. 모 체류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부족과 감소, 또는 모 언어능력의 정체로 아동의 표현어휘력 발달이 또래 아동에 비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모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모 행동에서 여가활동과 발달 교육부분, 긍정적 양육행동이 적어지고 규제·지도의 양육행동이 늘어나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모 연령은 모의 체류기간과 연관되어 보임.
 - 영유아기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에 가장 주요한 환경요인은 '어머니'로 나타남.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유의한 근접변인은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는 모의 언어능력과 모-자녀간 언어적 상호작용임.

다.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

- 인지발달 검사(K-ABC) 결과, 순차처리 평균 100.25점, 동시처리 평균 108.72점, 순차처리와 동시처리를 합산한 인지처리과정 점수는 평균 105.70점으로 나타남. 순차처리 점수보다 동시처리점수가 약간 더 높았으며 조사대상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수준 평균은 평균수준이거나 평균을 다소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상대적으로 만2세의 인지점수가 순차와 동시 처리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임.
-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에 비해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동의 인지발달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음.
-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력과 아동의 인지발달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모의 표현언어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음.
- 회귀분석을 통해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순차처리에는 아동의 표현언어와 수용언어 수준, 부의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동시처리에는 아동의 수용언어,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학력, 아동의 성별로 나타남. 인지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아버지 학력으로 나타남.
- 다문화 아동의 인지발달의 경우, 아동 자신의 언어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인 가운데, 환경변인으로는 아버지 학력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모 양육행동과 같은 양육환경의 질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남.

라.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발달

- 모가 평정한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이 증가하고, 내재적 문제행동도 증가하나, 외현적 문제행동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친사회성,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이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
-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아동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의 점수는 낮고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의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을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사회정서발달 총점에는 아동성별, 결혼만족도, 모 체류기간, 양육행동 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내재적 문제행동에는 모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이, 외현적 문제행동에는 아동성별, 순차처리능력, 모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친사회성, 사회적 유능성 발달이 대체로 양호한 편에 속하며, 문제행동은 별로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교사 평정과 모 평정을 비교하면, 사회정서발달 총점과 내재적 문제행동에서 모의 평정과 교사의 평정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친사회성과 외현적 문제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또래 친구와 협동하고 놀잇감을 나누며 자신보다 어린 아동을 돌보는 등의 친사회적 특성과 공격적 말과 행동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자주 분노하는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 양자에서 모두 모가 교사에 비해 높게 응답함.

마. 교사와 기관장이 평정한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실태

- 교사가 평정한 다문화 아동의 발달은 언어, 인지발달 및 학업수행에서 다른 아동에 비해 지연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았음.
- 기관장 역시 교사 평정과 마찬가지로 언어, 인지 발달 및 학업수행에 관련하여 다문화 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약간 지연되었다고 평가한 경향이 있음.

바. 다문화아동의 발달 영역 간 상관관계

- 신체발달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 특히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인지와 언어발달이 사회정서발달 가운데 외현적 문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순차처리 능력)과 언어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조절하고 공격성을 덜 표출함을 알 수 있음.

6.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 유형

-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사된 발달수준과 발달영역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유형화 함.
- 유형화 결과, 조사대상 다문화아동의 과반에 해당하는 55%의 영유아가 ‘언어인지우수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19%는 ‘사회정서(신체)우수형’, 26%는 ‘발달부진형’으로 분류됨.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과 역량이 다양한 가운데, 발달우수·양호 집단과 발달부진 집단간의 발달 격차가 큰 양상을 보임.

7. 다문화아동 발달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 다문화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발달유형별, 발달영역별, 발달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나누어 제시함.
- ‘발달부진형’ 아동에게는 모든 발달영역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지원과 사례 관리의 접근이 필요함. 취약계층 대상 통합적 지원체계 편입을 통한 적극적인 조기 개입이 요구됨. ‘사회정서(신체)우수형’ 아동에게는 사회성과 정서지능, 그리고 신체적 역량이 이후의 성장경로를 긍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활동중심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다양한 참여와 체험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언어인지우수형’ 아동에게는 인지적으로 심화된 상위수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이 통합교육의 체계내에서 제공될 것이 요구됨.
- 인지발달의 경우, 아동의 학습 및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순차 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사회정서발달의 경우, 보다 다양한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의 개발로 사회정서적으로 유능한 아동의 친사회성과 유능성을 독려하고,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문제행동 요인은 감소시키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 발달시기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아동의 발달부진 비율이 높고 서비스 접근과 교육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저조한 영아기와 초등 입학후 저학년 시기에의 지원 강화가 요구됨.

- 다문화가족과 아동은 동질적 취약계층이 아닌 변이와 차이를 내포한 다양한 분포를 보이므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다변화하되, 우리나라의 다문화아동 지원정책은 이제 그들의 다양성과 차별화가 양극화의 격차로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함.
- 단·중기적으로 영유아기 다문화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지원을 통해, 다문화아동의 취학전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률을 고루 높이고 이를 통한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다문화아동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에 근거한 지원보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아동 발달수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일반적인 취약계층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언함.
-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지원체계의 범주안에 외국인근로자가정 특히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켜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동이 정책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지원체계가 요구됨.
- 그 밖에 서비스 이용의 확대 및 형평성 제고, 다문화아동의 발달역량에 중점을 둔 지원, 모 출신국가를 고려한 접근, 모의 심리사회적 건강 및 사회적 네트워크 증진, 양육관련 부모 지원 및 부모교육의 제공 등이 필요함.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및 설계	5
II. 이론적 배경	14
1. 다문화아동 발달 연구	14
2. 다문화가족의 양육 및 가족환경 연구	24
3. 요약 및 시사점	28
III.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과 관련 제도 및 발달 지원 정책	29
1.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	29
2.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제도 및 발달 지원 정책	31
3.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외국사례	65
4. 요약 및 시사점	75
IV. 다문화가족 조사대상자 특성	77
1. 다문화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77
2.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96
3. 요약 및 시사점	129
V.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132
1. 다문화아동의 건강 및 신체발달	132
2.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140
3.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	152
4.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발달	162

5. 다문화아동의 발달영역 간 상관관계	174
6. 요약 및 시사점	176
VI. 다문화아동의 발달 유형	180
1.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 유형화	180
2. 다문화아동의 발달유형별 차이	185
3. 요약 및 시사점	189
VII. 다문화아동 발달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191
1. 다문화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191
2.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 대상 증장기 지원 방안	198
참고문헌	203
부 록	215
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217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227
부록 3. 기관장용 설문지	232
부록 4. 교사/기관장용 설문 결과: 다문화아동 대상 교육 및 정책	237

표 차례

〈표 I-3-1〉 조사영역과 방법	7
〈표 I-3-2〉 어머니 대상 설문 내용	7
〈표 I-3-3〉 교사 및 기관장 대상 설문 내용	7
〈표 I-3-4〉 아동 인지발달도구(K-ABC)의 인지처리척도 하위영역과 개념 ...	9
〈표 I-3-5〉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측정도구(SCBE)의 하위영역과 개념	11
〈표 I-3-6〉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13
〈표 III-1-1〉 2010~2011년 외국인 주민 규모	29
〈표 III-1-2〉 2011년 외국계 주민 자녀 규모	30
〈표 III-1-3〉 2011년 연령/부모출신국별 외국계 주민 자녀 규모	31
〈표 III-2-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중 다문화가족·외국인 가정 영유아 관련 내용	32
〈표 III-2-2〉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내용	33
〈표 III-2-3〉 영유아보육법 중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내용	36
〈표 III-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정 아동 관련 내용 ..	37
〈표 III-2-5〉 제1차 외국인 기본 계획	38
〈표 III-2-6〉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39
〈표 III-2-7〉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중점과제	42
〈표 III-2-8〉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2011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43
〈표 III-2-9〉 2011년도 부처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현황	46
〈표 III-2-10〉 시·도청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내용	47
〈표 III-2-11〉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내용	52
〈표 III-2-12〉 민간 차원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정 지원 내용	58
〈표 III-2-13〉 다문화가족의 생활지원사업	58
〈표 III-2-14〉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사업	59
〈표 III-2-15〉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사업	59
〈표 III-2-16〉 다문화아동 대상 언어·인지·학습발달 지원사업	59
〈표 III-2-17〉 민간단체의 다문화아동 대상 언어·인지·학습발달 지원 사업	60
〈표 III-2-18〉 다문화아동 대상 사회·정서발달 지원 사업	61
〈표 III-2-19〉 지방정부의 다문화아동 대상 사회·정서발달 지원 사업	61

〈표 III-2-20〉 민간단체의 다문화아동 대상 사회·정서발달 지원 사업	62
〈표 III-2-21〉 다문화아동 대상 신체발달·건강 지원 사업	62
〈표 III-2-22〉 지방정부의 다문화아동 대상 신체발달·건강 지원 사업	63
〈표 III-2-23〉 민간단체의 다문화아동 대상 신체발달·건강 지원사업	63
〈표 III-2-24〉 다문화아동 대상의 기타 지원 사업	64
〈표 III-2-25〉 지방정부의 다문화아동 대상의 기타 지원 사업	64
〈표 III-2-26〉 민간단체의 다문화아동 대상의 기타 지원 사업	65
〈표 III-3-1〉 RAA의 주요 언어 프로그램	70
〈표 III-3-2〉 우선교육지대(Priority Education Zone: ZEP) 주요 내용	73
〈표 IV-1-1〉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의 분포 및 모집단과의 비교	78
〈표 IV-1-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79
〈표 IV-1-3〉 가구규모 및 자녀수	80
〈표 IV-1-4〉 현재 결혼상태	80
〈표 IV-1-5〉 아동의 연령 및 성별	81
〈표 IV-1-6〉 아동의 연령 및 출생순위	81
〈표 IV-1-7〉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82
〈표 IV-1-8〉 월 가구소득	83
〈표 IV-1-9〉 가족특성별 소득수준	83
〈표 IV-1-10〉 부모특성별 소득수준	85
〈표 IV-1-11〉 부모 취업 지표	86
〈표 IV-1-12〉 가족특성별 부모 취업 지표	86
〈표 IV-1-13〉 부모특성별 부모 취업 지표	87
〈표 IV-1-14〉 부모의 출신국 및 국적	89
〈표 IV-1-15〉 부모 입국 목적 및 비자	90
〈표 IV-1-16〉 모의 원가족 한국거주 여부	91
〈표 IV-1-17〉 아동의 현재 국적 및 중도입국 여부	91
〈표 IV-1-18〉 아동이 현재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	92
〈표 IV-1-19〉 기관별 다문화아동 대상 프로그램 제공 여부	93
〈표 IV-1-20〉 아동의 기관행사에 대한 부모의 참여	93
〈표 IV-1-21〉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	94
〈표 IV-1-22〉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94

〈표 IV-1-23〉 모 출신국별 공공서비스 이용률	95
〈표 IV-1-24〉 아동의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의 차이	96
〈표 IV-2-1〉 아동의 주 양육자	97
〈표 IV-2-2〉 모의 양육스트레스	98
〈표 IV-2-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 비교	99
〈표 IV-2-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	100
〈표 IV-2-5〉 사회적 지지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	101
〈표 IV-2-6〉 모의 양육행동	102
〈표 IV-2-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행동	104
〈표 IV-2-8〉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행동	105
〈표 IV-2-9〉 사회적 지지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모 양육행동	107
〈표 IV-2-10〉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 상관관계	107
〈표 IV-2-11〉 모가 평정한 부의 양육참여 정도	108
〈표 IV-2-12〉 가족특성에 따른 부의 양육참여	109
〈표 IV-2-13〉 부모 특성에 따른 부의 양육참여	110
〈표 IV-2-14〉 아동 특성에 따른 부의 양육참여	111
〈표 IV-2-15〉 사회적 지원 여부에 따른 부의 양육참여	112
〈표 IV-2-16〉 모의 결혼만족도	113
〈표 IV-2-17〉 가족특성에 따른 모의 결혼만족도	114
〈표 IV-2-18〉 부모 특성에 따른 모의 결혼만족도	114
〈표 IV-2-19〉 사회적 특성에 따른 모의 결혼만족도 차이	116
〈표 IV-2-20〉 도움을 주는 사람	116
〈표 IV-2-21〉 도움을 주는 사람 여부	117
〈표 IV-2-22〉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	117
〈표 IV-2-23〉 가족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118
〈표 IV-2-24〉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지지	119
〈표 IV-2-25〉 모의 출신국과 제 특성에 의한 사회적지지	120
〈표 IV-2-26〉 우울의 일반적 경향	121
〈표 IV-2-27〉 가족특성에 따른 우울	121
〈표 IV-2-28〉 부모연령과 학력에 따른 우울	122
〈표 IV-2-29〉 부모의 제 특성에 의한 우울	123

〈표 IV-2-30〉 양육특성과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상관관계	124
〈표 IV-2-31〉 모의 REVT 표현언어 평균점수	124
〈표 IV-2-32〉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 수준별 비율	125
〈표 IV-2-33〉 부모 특성에 따른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 차이	125
〈표 IV-2-34〉 아동 특성에 따른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 차이	127
〈표 IV-2-35〉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	127
〈표 IV-2-36〉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과 양육 특성과의 상관관계	128
〈표 VI-2-37〉 교사들이 생각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128
〈표 VI-2-38〉 원장/교장들이 생각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129
〈표 V-1-1〉 아동의 건강상태	132
〈표 V-1-2〉 아동의 건강상태와 부모의 건강상태의 상관관계	133
〈표 V-1-3〉 아동의 신체발달 실태	133
〈표 V-1-4〉 아동의 활동 및 수면	134
〈표 V-1-5〉 바깥놀이 여부와 취침시간에 따른 신체발달	134
〈표 V-1-6〉 아동의 산전 관리 및 출생	135
〈표 V-1-7〉 출산에 따른 아동의 건강상태	136
〈표 V-1-8〉 출산에 따른 아동의 신체 발달	136
〈표 V-1-9〉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발달	137
〈표 V-1-10〉 아동의 가족 특성에 따른 신체발달	138
〈표 V-1-11〉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신체발달	139
〈표 V-1-12〉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에 따른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139
〈표 V-1-13〉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에 따른 모의 양육 특성의 차이	140
〈표 V-2-1〉 아동의 언어사용	140
〈표 V-2-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언어사용	141
〈표 V-2-3〉 모 평정 아동의 한국어/어머니 모국어 능력	141
〈표 V-2-4〉 모/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언어능력	142
〈표 V-2-5〉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결과	142
〈표 V-2-6〉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결과-언어능력 연·월령 분포	143
〈표 V-2-7〉 아동의 연령과 언어발달연령 분포 비교	143
〈표 V-2-8〉 아동특성별 아동 언어발달수준	144
〈표 V-2-9〉 가족특성별 아동 언어발달수준	145

〈표 V-2-10〉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표현언어발달수준	146
〈표 V-2-1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수용언어발달수준	147
〈표 V-2-12〉 아동의 언어발달수준과 모의 언어능력 간의 상관관계	148
〈표 V-2-13〉 아동의 언어발달수준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상관관계 ..	149
〈표 V-2-14〉 아동의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언어발달 차이	149
〈표 V-2-15〉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표현언어발달	150
〈표 V-2-16〉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수용언어발달	151
〈표 V-3-1〉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능력(K-ABC)	152
〈표 V-3-2〉 아동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	154
〈표 V-3-3〉 가족유형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	155
〈표 V-3-4〉 부모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 순차처리	157
〈표 V-3-5〉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인지발달: 동시처리 ·	158
〈표 V-3-6〉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아동의 인지발달: 인지처리과정 ...	159
〈표 V-3-7〉 모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과 아동의 인지발달 상관관계	160
〈표 V-3-8〉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순차처리	160
〈표 V-3-9〉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동시처리	161
〈표 V-3-10〉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인지처리과정	161
〈표 V-4-1〉 다문화 아동 사회정서 발달의 일반적 경향	162
〈표 V-4-2〉 아동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차이	163
〈표 V-4-3〉 가족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164
〈표 V-4-4〉 부모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165
〈표 V-4-5〉 교사가 평정한 일반적 경향	166
〈표 V-4-6〉 아동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167
〈표 V-4-7〉 가족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167
〈표 V-4-8〉 부모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168
〈표 V-4-9〉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총점에 대한 회귀분석	169
〈표 V-4-10〉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170
〈표 V-4-11〉 아동의 내재적 문제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170
〈표 V-4-12〉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171
〈표 V-4-13〉 모와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평정결과 차이 ..	172
〈표 V-4-14〉 아동의 기관 적응	172

〈표 V-4-15〉 아동의 사회적 관계	173
〈표 V-4-16〉 교사가 생각하는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실태	173
〈표 V-4-17〉 기관장이 생각하는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실태	174
〈표 V-5-1〉 각 발달 영역간의 상관관계	175
〈표 V-5-2〉 각 발달 영역간의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175
〈표 VI-1-1〉 군집 유형별 신체발달 수준	181
〈표 VI-1-2〉 군집 유형별 표현언어발달 수준	181
〈표 VI-1-3〉 군집 유형별 수용언어발달 수준	182
〈표 VI-1-4〉 군집 유형별 인지발달 수준	183
〈표 VI-1-5〉 군집 유형별 사회정서발달 수준	184
〈표 VI-1-6〉 군집 유형별 특성	184
〈표 VI-2-1〉 유형별 아동특성의 차이	185
〈표 VI-2-2〉 유형별 가족특성의 차이	186
〈표 VI-2-3〉 유형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	187
〈표 VI-2-4〉 유형별 양육환경특성의 차이	188
〈표 VI-2-5〉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유형별 차이	189

그림 차례

[그림 IV-2-1] 모의 양육스트레스	98
[그림 IV-2-2] 모의 양육행동	103
[그림 IV-2-3] 아버지의 양육참여	108
[그림 IV-2-4] 모 출신국별 아버지의 양육참여	111
[그림 IV-2-5] 모의 결혼만족도	113
[그림 IV-2-6] 모의 사회적 지지	118
[그림 V-3-1] 다문화아동의 인지능력(K-ABC)	153
[그림 VI-1-1] 발달수준별 군집분포	180
[그림 VI-1-2] 군집 유형별 신체발달 수준	181
[그림 VI-1-3] 군집 유형별 표현언어발달 수준	182
[그림 VI-1-4] 군집 유형별 수용언어발달 수준	182
[그림 VI-1-5] 군집 유형별 인지발달 수준	183
[그림 VI-1-6] 군집 유형별 사회정서발달 수준	184

부록 표 차례

〈부표 1〉 조사참여 교사 및 기관장의 특성	237
〈부표 2〉 조사참여 육아지원기관의 특성	238
〈부표 3〉 다문화아동 대상 특별프로그램이나 혜택 여부	238
〈부표 4〉 교사의 다문화아동 교육에 대한 태도	239
〈부표 5〉 교사가 인식하는 다문화아동 교육의 어려운 점	239
〈부표 6〉 기관장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	240
〈부표 7〉 기관장이 인식하는 다문화교육의 어려운 점	240
〈부표 8〉 교사가 제안하는 다문화아동/가족관련 정책	242
〈부표 9〉 기관장이 제안하는 다문화 관련 정책	243
〈부표 10〉 기관장이 보는 다문화아동/가족대상 정책현황	2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 역사적으로 다문화시대가 아니었던 적은 없다. 과거 교통과 통신술의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시대에도 교역과 외교, 혹은 전쟁 등을 통해 국가간 이주민은 항시 존재해왔으며,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사회 변동과 발전에 주요한 견인이 되었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3만4천2백건으로 2000년에 1만1천6백건이었던 것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로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부부이다. 외국인 단순인력 또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2001년 대비 약 4.6배 증가한 51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7년 방문취업제의 실시에 따라 동포인력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통계청, 2010).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6월 기준 결혼이민자 141,654명, 외국계주민 1,265,00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이제 한국 사회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귀국 재외동포, 유학생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국적 및 이주 경로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 또한 성장하고 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0~18세 외국인주민 자녀, 즉 다문화가족 자녀는 총 151,154명으로 외국인주민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만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93,537명으로 전체 다문화아동의 약62%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다문화아동의 미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생애초기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중요성은 산술적 수치 이상이다. 생애초기 경험의 이후 아동 발달에의 연속성 및 누적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아동에 대한 영유아기 지원은 다문화 정책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연구는 국제결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와 정착의 주체인 성인의 적응과정과 가족기능의 실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설동훈 외, 2005; 김승권 외, 2010). 다문화가족 연구의 또 다른 축은 다문화가

족의 자녀양육 지원의 관점에서 자녀 대상 지원서비스 및 교육적 중재에 초점을 둔 연구(김은영 외, 2010; 문무경·조혜주, 2008; 서문희 외, 2010)와 아동 관점에서의 발달과 적응, 성장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곽금주, 2008; 구효진, 2009; 박경자·김송이, 2007; 우현경 외, 2009; 전혜정 외, 2007). 들로 이루어져왔다.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과 자녀 지원 사업들이 전국단위에서 보다 다양한 전달체계와 서비스로 구체화되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 이로써 다문화가족 성인 및 아동 세대간 지원의 균형과 체계성이 확보되고 아동의 관점과 시각이 반영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성인 중심에서 자녀세대의 발달 요구에 적합한 정책설계로 전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학 전후 다문화아동의 생애초기 발달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논의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첫째, 다문화아동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아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상으로서의 정의는 그들의 '취약성'이라는 동질적 특성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를 다문화가족으로 규정, 한국국적에 근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 다문화가족의 범주는 이미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출신국가별, 직업형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거주지역, 체류신분(비자상태)과 기간 등의 특성별로 매우 상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및 아동에 대한 연구 및 지원체계는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 및 결핍을 보이는 동질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머물러 있다(Garcia Coll et al., 1996; Johnson, 2000).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구분되는 다문화가족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의 역량과 다양한 발달적 요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자녀양육지원체계는 다문화가족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내용을 다변화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취학전후 시기에 영유아기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생기는 생애주기별 발달의 변이는 더욱 클 것이므로, 다문화가족의 다양성과 차별성에 주목하는 다문화아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그 간의 다문화아동 발달 연구들은 특정 발달 영역에 국한된 연구가 많았다. 다문화아동의 발달 점수를 일반 아동의 평균점수와 비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그들의 발달수준 열세가 규명되고 특히 언어적 지연 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보고되는 연구가 다수였다. 이러한 발달 연구결과의 축적이 현재와 같은 언어교육 위주의 다문화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키는 주요한 자료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과정은 특정 발달영역에 국한되거나, 부적 영향의 기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문화아동 취학전후의 발달영역 전반을 고려하는 유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한쪽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다문화아동의 경우, 다양한 맥락 특성에 의해 그들의 취학전 한국어 수준이 일반 한국아동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결과일 수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다문화아동은 한국어 모국어 아닌 다른 한쪽 부모의 영향에 의해 제2외국어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고 이로 인해 이중 혹은 다중 언어습득의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중언어 사용은 다문화아동의 발달역량으로 나타나고 교육적 중재의 효과가 높다(장명립 외, 2010; 김희태·권영덕, 2007). 또한 한국어 습득에서 비다문화 한국아동 평균과의 유의한 차이가 결과적으로 언어발달 지연의 '발달문제'로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충분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아동의 발달 수준을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과정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함께 다문화아동에게 내재된 발달역량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아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아동의 발달지연을 설명하는데 외국인 부모, 즉 대개의 경우 결혼이민자 모의 특성에서 그 발달적 연관성과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균형 잡힌 생태학적 시각에서 가족 및 사회환경 전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민자 모의 언어발달지연이 자녀의 언어발달지연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아동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취학 전 발달수준의 열세가 이민자 또는 외국인 부모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 모의 영향력이 우선함은 주지의 사실이나, 모 외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의 부족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민자 성인, 외국인 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 측면을 갖는 게 아닌가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

다문화가족이 보고하는 어려움과 부적응의 과정은 이민자 부 또는 모의 취약성에 국한되지 않는 가족환경 및 사회적 관계와 지원, 가치체계 등의 보다 큰 사회적 환경과의 연관성 안에 있다(설동훈 외, 2005, 2006; 오성배, 2005; 전해정

외, 2009). 따라서 다문화아동에 대한 발달 연구는 가족 및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보다 확대된 시각의 생태학적 관점을 필요로 하며, 이는 특히 가족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한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연구가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역량개발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양계민·조혜영, 2010). 그러나 이는 다문화아동의 청소년기 진입을 고려한 학교환경과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로, 다문화아동의 생애초기 가족환경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역할,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 등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구체적 양육환경과 양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 자녀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특성을 파악하여 이것이 타당한 차이인지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다문화아동 지원의 맞춤형 설계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생성함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특성이 다문화아동의 발달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여, 향후 다문화가족 및 자녀에의 지원이 보다 다변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문화아동 고유의 잠재된 발달역량을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발달영역과 우수한 발달역량이 균형 있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다문화아동과 부모 대상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국내외 다문화아동의 발달 수준과 양육환경에 대해 이해한다.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분포와 영유아 자녀의 구성, 지역별·출신국가별·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 지원체계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특성을 검토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가정환경을 자녀양육환경과 부모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또한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 및 사회적 지원환경 변인으로 조사하여 다문화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생태학적 환경을 조사한다.

넷째, 우리나라 다문화 영유아의 취학전후의 발달 수준을 조사한다. 다문화 영유아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신체 및 건강 등 전반적인 발달실태를 기준 점 수화하여, 일반가정 아동 대비 그리고 다문화아동 내 차이에 대해 분석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가정환경 및 부모 특성과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영유아의 발달 과정과 연관된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및 부모 특성을 파악하여 다문화아동의 발달과 성장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고, 발달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유형화한다. 유형화안을 토대로 관련된 주요 변인을 파악하고, 이것이 부모 및 아동 대상 지원 정책, 프로그램과 유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분석한다.

여섯째, 다문화가족 특성과 영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언한다.

3. 연구방법 및 설계

가. 문헌연구

국내 외 다문화가족 및 아동 연구문헌과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현황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다문화가족과 영유아 발달 현황과 외국의 그것을 비교, 고찰하였다.

나. 설문조사 및 발달검사

설문조사는 다문화가족의 모, 아동이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당 교사와 원장/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아동 및 부모 특성, 양육환경, 사회적 관계, 아동의 신체 및 사회정서발달,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용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해당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및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발달검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언어발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어휘력검사도구(REVT)를 사용하여 표현언어 발달과 수용언어 발달검사를 하였고, 인지발달 실태는 카우프만지능검사(K-ABC)를 사용하여 순차처리와 동시처리 능

력을 살펴보았다. 한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REVT 표현언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가)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영유아

만2세~만7세(초등학교 1학년)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가정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534사례를 대상으로 아동 발달수행검사와 모 설문조사 및 모의 한국어 능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4개권역(서울, 경기/충청, 전라, 경상)의 지역별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관련 민간단체를 통해 조사대상 모집안을 배포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 결혼이민자 가정 488가구와 외국인근로자 가정 46가구를 임의표집하였다. 조사신청서를 작성한 총 534가정은 2011년 6월~9월에 전문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조사와 수행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다문화아동 담당교사 및 원장/교장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측정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고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사회정서발달을 반영하기위해 담당교사 및 원장/교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가 설문지에 기입한 자녀가 일정하게 다니는 기관과 담당 교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용 설문지와 기관장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는 총 243명, 기관장은 162명이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다문화가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은 <표 I-3-1> 과 같이 영유아 발달, 부모 및 양육환경, 사회적 특성 및 서비스 이용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유아 발달조사에서는 크게 인지, 언어, 사회정서, 건강 및 신체 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부모 및 양육환경 조사는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우울,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환경, 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특성 및 서비스 이용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사회적 지지, 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I-3-2> 는 어머니용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이고, <표 I-3-3> 은 교사용 설문지와 기관장·학 교장용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이다.

〈표 1-3-1〉 조사영역과 방법

구분	대상 및 방법	내용
영유아 발달	아동 수행검사	인지발달, 언어발달
	모/교사 설문조사	사회·정서 행동발달
	모 설문조사	건강 및 신체발달
부모 및 양육환경	모 수행검사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모 설문조사	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결혼만족도, 부의 양육참여 등
사회적 특성 및 서비스이용	모 설문조사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사회적 지지 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

〈표 1-3-2〉 어머니 대상 설문 내용

구분	문항
가족 및 부모 특성	- 가족특성: 다문화가족 유형, 가족원/자녀수, 가구소득 - 부모 특성: 연령, 종교, 학력, 출신국, 거주기간, 직업, 질병여부(건강), 입국시 목적 및 비자 종류 등
자녀 특성	- 성별, 연령, 국적, 출생순위, 건강상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등 지역사회특성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사회적 지원 및 교류의 경험 -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이용
자녀에 대한 발달 평정	- 언어, 사회적 관계, 사회정서 행동평가 - 자녀의 건강 및 신체적 발달, 신체활동
모 특성	- 심리사회적 특성: 우울,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감 - 양육환경 특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의 양육참여

〈표 1-3-3〉 교사 및 기관장 대상 설문 내용

구분	대상	문항
아동의 사회·정서 행동	담당교사	- 조사대상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발달 평정
다문화아동의 전반적 발달 및 양육 환경	담당교사	- 다문화아동의 전반적 발달 수준 평정
	기관장	- 다문화가족의 전반적 양육 환경 평가
다문화가족/아동 대상 정책과 서비스	담당교사 기관장	- 원내 다문화/외국인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유무 - 다문화아동 대상 보육/교육에 대한 태도 - 다문화아동발달과 다문화가족 양육환경 평정 - 다문화 관련 정책제안 및 정책현황 평가

3) 조사도구

가) 아동 인지 발달 검사(K-ABC)

(1) 개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K-ABC(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세 6개월에서 12세 6개월 아동들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1983년 Kaufman과 Kaufman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1997년 문수백과 변창진에 의해 국내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K-ABC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의 인지처리 양식을 측정하는 검사로 비언어적 과제에 비중을 두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 아동이나 타문화권 아동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2) 도구 구성

K-ABC는 인지처리척도와 습득도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처리 척도는 다시 순차처리 척도와 동시처리 척도로 나뉜다. 순차처리 척도는 손동작, 수회생, 단어 배열 3개의 하위검사, 동시처리척도는 마법의 창, 얼굴기억, 그림통합, 삼각형, 시각유추, 위치기억, 사진순서 등 7개 하위검사, 습득도는 표현어휘, 인물과 장소, 산수, 수수께끼, 문자해독, 문장이해 6개 하위검사, 즉 총 16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에게 실시될 소검사는 아동의 생활연령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검사 시간은 약 35~85분 정도가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인지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순차처리척도와 동시처리척도로 구성된 인지처리척도만을 적용하였다. 이는 영유아대상 검사소요시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하다. <표 I-3-4>는 하위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고유의 특성 및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표 1-3-4〉 아동 인지발달도구(K-ABC)의 인지처리척도 하위영역과 개념

하위검사	고유의 특성 및 능력
1. 마법의 창	• 순차적으로 제시된 시각자극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
2. 얼굴기억	• 시각적으로 자극을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 • 얼굴 지각 • 얼굴 재인
3. 손동작	• 일련의 동작을 순서대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
4. 그림통합	• 지각적 형태완성 • 지각적 추론 • 추상적 자극을 구체적인 사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5. 수회생	• 자동적 청각-음성적 기억
6. 삼각형	• 비언어적 개념형성 • 시간적 압력 하에서의 과제수행 능력
7. 단어배열	• 청각-시각 통합력 • 청각-운동 기억 • 시연을 방지한 조건하에서의 파지력 • 지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능력 • 방해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8. 시각유추	• 유추적 사고
9. 위치기억	• 공간을 구획화하고 공간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10. 사진순서	• 계열화 능력 • 시차적 관계 파악 및 시간 개념 •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 • 인과관계에 대한 상식적 이해력

나) 다문화아동과 어머니 언어발달 검사(REVT)

(1) 개요

아동과 어머니의 언어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는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 양자를 모두 평가하며, 만2세 6개월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 단계에서의 어휘력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척도이다.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는 일반 아동 및 성인 외에도 다문화, 이주민, 저소득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어휘력 발달에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 유전적 발달적 요인(예: 미숙아, 저체중아, 말늦은 아동 등)으로 인해 어휘력 습득에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의 다양한 경우에 유용한 어휘력 검사도구이다.

(2) 도구 구성

검사는 크게 수용어휘검사와 표현어휘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18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결과를 통해 대상자의 어휘발달을 '정상발달', '약간지체/유의요망', '발달지체'로 판별할 수 있다. 수용 및 표현 어휘능력 점수가 해당 생활연령대의 평균점수로부터 -1 표준편차 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상발달'로 보며, -1표준편

차와 -2표준편차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간지체 또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의미의 유의요망으로 판정한다. -2표준편차를 넘어서는 경우는 어휘능력 발달지체로 판정한다.

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SCBE)

(1) 개요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가(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Preschool Edition(유아용))는 30개월에서 78개월의 아동들의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표현과 적응문제의 형태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이다. 일상적 조건하에서 약 15분 동안 아동들을 관찰하여 채점하는 80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SCBE는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긍정적 행동의 존재에 초점을 갖고 발달적 일탈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다. SCBE는 아동의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적응 또는 유능성을 측정하여 구체적인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구분한다.

(2) 도구 구성

SCBE는 8개의 기본 척도와 4개의 요약 척도를 제공하며 기본 척도는 각각 10개 항목으로 구성, 성공적 적응(5개)과 적응 문제(5개)를 기술한다. 4개의 요약 척도는 사회적 유능성, 내재화, 외현화, 일반적 적응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SCBE는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편형 30문항을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편형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하위 영역별 개념 및 문항 번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5〉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측정도구(SCBE)의 하위영역과 개념: 모 및 교사용

하위 영역	개 념	문항 번호	
		모	교사
긍정-친사회적 행동	또래 및 교사와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를 잘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회 정서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적응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10, 12, 14, 15, 16, 19, 20, 23	10, 12, 14, 15, 16, 19, 20, 23, 27, 29
내재적 문제 ¹⁾ (불안-위축된 행동)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어, 집단에서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부적응적 행동을 의미한다.	1, 4, 5, 6, 9, 11, 17	1, 4, 5, 6, 9, 11, 17, 24, 28, 30, 31
외현적 문제 ¹⁾ (분노-공격적 행동)	전반적으로 화나 있고, 또래에게 공격적이고 성인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여 집단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부적응적 행동을 의미한다.	2, 3, 7, 8, 13, 18, 21, 22	2, 3, 7, 8, 13, 18, 21, 22, 25
사회적 유능성 ²⁾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교사, 또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맺고, 단체 활동에 잘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학업 및 과제를 스스로 수행하고 마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32-50	

주: 1) 사회적 유능성 점수로 합산시 역채점

2) 하위의 사회적 유능성 영역은 SSRS(Social Skills Rating Scale)의 문항을 재구성한 것으로 교사 대상 사회정서발달 문항에 추가 반영된, 교사용 질문 항목임. 단체활동에서 주도적·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정과 화해의 리더십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 행동을 포함함.

4) 연구절차

문헌연구를 토대로 연구진이 구성한 설문지는 본 조사 실시애 앞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어머니에게 적합한 내용인지, 소요시간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1년 5월에 결혼이민자 가정의 어머니 6인과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어머니 3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통 설문조사를 완성하는 시간은 30-40분이 걸렸으며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머니의 언어수준에 따라 편차가 컸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수와 길이를 줄이고 축약형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항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는 6개 국어(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우즈베크어)로 번역한 후,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았다.

본 조사수행에 앞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어린이집 및 민간지원센터 등을 통해 어머니들께 연구개요 및 조사관련 정보를 제공한 후, 조사참여 신청서를 받았다. 연구개요 및 신청서 또한 한국어를 포함하여 6개 국어로 번역된 것을 제공하였다.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어머니들께는 조사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한 후 가정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6월에는 아동발달 검사와 어머니용 설문조사 진행을 맡아 줄 전문조사원을 대상으로 발달검사수행 및 조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워크숍 이후, 서울, 경기도/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4개권을 중심으로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다문화아동 대상으로 인지발달검사(K-ABC)와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를 수행하였고, 어머니 대상으로는 어머니용 설문조사와 표현어휘력검사를 수행하였다. 수행검사는 조사원과 조사대상자가 면대 면으로 실시하며 어머니용 설문조사는 번역된 설문지를 참고로 하며 조사원은 경우에 따라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원의 진행 하에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동발달 검사와 어머니용 설문조사가 마무리된 후, 어머니가 기입한 기관과 담당교사 정보를 바탕으로 협조요청 공문과 함께 교사용 설문지와 기관장용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 이메일과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다. 해외출장을 통한 외국정책 조사

이주민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다문화아동에의 지원체계가 발달한 유럽의 현재 지원정책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파리, 독일 동베를린시를 방문하였다. 중앙 및 지자체 정부와 지역사회 육아지원기관 현장에서 다문화정책의 설계와 구체적 지원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아동발달검사 수행 관련하여 전국 지역별로 설문지 구성 및 검사수행, 정책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표 1-3-6〉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대상	내용
다문화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 연구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자문 - 다문화아동 발달 실태 문의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언어지도사	- 연구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자문 - 다문화아동 발달 실태 문의
안산 외국인지원센터	- 연구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자문 - 외국인근로자가정아동 발달 실태 문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및 아시아프렌즈	- 연구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자문 - 외국인근로자가정아동 발달 실태 문의
금산, 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	-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의 발달 실태 및 이주 여성의 생활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및 요구
조사원 간담회	- 조사 진행사항 중간점검 - 다문화아동발달 실태 및 양육환경 실태 논의 - 심층조사관련 논의

마.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한 외국인근로자가정을 포괄하는, 광의의 다문화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조사내용 분석시 가족유형구분에서는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은 가족원 가운데 법적인 의미의 한국인이 포함된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즉 국제결혼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또는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체적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다문화아동,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 자녀 등과 같은 의미에서 호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 아동과 가족의 표집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를 신청한 경우와 주위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눈덩이표집의 유의표집으로, 조사대상 다문화가족과 영유아의 양육환경과 발달실태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에 제한을 갖는다. 다양한 사례와 가정환경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불법체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정의 접근이 어려워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심층 취약사례에 대한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국내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가정의 아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혼인을 목적으로 결혼이민자 위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특성과 외국의 이주민 중심의 다문화가정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국내외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향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아동 발달에의 논의에 초점을 두어 관련 연구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과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 다문화아동 발달 연구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와 주제에 대해 연구되어 왔지만, 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지 발달, 언어 발달, 또는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연구 등의 각 영역별 발달에 초점을 두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태도, 양육 실태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 절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발달 실태에 대한 연구들을 건강 및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건강 및 신체 발달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체계를 갖추고 수립되어가는 형성단계에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에 근거하고 사회학적, 여성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온 관계로, 다문화가족 및 아동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이며 소수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 아동의 건강 및 신체 발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결혼이주민 여성의 건강과 임신, 출산의 모자보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혜련, 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의료보장 이용에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의료보장의 혜택비율이 비다문화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승권 외, 2010). 한편 우리나라 「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은 국민 모두의 새로운 건강요구에 부응하려는 정책적 계획에서 마련된 것으로 그 중 다문화가족 대상 건강지원 정책을 중점 과제의 하나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상영 외, 2009).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출신국의 건강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이민 전후의 사회경제적 상태, 이민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대체로 이민자는 젊고 건강한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어 이민초기의 이주민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에 속하며, 우리나라 2009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주관적 건강평정이 매우 양호하게 응답된 바 있다(김혜련, 2010). 그러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즉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학력 및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향성을 가지므로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의료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이주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가족의 정책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결혼이민 여성의 건강과 임신·출산 등 모자보건에 초점을 둔 다문화가족의 건강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아동의 건강과 신체 발달은 모의 임신기 산전관리 및 출산과정과 부모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모의 산전관리를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의 신체 발달을 함께 살펴보았다.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결혼이민여성이 결혼 후 첫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6개월로 매우 짧아 한국생활 정책과 함께 가장 크게 직면하는 문제가 결혼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련 외, 2008), 결혼이민여성은 결혼과 함께 한국에 이주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언어 및 국내환경에 대한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며, 결혼과 함께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까지 가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수의 결혼이민여성은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연령이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경우가 많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와 교육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들을 위한 임신 출산 시 건강관리, 출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전관리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건강 관련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장인순 외, 2010).

임신기의 건강은 출생아의 건강은 물론 성장 후 성인기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산전관리는 임신의 진행과정에서 검사와 진찰을 통하여 고위험 임신 및 임신 합병증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임산부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임신, 안전한 분만 및 산육에 관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장인순 외(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이 산전관리를 받은 경우는 91.7%로, 이는 2009년 전국 출산력 조사(김승권 외, 2009)의 우리나라 여성 평균 산전관리율 100.0%와 과거 농촌지역 산전 수진율인 97.3%(김장락 외, 1993) 보다 낮지만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에 해당하는 비수진층, 즉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산전·산후 관리와 신생아 돌봄 양육기술의 부족으로 산모의 건강 뿐 아니라 어린 자녀의 건강한 발육을 저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임신 및 출산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44세 미만, 체류기간 5년 미만 여성 중 40.5%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읍면 거주 여성,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체류기간이 짧고 월가구소득수준이 낮은 여성들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고 대답하여, 입국과 함께 결혼,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하는 다문화 모의 건강지원 서비스에의 요구도가 높은 대상과 취약계층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산전관리 외 질병관리 부분을 살펴보면,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23.0%로 다문화가족의 5분의 1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내이주자코호트사업(2008-2010년)' 결과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은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과 비교하여 빈혈 유병율과 기생충 감염율이 높고, B형간염 보균율, B형간염 항체 양성율이 낮아 이주여성 자신의 건강은 물론 모자 수직감염예방을 위해 간염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건강문제는 임신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결혼 이민자의 11.3%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어떠한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김혜련 외, 2008). 그동안 여성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문제 발생 시 보건의료이용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양숙자 외, 2009).

이주여성들은 출산 후에도 산후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산모와 태아가 중증의 질병이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유방법이나 육아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심각한 양육방식 및 양육과정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Murray & McKinney, 2006; 정금희 외, 2009 재인용). 신순식(2010)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많은 이주여성들도 자녀의 건강증진에 관심이 높지만, 정보부족 및 주변의 도움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영양 및 안전 영역에서 실천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2004-2009년에 진행된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10)의 이주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 소아청소년의 전체적인 건강, 발육 및 영양 상태는 국내 비이주 소아청소년보다 나빠서 고혈압, B형간염을 앓고 있는 아동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치아건강이 열악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다문화가족의 부모의 취약한 의료건강 환경과 다문화아동의 건강 및 신체발달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주민이나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건강보험혜택이나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아동의 건강을 손상하고 위협하는 고위험 요인은 아동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혹은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경로를 갖는다.

나. 언어발달

어휘는 말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로, 어휘의 습득 및 어휘 능력은 타인의 말을 이해하거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루는 기초 능력이다. 어휘의 습득과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는데(Bates et al, 1995), 이는 입력된 말의 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입력된 어휘의 다양성과 질,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의 정도, 함께 제시되는 문맥의 정보성과 같은 외부적 요인(Hoff & Naigles, 2002, Weizman & Snow, 2001),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음운 기억력, 그리고 성별과 같은 아동 내적 요인(Carpenter et al., 1998, Gathercole et al., 1999)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영태 외, 2009 재인용). 구체적으로 책 읽기, 동화구연 등과 같은 문해활동에의 참여, 아동수준에 맞는 단어의 제공, 음운 인식 경험의 제공 등이 아동의 언어발달과 어휘력 형성에 필요하다(Bus, van IJzendoorn, & Pellegrini, 1995).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는 인지발달이나 사회·정서 발달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그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연구는 다문화 가족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언어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지연을 보고하는 연구가 많다. 농촌지역 다문화아동의 언어능력을 일반아동과 비교한 결과(황상심, 2008), 농촌지역 다문화아동의 언어의 표현, 이해 등에서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언어발달지체 및 언어발달장애가 조사사례의 약30%에 해당되었다. 또 다른 연구(오소정·김영태·김영란, 2009)에서는 언어검사도구에 따라 만3-6세 조사대상 유아의 20% 또는 선별검사의 경우 70%까지 언어발달 지체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외연구의 경우에도 다문화 및 경제적으로 곤궁한 취약계층 아동의 언어능력과 인지적 성장이 자원이 풍족한 환경의 아동에 비해 낮게 보고되었고, 취약계층 아동내 발달수준의 편차 또한 큼을 지적하고 있다(Pan, Rowe, Singer, & Snow, 2005).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아동과의 편차가 더욱 심해지는데, 3세에는 아동의 생활연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4세부터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며 이러한 경향이 5세에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고하는 연구가 있다(정순연, 2008; 현정환, 2010; 황상심, 2009). 김희수·이은경(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연령별 언어발달의 추이가 일반 아동과 유사했으나 발달의 속도가 느리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문제는 어휘뿐만 아니라 구문이해력이나 읽기에서도 나타나서 3세에서 6세 사이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비다문화 가정의 일반 아동들보다 구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졌다(이해영, 2007; 정은주, 2009).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은 어머니들(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해되어 왔다(오성배, 2005; 정순연, 2008; 황상심, 2008).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도 어머니의 언어능력과 자녀의 언어능력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우현경 외, 2009; 정순연, 2008).

한편, 다문화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발달 차이를 좁혀 정상적인 발달 경로를 갖는다는 연구결과(이민경·김경근, 2009; 정은희, 2004; 조수진·윤희원·진대연, 2008)도 있다. 박주희·남지숙(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다문화아동과 일반 아동의 언어 문제 해결력 점수를 비교한 결과, 5-6세 보다 9-10세에서 집단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8)는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중도입국 경험을 가진 아동의 경우에도 체류가 장기화

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국어발달과 습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언어발달의 양상과 경로가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인지발달

언어 능력과 인지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Vygotsky, 1986).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 발달은 비다문화아동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맥락내에서 이루어지며 앞서 논의한 어휘력, 즉 언어 능력이 기초가 되어 인지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가정이 다중적·복합적 취약요인을 갖는다고 보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능 및 인지 능력과 같은 개인적인 특질은 아동 개인이 사회적 자극과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잘 적응하게 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하다고 보고한다(Kumpfer, 1999; Shonkoff & Phillips, 2000). Egeland와 동료들(1993)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였던 아동은 언어 능력과 지능이 높았다. 인지적 능력을 대표하는 지능은 개인이 처한 환경의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며 주어진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통해 대처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는,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을 연관지어 보고한 결과들이 많은데, 대체로 비다문화 일반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언어 및 인지 발달이 늦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언어발달 지연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는데, 대체로 다문화가족의 유아들이 기본적인 말하기, 듣기 능력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읽기와 쓰기 능력이 떨어져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연경, 2008; 조영달, 2006). 다문화가족의 유아는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음이 지적된다. 그리고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교육에의 관심과 열의가 있어도 언어능력의 부족과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모선희, 2008). 이러한 언어 발달의 지체가 한국 표준화 집단에 비해 지식 습득에 있어 낮은 인지적 수준을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류현주 외, 2008). 대체로 취학전 영유아기에는 모와의 언어적 학습의 부족과 어려움이 문제로 드러나지 않다가, 자녀가 취학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과제를 수행하고 학습이해력이 요구되게 됨에 따라 다

문화아동의 학습부진이 드러나기도 한다(이영주, 2007). 다문화아동의 인지적 결과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외에 환경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구효진·최진선(2007) 연구에서 K-ABC 척도 중 비언어적 인지처리과정인 문제해결 영역에서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들과 한국 표준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특정 사실에 대한 지식 즉 후천적 습득도 영역에서는 한국 표준화 집단에 비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비다문화 일반 유아들의 전형적인 인지 발달과는 다른 인지발달 경로를 보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은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에 비해 그들이 후천적으로 습득하고 학습해야하는 언어적 개념과 일반 지식의 수준에서 취약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에 비해, 환경적 맥락으로 인한 지식의 습득 내용과 주의력과 집중력, 또는 계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아동의 언어 발달과 인지발달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으며(류현주 외, 2008; 조영달, 2006),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한국 표준화 집단에 비해 사실에 대한 지식 습득에 있어 낮은 인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구효진·최진선, 2007)는 점이다. 또 다른 논의는 다문화아동의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나 언어 또는 인지능력에는 큰 문제나 차이가 없으나,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 등 구체적인 언어 활용 능력이 일반 유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후 학교교육 또는 학업성취도 차원에서 예방과 중재를 실시해야 한다(김갑성, 2008; 오성배, 2005; 홍영숙, 2007)는 견해이다.

소수의 다문화아동과 다수의 일반 아동간의 인지적 성취도 차이가 유의미하며 이는 취학 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여 입학이후 학동기에 지속된다는 보고(Burchinal et al., in press; Reardon & Robinson, 2008)가 있는 반면,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체적 인지과정 및 발달수준에서 다문화아동과 일반 아동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방영신, 2010; 은선경, 2010; 현정환, 2010)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유의한 차이가 취학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정은희, 2004; 황혜신·황혜정, 2000; 우현경 외, 2009; 박주희·남지숙, 2010; 박민정, 2010). 이것이 우리나라 다문화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의 고유한 맥락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인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라. 사회정서 발달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첫째는 아동의 일반적인 심리적 적응을 통한 사회정서 발달을 살펴보는 것으로, 아동의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행동의 분석을 통해 우울, 공격성 등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두번째 경향은 이러한 심리적 적응이 육아 지원기관이나 학교 적응을 통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해 사회정서 발달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의 발현에 근거한 사회정서 발달을 살펴보면 다문화아동의 경우, 언어발달 지연과 의사사통에 제한을 받아 문화 부적응으로 이어져 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국내 보고들이 있다(설동훈 외, 2005; 오성배 2005; 이재분 외, 2009). 이러한 언어발달의 지연이 취학 후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며, 비동조성, 우울 및 공격적 사회성의 표출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구효진, 2009; 현정환, 2010). 즉, 취학전 언어발달의 취약성이 이후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 상태를 조사한 연구(오성배, 2005; 박경자·김송이, 2007; 전해정 외,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분노-공격적 행동특성과 불안-위축행동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신의 나이보다 어린 학년에 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어린 학생보다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축된 자아상으로 타인에게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적응상 어려움의 과정에서 학교나 주변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이나 놀림, 구타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고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은 이로 인해 아동기에 부정적인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다문화아동의 실제 학교생활 적응의 측면에서 사회정서 발달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성, 2008; 조영달, 2006).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영유아기 발달수준의 차이가 이후 학령기의 학교 생활 적응과 학업, 태도, 성격의 형성 등에 유의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의 적응과정을 조사한 연구들(김병순, 2007; 김희태·권영덕, 2007; 박미경, 2006)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과 잘 지내지 못해 혼자놀이를 하거나 언어적 표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김순규(2011)는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스트레스를 매개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충분한 교육지원, 차별의 경험과 또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다문화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우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일반가정 영유아간에 발달상의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문무경·조혜주, 2008).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논의하는데 있어 아동을 집단활동 상황에서 관찰할 기회를 많이 가진 교사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정하기에 보다 적절하다는 타당성 논의가 있다(LaFreniere & Dumas, 1996).

외국 연구의 경우, 비이민 가정 아동에 비해 이민자 가정의 1, 2 세대 아동은 언어·인지적으로는 떨어지나 사회정서적 기술과 행동은 더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다문화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박경자·김송이, 2007)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민자 가족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이민이 가진 강점이 다름을 시사한다(De Feyter, & Winsler, 2009).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을 조사한 최근의 또 다른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유아의 발달지연과 사회적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님을 밝힘으로써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김희태와 권영덕(2007)은 또래들의 지원적 파트너십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유아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가는지 관찰, 분석한 결과, 언어적 표현과 반응을 잘하지 못하던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보였고, 또래들은 다문화 아동을 사회적 놀이 파트너로 수용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가족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향상되었고 사회적 유능감도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친사회적 행동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 또래집단에 수용됨을 보였다. 다문화아동과 일반아

동간의 발달수준의 차이는 학령기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언어와 심리사회적 적응 모두에서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박주희·남지숙, 2010). 그러나 이는 다문화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이 고학년이 될수록 떨어진다는 이영주(2007)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국외 연구에서 교사평정을 통한 몬트리올 지역의 60개 유아원에서 선정된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608명 유아(남아 326명, 여아 282명)를 대상으로 사회적 유능성을 연구한 결과(LaFreniere 외, 1992), 사회경제적 요인은 -외현화된 행동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유능성 하위척도와 적절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아동의 내현적 행동 문제와 사회적 유능성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발견되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이 더 많은 적응 문제를 보였으며 사회적으로 덜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NICHD 종단자료를 통해 나타난 미국의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성장 곡선을 취학전 4.5세부터 초등 5학년까지 추적한 결과(Choi, 2008), 흑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성장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고, 점수면에서도 제일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히스패닉 아동의 다소 높은 사회적 유능의 성장 점수를 보여주었다. 세 집단 가운데 백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성장곡선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는 세 집단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한 결과로, 이들 가정의 소득 수준을 통제했을 때에는 세 집단 아동간 사회적 성장의 유의한 차이가 사라졌다. 이는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영향이 민족성 및 다문화이주민 가족의 특성과 엄밀히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일련의 다문화 논점(Johnson, 2000)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아동 발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연구는 소수민족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이들 아동의品行 및 행동장애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아동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취약할수록 차별이나 열악한 환경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많이 받음을 보고하였다(Brody et al., 2006). 이는 취약환경내의 인종·민족적 차별이 아동의 성장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누적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2. 다문화가족의 양육 및 가족환경 연구

가. 다문화가족의 양육 및 보육·교육 이용 연구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자녀 양육과 아동의 교육 실태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일부 특정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김갑성, 2008; 설동훈 외, 2005; 오성배, 2005) 결과, 가정내 자녀양육은 대부분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 보육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혈연에 의한 돌봄, 특히 동거 조부모의 양육지원(19.5%)이 일반가정(7.2%)에 비해 높아 다문화 가정의 조부모 양육지원이 중요한 자원이며, 시댁식구와 이웃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일반가정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반면, 특기보습 및 문화센터, 방문 학습지 등의 사설기관과 사교육 이용율이 일반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최윤경, 2010). 3세대 가족의 동거 및 양육지원, 다문화가족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농촌지역 거주 등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맥락에서 미취학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비율이 일반가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거주 중국동포 영유아 자녀에 국한하여 살펴본 경우에도, 조사대상아동 129명의 60%가 취학전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서문희 외, 2010). 그러나, 이는 2010년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이 실시되기 이전의 결과로, 향후 다른 양상의 기관이용과 아동의 성장발달이 그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이민자가족 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을 ECLS-K(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소수민족과 이민자 가정아동의 취학전 육아지원기관 경험이 더 적었다. 민족성(ethnicity)과 인종에 따라 기관 선택 및 사용의 중요지표들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기관경험과 아동 행동과의 관계도 민족성과 인종, 가족의 이민 상태 및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기관 선호 유형이 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적 특징에 주목하여 기관선택을 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관계적 특징에 더 가치를 둔다는 연구보고가 있다(Johansen, Leibowitz, & Waite, 1996). 대체로 이민자 가족 아동의 취학전 영

유아기 기관서비스 이용과 아동의 행동발달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adey, & Brewster, 2007; Turney, & Kao, 2009). 이러한 결과는 생애발달 관점에서 다문화 아동의 취학전 영유아기 양육 및 보육·교육 경험이 학동기 학교 적응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함을 시사한다(NICHHD-ECCRN, 2001, 2004). 국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이 보육 및 교육기관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김영옥·임진숙·정상녀, 2008), 우리나라에서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이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지표이며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문화가족의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 조사 결과 한국 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양육과 교육이며, 특히 자녀 교육에서 한국어 및 학교 공부 지도, 사교육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성, 2008). 또한 양육비 지출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어려움의 지적이 많았다(서문희 외, 2010). 자녀가 초등학생일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문제의 종류도 다양했다. 사교육비, 숙제 돌보기와 성적 등 주로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정기선 외, 2007).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교육 및 양육과정에서의 비계설정 등 구체적인 자녀 학습지원 행동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방영신, 2010).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 어머니들의 어려움이 자신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 의애로 사항, 그리고 경제적 취약성과 연관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은 가족구성원들과 양육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미경 외, 2008). 이주 여성들의 문화적응 정도와 결혼만족도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쳐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매개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결혼만족도와 문화적 적응도가 높다면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긍정적 양육행동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의 환경 특성이 양호할수록, 부모-자녀의 관계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다문화아동의 문제행동이 적어지는 등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이덕희,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개인 변인 중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

신의 모국어보다는 한국어를 많이 사용할 때 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라고 조사되었다(김영옥·임진숙·정상녀, 2008; 정기선 외, 2007).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언어사용에 대한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만 4-6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31쌍 대상의 연구(곽금주, 2008)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질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이는 빈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그러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울하며 양육 스트레스가 많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모-자 상호작용을 통해 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일반 가정에 비해 수동적이며 무관심한 경향을 보였으며 적절한 지도와 자극을 덜 제공하고 강압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무슬림 이민자 가정의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행동문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자 관계가 모 스트레스와 아동의 대처양식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문제행동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민자가족 모-자녀 관계가 아동기 이후 사춘기 적응까지 지속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Aroian 외, 2009).

나. 다문화 가족환경 연구

많은 연구를 통해 가정환경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아동초기의 질적인 가정환경자극은 아동의 지적능력, 언어발달,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조성연, 2002; Bradley et al., 2001; Brooks-Gunn, Klebanov & Duncan, 1996).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환경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변인으로 모-자녀간 상호작용,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생애초기 아동의 학습기회의 부족을 낳아 이후 인지적 성취와 언어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McLoyd, 1998; Rescorla & Alley, 2001), 아동의 언어습득 및 발달에 중요한 가정환경 요인 중 특히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의하다(정은희, 2004).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과 어휘의 양, 지시하기, 질문하기 등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가 사용한 발화의 길이와 단어의 수가 자녀의 어휘 습득에 영향을 미쳐 자녀와 어머니의 언어사용 유사성이 증가한다(Heike, 2006). Lanza(2001)는 2세 영어-노르웨이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을 관찰한 연

구에서 이중언어 아동들이 단일언어 또는 이중언어 사용을 촉진하는 부모의 담화전략에 민감하여, 이중언어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이중언어 발달이 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취학 전 영유아기부터 가정환경에서의 언어적, 지적 자극의 차이가 언어발달에 영향을 시사한다.

방영신(2010)의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동주의(joint attention)능력과 어휘발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유아 26명, 일반가정 유아 50명을 대상으로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모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의 공동주의능력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어휘능력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가정 어머니들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양육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비계설정, 지원 행동을 더 많이 함을 지적하였다. 다문화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유치원 적응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김현자, 2010), 어머니의 연령이 20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상, 아버지 연령이 30대, 월평균 가구소득 201만 원 이상인 유아, 부모의 결혼 기간이 긴 부모를 가진 유아의 교육활동 수행과 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논의하는데 어머니의 개인적, 관계적 특성 요인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임신기에서부터 각종 환경 위험인자와 어려움에의 노출빈도를 높이며(예: 납중독 비율), 만성적인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가운데 부모의 양육방식이 거칠고 비일관된 경향을 띠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의 접근이 어려워 가정에서의 학습지원활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일련의 중첩된 과정을 보인다(McLoyd, 1998). 또한 소수민족 및 다문화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 분리, 억압된 가치는 아동의 발달경로가 대다수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성장과 구분되는 왜곡과 부적 영향을 가져오므로, 다수의 비다문화 아동 발달과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다문화 아동 연구는 바람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Garcia Coll et al., 1996; Johnson, 2000; Johnson et al., 2003). 또한 다문화가족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여도 다문화가족 고유의 특성(예: 확대가족 지원체계)이 아동의 발달과 역량의 강화를 낳는 긍정적인 경로로 기능함을 제시하였다.

3. 요약 및 시사점

다문화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언어발달의 지연에 대한 보고가 많으며, 그 원인이 되는 선행요인이 모의 언어능력과 양육행동의 부족, 취약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우울과 스트레스, 이로 인한 적절한 환경 자극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보고한다. 언어발달은 일반적인 인지능력과도 연관되어 있어 언어발달이 지연된 다문화아동의 경우, 이후 학업성취도와 인지발달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아동의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후의 아동의 발달경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특히 다문화아동의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능력이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또래의 지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발달과 의사소통능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 언어와 인지발달이 취약한 경우에도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부적인 사회정서발달로의 경로에 중재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다문화아동의 언어적 취약성이 이후의 발달경로에 반드시 부적인 패턴으로 연관되지 않는 다양한 환경적 중재와 완충의 기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취약성은 다문화가족으로서의 특성 보다는 가구소득이 적은 등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결과로,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어려움이 통제되면 다문화가족과 아동의 취약함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 또한 다문화 연구에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다문화가족으로서의 보편적 어려움은 가족 내 양육지원과 참여, 부부관계, 의사소통 등 다문화가족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해당 가족의 적응과 생활상에 다양한 변이와 차이를 가져온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과 영유아발달특성을 논의할 때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의한 보편적 어려움과 다문화가족으로서의 문화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Ⅲ.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과 관련 제도 및 발달 지원 정책

1.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

본 절에서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른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가정 포함) 규모와 영유아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 다문화가족 현황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자녀는 모두 126만 5,00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1,139,283명) 대비 11% 증가한 수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잠시 주춤하다가 경기회복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Ⅲ-1-1〉 2010~2011년 외국인 주민 규모

단위: 명

구 분	2010년	2011년	
계	1,139,283	1,265,006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 근로자	558,538	552,946
	결혼이민자	125,087	141,654
	유학생	80,646	86,947
	재외동포	50,251	83,825
	기타 외국인	106,365	137,370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귀화자	56,584	69,804
	기타 국적취득자	39,877	41,306
외국계주민자녀	외국인부모	6,971	9,621
	외국인-한국인부모	98,531	126,317
	한국인부모	16,433	15,216

자료: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1,002,742명(79.3%),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111,110명(8.8%), 외국인 주민 자녀 151,154명(11.9%)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가 43.7%(552,946명)를 차지하지만, 2010년 558,538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2011년 141,654명(11.2%),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는 123,093명으로 2010년 대비 결혼이민자는 13.2%, 혼인 귀화자는 12.7% 증가하였다.

나.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문화가족 영유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계 주민 자녀는 총 151,154명으로 2008년 58,700명, 2009년 107,689명, 2010년 121,93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국계 주민 자녀 가운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자녀는 126,317명, 부모 모두 외국인인 자녀는 9,621명, 부모 모두 한국인²⁾인 자녀는 15,217명으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자녀가 외국계 주민 자녀 중 약 90%를 차지한다.

〈표 III-1-2〉 2011년 외국계 주민 자녀 규모

단위: 명

전체	외국인 부 또는 모								한국인 부모		
	소계	외국인-한국인 부모			외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51,154	135,938	126,317	64,275	62,042	9,621	4,789	4,832	15,216	7,921	7,295	

자료: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외국계 주민 자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세가 16,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만 2세 16,607명, 만 0세 16,428명, 만 3세 15,584명, 만4세 10,775명, 만 5세 8,844명, 만7세 6,710명 순이다. 만 0~18세 중 만6세 이하의 영유아(미취학 아동)가 61.9%, 초등학생(만 7세이상~12세 이하)이 24.9%로 영유아의 비중이 높

2) 외국인주민 자녀는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를 의미함. 외국인주민 자녀 중 '한국인 부모'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를 말함.

다. 이를 부 또는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비한국계 중국이 34,852명(23.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베트남 34,256명(22.7%), 한국계 중국 33,186명(22.0%), 일본 14,510명(9.5%), 필리핀 13,937명(9.2%) 순으로 많았다.

〈표 III-1-3〉 2011년 연령/부모출신국별 외국계 주민 자녀 규모

단위: 명

구분	전체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만7세	만8세	만9세	만10세	만11세	만12세	만13~18세
합계	151,154	16,428	17,304	16,607	15,584	10,775	8,844	7,995	6,710	6,393	6,397	6,383	5,995	5,712	296,849
중국	34,852	3,452	3,630	3,381	3,320	2,449	2,238	1,948	1,505	1,539	1,308	1,483	1,522	1,487	5,590
중국(한국계중국)	33,186	2,080	2,235	2,424	2,820	2,243	2,113	2,131	1,901	1,830	1,718	1,977	1,929	1,936	5,849
대만	1,191	53	63	64	79	69	50	55	47	77	83	92	65	89	305
일본	14,510	725	738	713	792	711	723	809	878	1,008	1,157	1,189	1,158	982	2,927
몽골	2,250	261	309	301	275	200	184	122	84	73	56	56	44	38	247
베트남	34,256	6,231	6,717	6,129	5,673	2,825	1,513	909	436	264	303	359	368	353	2,176
필리핀	13,937	1,416	1,481	1,296	1,133	1,091	1,003	1,046	997	945	1,151	684	402	339	953
태국	2,082	145	171	185	169	157	168	186	186	129	146	63	68	56	253
인도네시아	576	42	57	44	51	50	52	53	38	27	26	23	28	17	68
캄보디아	3,565	926	770	1,002	267	87	55	21	24	26	25	39	36	38	249
미얀마	124	12	10	16	13	11	5	7	8	5	4	9	4	4	16
말레이시아	105	7	11	9	9	6	5	8	7	7	6	5	4	4	17
남부아	1,783	179	154	164	141	133	102	104	79	81	85	80	66	59	356
중앙아	2,414	292	301	281	264	220	208	202	154	94	65	53	44	39	197
미국	1,207	154	156	123	126	97	74	66	69	47	40	49	30	38	138
러시아	1,090	69	88	93	111	109	100	99	88	56	36	32	22	25	162
기타	3,697	353	78	353	313	286	226	208	187	166	173	178	195	195	486

자료: 행정안전부(2011). 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제도 및 발달 지원 정책

가.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제도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개선 및 차별방지, 인권보호를 명시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교육, 보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보육 및 교육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다문화가족 관련 법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 등의 처우개선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결혼이민자 역시 재한 외국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법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만을 ‘재한외국인’이라고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서 미등록 이주민이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제10조에는 재한 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한국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결혼이민자를 재한외국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결혼이민자를 일시 체류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지적되고 있다.

〈표 III-2-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중 다문화가족·외국인 가정 영유아 관련 내용

1. 제 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 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7.23>
- ② 제 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과 법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은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4월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범위가 ‘귀화 허가를 받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으로 확대되었다.

총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제5조),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제6조),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이 평등하게 보육 및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과 언어발달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제10조).

〈표 III-2-2〉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내용

1. 제2조(정의) <개정 2011.4.4>

①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 3조 및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표 III-2-2 계속)

-
- ②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2.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4.4>
3.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4.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4.4>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4.4>
4.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개정 2011.4.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4.4>
-

(표 III-2-2 계속)

<p>3. 제10조(아동 보육·교육)</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2)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법

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법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항은 제26조, 제28조, 제35조로, 2011년 6월 제26조와 제28조 일부가 개정되었고,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에 관한 조항이 전면 개정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26조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보육의 우선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28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정한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올해 전면 개정된 제35조 1항은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소득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1.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9, 2011.6.7>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 제 28조(보육의 우선제공)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2011.6.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3. 제 35조(무상보육의 특례)

-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1.6.7>
-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나)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에는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보호자 자녀 및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외국국적을 가진 중도입국 아동이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2011년 6월 7일 일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중도입국 아동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입학절차를 완화하고 있다.

〈표 III-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정 아동 관련 내용

1. 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나.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본 절에서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사업과 민간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중 영유아의 발달영역별 지원 정책을 알아보았다.

1)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가)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정부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및 외국인 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용을 위해 소관 부처별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08년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4월 「2010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마련하였다.

〈표 III-2-5〉 제1차 외국인 기본 계획

정책 목표	중점 과제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도입 -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질 높은 사회통합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국가안보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 정보 관리 -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외국인 인권옹호	-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 보호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 선진적 난민인정, 지원시스템 구축

자료: 법무부(2008).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이는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외국인 정

책에 관한 5년 단위 국가계획(2008년~2012년)으로 4대 목표와 13대 중점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4대 목표 중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정 영유아에 해당되는 목표로는 질 높은 사회통합과 외국인 인권 옹호가 있고, 중점 과제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보호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이 있다.

정부는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08~’12년)」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시행계획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강화,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2011년 다문화 관련 사업은 총 166개로 예산은 1,747억 원이다. 이는 2010년(173개 사업, 예산 1,110억 원)에 비하면 사업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예산은 약 57.4% 증가하였다. 한편, 지방정부의 2011년 다문화 관련 예산은 1,534억원으로 2010년 1,818억 원에 비해 15.6% 감소하였다.

〈표 III-2-6〉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목표	담당부처	사업내용	사업수/ 예산
적극적인 개방	교육과학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 해외 유수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확대 	43개/ 456.32억원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이민제도 개선 •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 도입 • 전문인력에 대한 온라인 비자 발급 확대 (Hunet Korea)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 •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 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 (불법체류율 반영) • 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 여건 강화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 전문인력 발굴·도입 비용 지원 	

(표 III-2-6 계속)

질 높은 사회통합	교육과학기술 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 지원 •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전 유아대상 희망교육사 증원 	79개/ 1061.52억 원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농림수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 •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질서있는 이민행정	교육과학기술 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유학생 관리 체계 강화 	28개/ 147.08억원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 국적 취득 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 고용주 처벌강화 •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조사 강화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표 III-2-6 계속)

외국인 인권옹호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 •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 사무소 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 • 지원시스템 구축 	16개/ 81.75억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 여성 보호·지원 	

자료: 법무부(2008).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2008-2012).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1 중앙부처 시행계획」 중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정 영유아를 위한 사업은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에 속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 지원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취학 전 유아 대상의 희망교육사를 늘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거나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 및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2008년 6월에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해 9월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2009년, 정부는 외국인 지원정책이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 낭비를 막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구성, 2010년에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2012)」을 확정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국무총리실, 2010). 정책과제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은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 중점과제로는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지원 사업 확대,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교부적응 자녀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을 제

시 하였는데, 2011년에는 국제결혼 건전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 중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한 주요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한국어·학습 지도 및 교사·대학생 등을 활용한 학생멘토링 사업과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맞춤형 양육·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지도 등 기초능력 증진을 지원하고, 생애주기(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좋은부모 교육' 실시, '자녀 정서·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센터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한 취약 자녀의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학교생활 적응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I-2-7〉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중점과제

영역	중점과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기반 확충
국제결혼 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강화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제공확대 -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강화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 결혼이민자 생활적응지원및 사회보장 확대 -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 학교부적응 자녀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다문화 관계자(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확대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표 III-2-8>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1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사업수/ 예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주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근거 등 마련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실무추진단' 구성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와 함께 결혼이민자수, 사업량 등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등으로 내실화 도모 - 지역단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계획'수립·종합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및 조례제정 노력 등을 지자체 평가에 도입 -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 	9개/ 125.78억 원
국제결혼 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및 주요 결혼상대국과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업체 자본금 요건 신설, 업체 등록현황, 영업정지 등 처분내역에 대한 '정보공시' 등 도입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정 노력 유도 -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 주요 결혼상대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한 국대사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증발급 등에 대한 검증 강화 및 입국전 사전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의 진정성 여부, 혼인경력·건강상태·경제적 부양능력·범죄경력 등의 사증발급 심사기준 마련 -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입국 전 사전교육 확대·내실화 	7개/ 162억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간 연계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 대폭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이수 시에도 귀화심사 등에 혜택 부여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강좌 개발·보급 - 방문·온라인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 다각화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고용촉진지원금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일자리에 취약계층 30% 이상 참여 의무화 제도를 활용, 다수의 결혼이민자 참여 유도 - 의료분야 전문인력을 진료코디네이터로 양성 	20개/ 657.41억 원

(표 III-2-8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정보제공, 상담 및 생활적응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정보제공과 상담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1577-5432)' 개설 - 가족갈등·해체 예방을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 시범 제공 및 포털 '다누리' 다국어지원 확대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확대 및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등본에 기존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이 연계되도록 개선 - 국가기술자격 외국어시험 실시,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 등 생활편의 지원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보호·지원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비스 확대 -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한 주거·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부부교육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 국제결혼 남성·부부 대상 다문화사회 이해, 가정폭력 예방 등 교육 운영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활성화(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모니터링단' 운영 등 결혼이민자의 정책·사회참여 확대 	
<p>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거점학교 지정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한국어·학습 지도 및 교·사 대상 등을 활용한 학생멘토링 실시 -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및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유치원 및 초등학교사 120명) 운영 - 우수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부모출신국과의 핵심 교류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릿지' 추진(해당국 자원 봉사, 국제교류, 글로벌 리더십 교육 등) •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양육·교육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지도 등 기초능력 증진 지원 - 생애주기(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좋은부모 교육' 실시 및 '자녀 정서·생활지원 서비스' 시범제공 - 센터의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취약 자녀의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학교생활 적응 지도 	<p>12개/ 348.03억 원</p>

(표 III-2-8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중도입국 및 학교 부적응 자녀 등 지원 인프라 확충 - 다문화청소년 지역센터 등을 통해 상담, 학습지원, 모국 정체감 프로그램, 맞춤형 사례관리 등 제공 - 외국에서 출생·성장한 동반·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확대 - 학교부적응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인 국제다솜학교 설립 지원 	
<p>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이해 증진을 교육 등 지원 사업 활성화 - 일반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등 확대 - 공무원, 기관·단체 실무자 등 정책 관계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및 대상별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 우리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조사 -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학의 다문화 강좌 개설 확대, 교원, 대학 담당자 등 대상 다문화 인식 개선 연수 실시 • 다문화가족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및 매체 홍보 확대 - 지역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구성·운영 - NGO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 및 세계인의 날 등 기념 행사 추진 등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추진 - 공중파 TV, 지하철, SNS 등 다양한 매체광고 확대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확산 	<p>9개/ 95.70억원</p>

자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안).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가) 중앙정부의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2000년 중반부터 여러 부처별로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다양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 부처별 다문화 관련 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정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I-2-9〉 2011년도 부처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현황

부처	사업 내용	예산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³⁾ 자녀 교육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 근로장학금 지원 • 다문화가정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 	63억원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 사회통합이수제 	47억원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격려 • 다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자 교육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지원 •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 	13억원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 양성 •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교재 개발 • 다문화 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체험 전시 • 다문화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 • 다문화가족 생활체육지원 •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 조성 	59억원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교육 	11억원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111억원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진로설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 	-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제공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실 •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 결혼이민자 현지사건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 - 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 운영 • 다문화가족 대국민 인식개선 • 동반·중도 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886억원

자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 시행계획(안).

- 3)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다문화가족'의 의미가 실제 학교 현장과는 맞지 않아, 보다 넓은 의미의 '다문화가정' 개념이 필요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정책 대상에 근거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1) 시·도청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청과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문화 지원 정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기능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담인력도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지역별 행정서비스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1년 7월, 지자체에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

시·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지원사업은 <표 III-2-10>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16개 시·도청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자녀교육 및 학습 지원과 상담 및 정서지원 관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2-10> 시·도청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내용

시·도	주요 사업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향상을 통한 자녀발달지원프로그램 “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유아 다문화가정 정체성 향상사업 “원앤원(圓 & One)” ·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학교 [다문화어울림 뮤지컬 스킨] -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이 직접 만드는 다문화축제 ‘무지개콘서트’ ·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사업 ‘다문화 다함께’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여행 [유엔아이 한국소풍]

여 국제결혼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함.

(표 III-2-10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이 있는 선비문화 체험 · 다문화가족 자녀 창의력 개발을 위한 2011 다가서 자! Hope Kids(다문화가족 in, 서울, 자) ·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독서교육을 통한 모자관계 증진 및 자녀의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생활안내서 발간 •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구축(mcfamily.or.kr) • 「무지개포럼단」 운영 • 다문화가정 e-배움 사이버교육 실시(e-camp.kdu.edu) • 맞춤형 사회통합지원사업 실시[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자녀대상 문화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 - 한국어 특별반(고급반, 취업반): 3반 운영 - 다문화가족 '정신건강 클리닉' 운영 • 2011 다문화가정 자녀 울릉도, 독도탐험 실시 [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300명 감염성 질환 무료검진, 명절음식 만들기 체험, 안보 탐방 행사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자녀 및 가족 교육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자녀의 학습 및 정서지원: 학습지원, 문화 체험 등 - 생활코디 교육 프로그램 : 운전면허교육, E-배움 캠페인 등 - 일터 찾기 프로그램 적극 운영: 직업교육 및 취·창업 지원 - 전문 직종 개발·양성,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원어민 강사, 통·번역사 등 -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및 상담지원 • 다문화 공감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공감 문화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 「모국어 도서」 도서관 확대 시행: 공공도서관 15개소 • 다문화 행사 개최[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요리축제: 각 나라의 요리를 통해 문화체험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2세 교육·학습 협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모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교육 - 멘타·멘토형성(1:1)/주1회 2~3시간 학습지도 및 생활적응 교육 등 • 대구 다문화가족 사회봉사단 운영 • 다문화가족 리더스쿨 운영 • 다문화가정 책보내기 운동

(표 III-2-10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신문 '무지개 세상' 발행 • 다문화가정자녀 농촌문화체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예절교육, 농촌체험활동, 역사탐방 등 • 2011 컬러풀대구 다문화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통문화, 다양한 체험행사 진행 • 다문화가정 문화학교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과 글의 이해와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습 및 교과 지도, 특기·적성 지도, 상담활동 등 •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교육 및 컴퓨터 교실 운영, 한글교육 등 다문화교육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행사지원 • 다문화가족 아동 Total-Care 서비스(만4세~초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서비스 (주1회) - 다문화가정 청년 멘토 서비스(격주1회) - 다문화가정 체험지도 서비스(유아 1회, 초등학생 2회) - 초기면담, 심리분석, 사후평가 각 1회 • 다문화가족 e-배움 캠페인 (http://ecamp.kdu.ed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무료 제공 • 인천 다문화신문(dasarang) 발간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 안정적 생활정착과 인권보호 -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여행바우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탐방 • 다문화 엄마를 위한 "행복한 책읽기" 독서 프로그램 실시[한밭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읽기, 동화책 속 캐릭터 그려보기, 책 읽고 느낌 나누기 등 - 다양한 독후활동, 동화구연 방법 배우기 등 • 다문화가정 가족복지 만두레 프로그램 'love together' 추진 • 다문화가족 무료진료 페스티벌 실시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 '한국생활가이드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및 출산, 자녀교육 관련 내용 포함 • 국적별 '페밀리데이' 개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별, 요일별 (중국데이, 베트남데이, 몽골데이, 필리핀데이) 실시 - 전통 문화 나눔 진행

(표 III-2-10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여행바우처 투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탐방 • 다문화가족 모국어 책 대출 사업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일반가정과 동등한 기초학력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방문학습지 제공(만4세 ~초등 저학년) - 조기 언어진단 및 치료: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진단 및 교육(언어지도자 26명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미래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영재 교실 확대(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대회 개최 -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문화 체험 제공: DMZ 체험여행 •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및 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센터(6개소)상담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 진행 •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인식개선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다문화 한마당 행사 개최: 다문화인 “끼” 경연대회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 운영- 내국인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 31개 시·군, 155회, 6,500명-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전개 -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책자 다국어판 확대 제작 • 다문화 e-배움터 운영(rainbow.homelearn.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강의 • 다문화가족 <가나다>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의사소통 교육, 가족 사랑식 등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적응, 건강한 가족 공동체의 형성 및 다문화가족 간 친목도모 • 다문화아동 ‘모두 도서관’ 개관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임신·출산지도 서비스 • 다문화가정 나눔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의료나눔 실크로드 진행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어린이 운동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하모니 태권도 교육 • 다문화가족 무료건강검진 실시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정 도서실 운영

(표 III-2-10 계속)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 육성[고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언어영재교실 운영(베트남 언어) •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 체험마당, 놀이마당, 나눔마당, 어울림마당 등 - 다문화가족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 도모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행복행사 개최 - 다문화가족 정책 비전 - 재능과 끼 발휘 - 전통문화 전시 및 전통놀이 체험 • 부부존중 기술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육실시 - 생각통통! 언어통통! 똑똑한 자녀, 건강한 자녀 만들기 교육 - 일상 생활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 영유아 응급 처치법 교육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전국최초 다문화가정자녀 오케스트라 창단: 부산 사하경찰서 - 다문화가정 자녀 선도 사업 (주1회 레슨) - 악기무료제공, 악기레슨 지원,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 다문화가족 요리교육 실시 - '요리'를 매개로 다문화 부모-자녀 간의 관계향상 교육 진행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정 온라인 교육 - 문화, 언어, 역사 등의 콘텐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무료 운영 - 취약 가족의 건강 증진 도모

(2) 시도 교육청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사업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표 III-2-11>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이해교육이며, 다음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다문화교육 기반 사업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표 III-2-11〉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내용

시도	사업내용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교육 및 캠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 친구, 부모, 이중언어 강사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어울마당 개최 - 한국문화체험캠프, 어울림 캠프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및 방과후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반 확대 운영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 이중언어 강사 배치 운영 • 다문화가정 첫 정규 대안학교 설립 추진 • 다문화가정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행사 개최 • 다문화가정 대상 '다문화 유소년 멘토리아구단' 창단 (양준혁야구재단)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 어울림 한마당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멘토링, 가정방문 1:1 학습지도 및 생활 상담 지원 • 장학생 캠프 개최(국민행복재단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장학생 선발, 교육 지원 • 다문화자녀 대학생 멘토와 농촌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방문 학습지도 및 생활 상담 지원 - 농촌문화체험 실시 • 다문화가정 자녀 개인차고려 맞춤형 개별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 '2학급' 설치 및 운영 예정 •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하나로 캠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학습지도 외 월 1회 멘토와 토요일문화체험, 문화체험 캠프 실시 - 멘토와 멘티간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 멘티의 성장 지원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연구 및 거점학교, 다문화캠프 운영 - 다문화교육 장학자료집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다문화 유관기관 협의체 조직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 온라인 멘토링 실시: 초3~6학년 다문화가정 - 찾아가는 한국어 방문교사제 운영 - 다문화교육 이중언어강사 배치 및 활용 • 다문화가정 학생 '행복한 동행'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수확체험, 시티투어, 문화체험 활동 지원 • 이중언어 캠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 교육과 부모나라에 대한 문화 이해 및 자존감 강화 • 다문화 주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다문화 이해 행사

(표 III-2-11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강사 활용 다문화체험캠프 - 다문화가정 학부모 1일 명예교사 수업 -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교육 상담 운영 - 다문화 어린이 그림 전시회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협의회 운영 - 다문화교육 사이버 지원센터 운영 및 다국 언어서비스 제공 - 학부모 자원봉사단 및 다문화교육 연구회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 -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 또래친구 및 1:1 교사결연 확대 - 다문화가정의 강점을 살리는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무지개 예비 초등학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개 가족 결연 확대 - 학부모 상담 주간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학부모 한국어반 운영 -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 강화 •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실시 - 다문화교육 지도자료 및 콘텐츠 개발 - 다문화교육 홍보 리플릿 개발 보급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멘토링 확대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이해교육 재량활동 지도자료 개발 보급 - 다문화이해교육: 교사, 학부모, 학생 - 초등학교 저학년 언어발달 지원: 취학전 신입생 안내자료 보급 - 이중언어 강사를 위한 학습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현장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지원 민간단체 선정 연계 지원 - 중도입국자녀 교육 지원: 새날학교 - 다문화가정 캠프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1개교 12학급 개교 - 초중고 통합 교육과정 운영

(표 III-2-11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 오케스트라 음악학교 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학생들과 부모 등 구성 - 매개체(음악)를 통해 가족 간의 화합 - 자녀의 혼란과 어려움 치유 위한 발족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단위학교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및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과 대학생의 1:1 멘토링제 운영 - 「2+2+2행복문화 만들기」 독서멘토 운영: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일 반가정 학생과 학부모, 학교관리교사와 독서멘토교사, 총 6명을 한 팀으 로 구성하여 다름이 하나되는 행복문화 만들기 활동 - 이중언어교육반 운영 •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청 '나라사랑 체험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을 통한 나라사랑과 안보의식 고취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재 보완 및 보급 - 우리문화 탐방 -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회 개최(학생, 학부모, 교원) • 다문화 이해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이해교육 체험교육장, 거점학교, 연구학교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울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및 소외계층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상담 실시 • 다문화가족 생활적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재 개발 보급 - 예절 및 문화캠프, 우리문화 탐방, 다문화 사랑방 운영 • 다문화가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맞춤형학습 - 수업과목, 수업시간, 수업장소 선택 가능(개인별 총 40시간 수업)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학습과 한국어 학습, 이중 언어 교육 등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으로 사회적응능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교수 요원 양성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교수요원 양성과정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및 모국어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의 국제문화 이해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한국어, 학부모, 통역 지원

(표 III-2-11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학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학교에 들어오기 전 기초 한글교육 및 생활 적응 교육지원 - 민간시설 지원: 들꽃학교, 포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 오색다문화공동체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담임교사, 일반학생, 다문화가정 부모, 일반 학생 부모 등 5명의 교육주체로 구성 -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도 - 다문화학생(가정)-일반학생(가정) 상호멘토링, 다문화체험활동 실시 • 다문화가정 학생-교사 결연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사회생활 부적응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 심한 학생 - 단위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연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 정체성 확립 상담 활동 ·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프로그램,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 지원 등 • 다문화 가정 멘토링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티: 학교 및 사회 부적응 정도가 심한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 멘토: 일반 가정 학생 및 학부모 - 멘토링 대상 가정 선정 - 가정 학습 및 지역생활 멘토링, 문화체험, 주말체험학습 등 •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 -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캠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마음열기를 위한 어울림 상담 실시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가족사랑 캠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지공예, 서예,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체험 교실 - 가정에서의 교육, 부모교육 등 학부모 교육과 체험 • 해외 현직교사 초청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영어, 외국의 문화 이해, 방과 후 및 주말체험 특별프로그램 등 운영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바다캠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수영 체험 • 다문화가족 체험 나들이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체험 • 다문화가정 1:1 멘토링 사업 추진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기관 '다솜학교' 설립 업무협약 체결

(표 III-2-11 계속)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 기초·기본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 한글사랑 선생님 및 찾아가는 교사 봉사동아리 운영 - 다문화학급 사이버 스쿨(http://cell.cise.or.kr)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형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 투게더 프로그램 운영 - 문화·역사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이중언어·다중문화교육 방안 모색 - 다문화교육센터(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다문화공감학교 시범 운영 및 일반화 • 다문화가정 교육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우리글·우리문화 교육: 한글사랑선생님 배치 및 대학생 멘토링 활용 - 찾아가는 교사봉사동아리 운영 - 7개 국어로 된 기초 기본학력 지도자료 보급 • 다문화공감학교: 다중언어 및 다중문화중심 교육과정 운영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자녀관계 및 자긍심 향상 • 다문화가족 아버지 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역할 인식, 역할의 정립, 학부모의 잠재적인 역량 개발 및 강화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교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실시 •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및 학부모 지원, 학부모 역량강화사업 - 일반 학생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등 업무 협력 강화 - 이중언어강사, 통·번역지도사 활용 등 용이 • 다문화가정 생활체험수기 공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주 가정생활, 결혼생활, 한국어습득과정, 자녀교육 등의 경험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생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멘토링, 상담활동, 부모의 모국문화 이해 지원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나라 문화탐방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자아정체성 확립 -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사랑 어울마당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 1:1 대학생 멘토링 운영 • 다문화가정 체험나들이 행사(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개최

(표 III-2-11 계속)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화 이해교육 • 친구사랑 프로그램 운영 • 가정 방문 및 '학부모 만남의 날' 운영 • 글로벌 인재육성과 국제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 문화체험 - 다문화 부모나라 체험 행사 실시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부모, 자녀 한글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및 교육지원청별 다문화자녀 상담실 운영 -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운영 등

3) 민간 차원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 사업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다문화가족과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의료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민간 차원의 지원 사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민간 차원의 지원 사업은 <표 III-2-12>와 같이 상담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공익지원, 정보지원, 기타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서비스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이나 공간적인 제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를 표방하는 지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나 미등록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더욱 소극적으로 된다는 지적이 있다(김선미, 2009). 즉,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자녀, 결혼이민자 자녀 등 다양한 대상들이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로 국한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정부정책의 서비스 전달자로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면서도, 다양

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2-12〉 민간 차원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정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상담지원	- 노동상담, 출입국 상담, 산재상담, 이주여성상담, 재외동포상담, 국제결혼/가정 상담, 생활관련 상담, 취업상담, 의료상담
복지지원	- 쉼터, 도서관, 영유아 보육시설, 문화체육행사
교육지원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한국문화체험, 직업능력개발
공익지원	- 연대활동, 외국인인권개선활동, 공동체 지원
정보지원	- 인쇄물제작, 온라인 정보 사이트 운영
기타	- 장례지원 등

자료: 김선미(2009). 이주·다문화실태와 지원 사업 분석: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다.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지금까지 중앙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과 발달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활지원사업, 언어·인지·학습 발달 지원사업, 사회성·정서발달 지원사업, 신체 발달 및 건강 지원사업, 기타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1) 생활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주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사회보장수급권 확대와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문화가족 대상의 비용지원 정책으로 2011년부터 신설·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III-2-13〉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사업

사업	내용	추진체계	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2010년 159개소에서 200개소로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114억원
사회보장수급권확대	-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별도 산출 어려움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235억원

지방자치제 주도의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사업은 경남 창원시 교육지원청의 다문화가정 자녀(새터민가정자녀 포함)에 대한 학원비 감면 사업을 들 수 있다. 경남 창원시 교육지원청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원비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표 III-2-14〉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사업

지역	사업내용	예산
창원시	- 다문화가정 학원비 감면혜택	-

민간주도의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사업은 주로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 가정에 분유와 이유식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따른 양육지원 활동,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필벽인터넷서널 한국지부는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표 III-2-15〉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사업

단체	사업내용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코시안의 집	- 분유지원, 이유식 지원 - 부모교육, 임신과 출산에 따른 양육지원 활동
필벽인터넷서널 한국지부	- 다문화가족 부모대상 생활비 지원

2) 언어·학습 발달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언어·학습 지원 사업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언어영재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기초 및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등 가장 많은 중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I-2-16〉 다문화아동 대상 언어·인지·학습발달 지원사업

사업	내용	추진체계	예산
언어영재교실 (이중언어교실)	- 영어, 일어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 -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	여성가족부	-

(표 III-2-16 계속)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필요시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 시설 파견 등 언어발달 교육 실 시	여성가족부	57.9억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지도	-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를 활용 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지 원	교육과학기술부	20억원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 발달지연 및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 원	교육과학기술부	37.80억 원
학교 부적응 학생 등 교육기회 확대	- 학교부적응 다문화가족 자녀 등 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설립	교육과학기술부	0.4억원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에 다문화 자료실 조성 - 공공도서관 내에 서가·열람 공 간 등을 포함한 별도 공간으로 설치 및 PC 등 적정 소요 물자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3.79억원

민간단체의 다문화 영유아 지원 역시 언어·학습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서비스가 언어발달 및 학습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민간단체는 음악교육, 과학교육, 미술치료 등 예체능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도입국 이주 아동이나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III-2-17〉 민간단체의 다문화아동 대상 언어·인지·학습발달 지원 사업

단체	사업내용
필벽인터내셔널 한국지부	- 교육장학금지원, 특별교육비 지원 - 원어민연계 영어학습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안산이주민센터 코시안의 집	- 영유아 보육시설(코시안의 집)운영 - 코시안 스쿨운영: 한국어 학습지도, 특별활동(피아노, 미술치 료, 재즈댄스, 미디어교육 등) 제공
한국다문화연대	- 클래식 음악교육, 찾아가는 창의력교육(수학, 과학, 창의력, 영어 등 방문수업) - 교육장학금지원

(표 III-2-17 계속)

세이브더칠드런	- 이중언어 및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 이중언어/다문화 교사 양성교육 및 파견사업
지구촌사랑나눔	- 영유아 보육지원(지구촌 어린이 마을) - 지구촌국제학교 - 한글, 컴퓨터, 태권도 교실
한국다문화센터	-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레인보우 스쿨 설립 및 운영 - 정부, 종교기관,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다문화 자녀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급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 중도입국자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안학교:다문화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3) 사회·정서발달 지원 사업

다문화아동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사회·정서발달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중 하나인 자녀생활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농어촌에 거주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아·사회·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방문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2-18〉 다문화아동 대상 사회·정서발달 지원 사업

사업	내용	추진체계	예산
자녀 생활서비스	- 농어촌에 거주하여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만3세~만12세 다문화아동의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방문교육사업	여성가족부	-
Rainbow School 운영	- 동반·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청소년관련기관	-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아동 대상의 사회·정서발달 지원 사업으로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 모습 알아가기 캠프’가 있다.

〈표 III-2-19〉 지방정부의 다문화아동 대상 사회·정서발달 지원 사업

지역	사업내용	예산
수원시	- 다문화가정 자녀 ‘내 모습 알아가기 캠프’	0.12억원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아동 대상의 사회·정서발달 지원사업은 안

산이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이 있다. 다문화가족 대상의 멘토링 사업은 다문화가족 아동과 대학생 간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정체성 함양, 정서발달 교육 및 학습지도를 실시하며, 특히 온라인교육이라는 장점을 살려 시간적 제약 없이 많은 아동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2-20〉 민간단체의 다문화아동 대상 사회·정서발달 지원 사업

단체	사업내용
안산이주민센터 코시안의 집	- 문화적 정체성 확립, 결속력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한국다문화센터	- 다문화 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 (아동-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실행)

4) 신체발달·건강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아동 대상의 신체발달·건강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활동이 있다. 생활체육활동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표 III-2-21〉 다문화아동 대상 신체발달·건강 지원 사업

사업	내용	추진체계	예산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융화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생활체육회/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	15억원

지방정부의 신체발달·건강 지원 사업은 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 신생아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서울시 중구와 울산시 중구는 다문화 결혼이민자 여성의 임신 중 건강검진 및 관리와 자녀 출생시 진료비를 지원한다.

〈표 III-2-22〉 지방정부의 다문화아동 대상 신체발달·건강 지원 사업

지역	사업내용	예산
경상북도	-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0.27억원
서울시 중구 울산시 중구	- 임신부, 영유아 건강관리	0.47억원 0.012억원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발달·건강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보다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민간차원의 지원사업도 주로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임신한 결혼이민자의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III-2-23〉 민간단체의 다문화아동 대상 신체발달·건강 지원사업

단체	사업내용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코시안의 집	- 산모의 건강상태와 자녀의 양육 상태 체크 - 예방접종 및 질병에 대한 병원 연결서비스제공 의료 서비스 - 임신기간 동안의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 연결서비스제공, 임신기간 동안의 영양섭취 돕기 위한 음식물 및 영양제 지원
떡벽인터내셔널 한국지부	- 건강검진 및 무료 진료 (서울아산병원 외 6곳의 병원 연계)
한국다문화연대	- 국립중앙의료원 이동진료버스, 무료진료 의료봉사
서울 은평병원	- 다문화 정신건강 클리닉: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외국인의 정신건강 관리
지구촌 사랑나눔	- 이주민 의료센터(구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진료 및 검사, 수술과 입원까지 모두 무료로 시행

5) 기타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타 서비스로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바우처 제도가 있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1등급으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발달지원 서비스,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인터넷·게임중독 치료서비스 등이 있다.

〈표 III-2-24〉 다문화아동 대상의 기타 지원 사업

사업	내용	추진체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아동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1등급으로 분류되어 1인당 월 27,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용가능 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발달지원 서비스,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We Start(위스타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위스타트 사업은 다문화가족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다문화가족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수의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We Start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 아동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지역의 경우 We Start 프로그램의 수혜자 가운데 60%가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다. 안산시는 2011년 We Start 서비스에 1.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표 III-2-25〉 지방정부의 다문화아동 대상의 기타 지원 사업

지역	사업내용
24개 마을	-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

민간단체 주도의 기타 지원 사업으로는 합창대회,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이 있다.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행사도 있지만, 주로 일회성 행사가 많다.

〈표 III-2-26〉 민간단체의 다문화아동 대상의 기타 지원 사업

단체	사업내용
경기다문화사랑연합	- 전국다문화가족 합창대회
한국다문화 센터	-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 다문화 축제
픽백인터네셔널 한국지부	- 어린이날 행사, 생일케이크 배달, 문화체험, 국가별 모임, 여름/겨울 캠프, 부/모의 나라 관광 등
한국다문화연대	- 전통문화예술체험 캠프(문화, 예술체험, 과학실험 등)
안산이주민센터 코시안의 집	- 가족캠프, 명절행사
세이브더 칠드런	- 다문화아동 이중언어·문화지원 프로젝트 "하나 Kids of Asia":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가정의 초등학생 대상, 어머니 나라의 말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멘토링, 심리/정서지원 등
지구촌사랑나눔	- 각국 명절행사, 체육대회 등 - 지역아동센터 운영(초등학생이상 다문화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급식지원, 생활 및 건강관리, 기초학습지도, 상담프로그램운영 등)

3.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외국사례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외국의 현황과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육아지원 정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과정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유형도 다르다. 다문화주의와 이론에 관한 다양한 분류가 있고(예: 박성혁·곽한영, 2009; 서종남, 2010; 최종렬 외, 2008), 다문화 형성 및 변천의 과정은 각 국의 다문화주의가 한 가지 유형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지만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이민자 혹은 다인종 국가로서 국가형성 초기부터 새로운 인종과 문화의 대규모 유입으로 구성된 태생적 다문화, 이주민 국가이다. 둘째는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국가가 자본의 유입과 노동의 세계화 흐름에 의해 새로운 노동력이 이동하게 됨에 따라 이민자를 허용하고 문화적

종교적 통합을 추구하는 형태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해당된다 하겠다. 한국은 이주노동자, 국제결혼가정의 두 가지 양상의 다문화과정을 보이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할 수 있으나(곽한영, 2008),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 이주여성과 중국동포의 유입이 다수인 다문화 특성이 한국 고유의 다문화과정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다문화 논점은 과거 국가형성과 산업화 과정으로서의 이주에서 나아가,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정치, 사회 변화의 와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이고 전문화된 정착성 이주 혹은 불법적이고 비정형화 된 이동에 주목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것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 그리고 폭력과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생기는 과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성(diversity)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Castles & Miller, 2008).

가. 다문화 정책 모델

1)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유형은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Castles & Miller, 2003).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를 3D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한 경제적 영역에서만 한정하여 받아들이고, 사회정치적 영역인 복지혜택,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 부여 등의 권리에서는 배타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여 주류사회 기존 구성원들과 차이가 없이 동질적으로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경우이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이민자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다문화정책의 목표가 동화가 아닌 공존, 공생(symbiosis)에 두는 경우이다. 과거 수십년간 상당수 유럽국가에서 동화주의에서 벗어나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였으나, 다문화 이주민의 다양한 직업경로와 삶의 형태가 중앙집권적인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다시금 새로운 동화주의 모형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정책 모델의 논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의 구분 자체가 유의미하기 보다는 다문화정책과 대응의 과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 다양한 변이와 전이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하겠다.

차별배제모형은 주로 국가의 구성을 혈연공동체로 정의하는 나라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주류사회내로 진입, 정착하는 것을 꺼리는 관점의 반영이다. 이는 차별적인 출입국관리정책과 이민정책에 반영되어 외국인의 국적취득에 대한 강한 규제 장치로 나타난다. 차별배제모형은 1950~6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시 사용하던 방법으로, 이는 중동 산유국과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에서도 적용되었다. 동화모형은 이민자의 국적/시민권 취득, 이주민의 제도권 교육과 직업세계의 진출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가늠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우선적으로 이주민이 주류 문화에 흡수, 동화되어 기존 문화적 삶의 형태를 상당부분 드러내지않는 유형이다. 언어적 문화적으로 주류집단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한다. 1960년대 호주, 프랑스, 영국에서 적용되었다.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통합 방법은 국적 부여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대개 차별배제모형이 혈통주의(jus sanguinis), 동화모형과 거주지주의(jus domicili), 다문화모형과 출생지주의(jus soli)가 강한 상관을 갖는다.⁴⁾ 혈통주의는 부모가 그 나라 국민인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고, 거주지주의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곳을 국적부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출생지주의는 태어난 곳을 국적부여의 기준으로 삼는다.

나. 주요국 사례

1) 독일

가) 배경 및 개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중반 특정산업분야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시작되면서 남유럽 국가들과 협정체결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충원하기 시작, 1945년 이후 약 2천만명 이상의 다문화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이후 독일정부는 터키 등의 비유럽 국가와도 협정을 맺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는 독일 산업의 발전과 대량생산체제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Castles & Miller, 2003). 당시 독일의 다문화정책은 본국으로의 귀환정책이 기본이었으나, 많은 노동자들이 장기거주하게 되면서 다문화사회로

4) 독일의 경우, 1999년 '국적법'에 의해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14세 이전에 독일로 이주한 경우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부모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의 변화를 겪었으며 1960~70년대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독일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수정하게 된다.

귀국을 목표로 한 차별적인 배제정책은 문화적 다양성과 충돌 및 갈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민자를 독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해 1999년 국적법의 개정을 계기로 혈통주의 대신 거주중심의 출생지주의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가 독일 시민권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이민자를 독일 사회의 주요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점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다문화·다인종화되는 독일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의 의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강화하였다. 그 노력으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공동체문화의 창출이라는 목표아래 정부와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정부의 기관을 포함하여 주정부나 자치단체 수준, 그리고 사회단체 등 다양한 차원의 기관들이 다문화정책에 관여하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로 다문화정책의 지원자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체계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은 주로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외, 각종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이민과 관련된 지원단체 등이 사회통합정책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06; 박성혁·곽한영, 2009).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2007년을 기준으로 약 720만명으로 독일 총인구의 8.8%를 차지한다. 독일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는 약 150만명으로 집계되며 독일 인구 중 부모세대에서 독일로 이주,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인이었으나 독일로 귀화한 사람 그리고 독일인-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수는 2005년 기준으로 약 10%를 차지한다. 독일인구 중 약 19%가 외국인이거나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집계된다. 독일의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독일내 총출생률의 약 10.1%를 차지하며 2000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중 57%가 2000년도 개정된 국적법에 의해 독일시민권을 획득하였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06; 박성혁, 2008).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다문화가족의 사회보장 지원

독일은 사회보장국가의 원칙에 근거,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주민들도 대부분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독일의 사회보장 5부문, 즉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 사고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보조금, 자녀수당 및 양육수당 등을 포함한다.

최근 합의된 '국가통합계획'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독일어와 독일문화 교육을 600시간에서 900시간으로 늘리고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산업계와 교육후원 단체는 청소년의 직업교육과 수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연방정부는 강제결혼 등을 구제하기 위해 이민여성을 위한 긴급보호시설(emergency shelters)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히 외국인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이민자 출신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이용승, 2007). 이러한 통합 위주의 다문화정책은 교육 및 고용 관련 영역에서 이주민의 동등한 진입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다문화 통합 지원은 자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① 자녀양육 지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는 아동수당(Child benefit)이 있는데, 독일 내 거주자로서 세금납부자는 독일인과 동등하게 자녀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 1인당 부모 및 법적 보호인 중 한 사람에게만 양육비가 지원되며, 아동이 양육비 지원대상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연방자녀양육보조법(Federal Child-Raising Allowance Act)으로 지정하여 연방자녀양육보조비(Federal child-raising allowance)로 시행되어 오다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연방부모수당법(The Federal Parental Benefit Act)으로 대체, 제정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출생한 모든 아동에 해당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동은 연방자녀양육보조법에 적용된다. 두 지원의 수혜자격요건은 동일하나, 연방부모수당액은 부모의 소득과 연계된다. 독일에 영구거주하거나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녀교육 지원

독일정부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지자체 시별로 이주민 가족을 위한 행정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교육 및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와 민간기관, 단체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형태로 다문화아동 교육지원이 이루어진다. 일례로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가정 자녀지원 지역사무소(RAA: Regionale Arbeitsstellen Forder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aus Zuwandererfamilie)를 들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주민 가정 및 아동의 독일어 습득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가정의 원활한 적응과 조화로운 부모-자녀 관계와 소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0년에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 27개 지부를 두고 중앙정부 총괄 주도하에 네트워크화 하여 실행하고 있다(김은정, 2009).

RAA 프로그램은 영유아기 학령기 이전부터 초중등 학령기, 이후 취업단계에 까지 이어지는 발달적 지원으로 언어교육 외에 상담, 성인 및 부모교육 등을 병행하여 제공한다. 독일은 이주민의 적응을 위해 우선 동화정책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교육, 언어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독일의 다문화교육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기초한 동화주의관점에서 '문화간 이해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표 III-3-1〉 RAA의 주요 언어 프로그램

사업명	대상	목적	사업내용
손잡고 이끌기(Griffbereit)	1~3세	다언어교육	아동의 언어교육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손잡고 이끌기(Griffbereit) 배낭(Rucksack)	4~6세	다언어교육	이주민 가정아동의 독일어 및 모국어 능력 향상
이주민청소년지원사업(Famig)	이주민 가정 청소년	언어교육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함께 말하기(MitSarache)	초등학생	언어교육 및 숙제지도	언어능력 향상 및 숙제지도 프로그램
제2언어 독일어(Module Duetch als itsprache)	교사	독일어 교수법 지도	독일어 교수법 자료개발

자료: 김은정(2009), p104.

동베를린 시의 경우, 시 차원에서 다문화아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일반 취약계층 아동 지원체계내로 전환하여, 더 이상 다문화아동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않다. 이는 다문화아동에 대한 라벨링 없는 보편적인 접근의 시도로, 오히려 다문화가족 및 아동에 대한 수용과 통합의 지향을 담아내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2) 프랑스

가) 배경 및 개요

프랑스는 18세기 후반 전쟁 이후 약화된 국력을 이민 인구증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후 20세기 초 본격적으로 이민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주민 정책을 추진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북아프리카로부터, 1990년대 이후 동유럽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이, 특히 무슬림의 유입이 있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이주한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문화적, 종교적 이질성이 커 프랑스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 자녀의 사회 및 학교생활 적응과 이들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60년대 이후 동화주의를 표방하여 프랑스적 용광로 정책으로 불리웠다. 그러나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한 단편적 정책수행으로 인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에 70년대 이후부터는 공화국 통합모델의 수립을 통한 강력한 통합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적으로 중앙정부는 동화주의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원칙과 조례를 채택하고 있다.

2006년 이민통합법안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출입국 취업혜택과 이중국적 허용과 영주자격 부여의 국적관련 동등한 권리의 부여가 마련되었다. 동법안을 통해 또한 결혼이민자, 외국인여성에 대한 보호·정착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국제결혼자의 프랑스 정착 및 동화를 위해 별도의 노동허가취득 없이 체류증만으로 노동 및 취업을 허용하였고, 국가고용공단 및 지자체 노동고용직업훈련원에 근로자 등록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프랑스어 교육과 문화교육을 제공하였다(김은정, 2009). 2007년 5월에 프랑스는 기존 4개 부처에 분할되어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이민·통합·국가정체성·협력발전부라는 정부부처를 새롭게 출범시켜 이주민 정책을 중앙집권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프랑스에 장·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시 국제이민청에 등록되어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프랑스는 이민자들에게 일정수준의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를 유입통합계약이라 칭한다.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600시간의 프랑스어 강좌, 30시간의 시민교육과 직업지원을 내용으로 비디오 시청-자료제공-건강진단-프랑스어 시험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각급 학교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이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우선과제로 언어교육을 중시한다. 최종 언어시험합격시 체류허가신청서가 발급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프랑스어 기초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400시간까지 해당지역 교육기관에서 추가로 무료 프랑스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07). 즉 체류와 거주 자격을 받으려면 통합교육을 이수하고 통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후 지원기관은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 사회지원재단이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사회적 제도들에 대한 정보 등을 지원하며, 이민자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

프랑스에서 교육정책은 이주민 통합을 위한 강력한 통합전략에 근거한다. 프랑스 정부는 증가하는 이주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가정 출신의 아동·소년들로 하여금 프랑스 사회로의 적응과 동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교육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철저히 '평등'원칙을 실시,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도 프랑스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주민 가정 출신 다문화 아동의 학업수준은 프랑스 아동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다. 두 집단의 학력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1970년부터 시작되었고, 1981년 프랑스 정부는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우선교육지대(Priority Education Zone-ZEP)를 마련했다.

신규 주거지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프랑스판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적게 가진 이가 보다 많은 걸 취하는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의 취지를 갖는다. 1982년 시행 이래 많은 변화를 겪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이에게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의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학생의 전문단과대 입학률을 높이기 위함이다(Etienne, 2008). 애초 이주민 가정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미 1994년에 ZEP 프로그램 수혜 아동의 30% 이상이 이민자 가정 아동이었으며 ZEP 지역이 이주민 주거지역과 중복되는 점에서 프랑스의 ZEP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다문화아동 교육지원으로 진행되었다.

〈표 III-3-2〉 우선교육지대(Priority Education Zone: ZEP) 주요 내용

ZEP 프로그램 내용	슬로건 : 덜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① 저소득층, 낮은 졸업률, 높은 외국인 비율, 높은 실업률 등 여러 취약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인구들이 집중해서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교육지대(ZEP)로 선정하고, 공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함. ②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접근함. ③ 모든 지식 습득의 기본이 되는 언어 습득 및 숙련에 초점을 둠. ④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기교육을 장려함. ⑤ 생활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을 위해 교사교류, 보충수업, 상급학교 방문, 안내책자 배부 등 상급학교로의 지원을 제공함. ⑥ 학교-학부모간 긴밀한 유대를 중시함. ⑦ 법 준수 시민교육과 문화적 다양성/정체성 교육을 병행함. ⑧ 우선교육망을 설치, 우선교육의 실행 경험과 방법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이를 위한 학군별 자료관을 설치하여 지원함. 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주택 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강/복지 협조체제를 구축함. ⑩ 신입교사 지원, 교사양성과정 등 교사지원활동을 강화함.

자료: 조영달(2006), p28. 김승권 외(2010), p67.

2006년에는 Ruesseau ambition reussite(RAR)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RAR은 ZEP 중 가장 고위험군 지역을 선택, 이 지역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1,000여 명의 경력교사와 3,000명 이상의 교육학 조교(pedagogical assistants)를 지원하였고(Vaisse, 2006; 김승권 외 2010, 재인용), ZEP 학교간 네트워크 사업(REP: A Priority Education Network)도 진행되었는데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EAZ: Education Action Zones)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약 30년간 진행된 ZEP 사업의 성과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구체적인 성과지표인 학력연한의 상승과 대학입학자격시험 바칼로레아 성공률로 나타나지 않으므로(Benabou, Kramarz, & Prost, 2007), 프로그램 효과는 전무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있기도 하다.

3) 스웨덴

가) 배경 및 개요

현재 이주민은 스웨덴 인구의 약20%를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평등관에 입각하여, 스웨덴에서 노동하고 세금을 내는 이주민과 그 가족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차별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즉 이주민 가족에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평등 구현을 도모한다. 그러나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스웨덴에 이주민의 증가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와 사회적 갈등을 가져왔다. 사민당 정권은 사회경제적 평등과 포괄적 사회통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1997년 포괄적인 종합대책안으로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였다.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스웨덴의 다문화 아동 지원의 핵심은 학교생활로의 통합과 언어교육으로, 이는 사회정치적인 이유로 나이가 들어 중도입국 이주한 다수의 동유럽국가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적응상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함이다(Taguma, Kim, Brink, & Teltemann, 2010). 스웨덴의 취학 전 교육과정에는 피르스콜라에서 모국어가 스웨덴어가 아닌 아동들이 모국어를 스웨덴어와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문화아동을 위한 교육목표중 하나가 이들에게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 주체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학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스웨덴의 탈중앙집권화된 지방자치 중심의 교육체계가 각 주(municipalities) 단위에서 다문화아동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스웨덴은 영유아기 통합된 보육·교육 서비스(ECEC)의 무상, 보편주의가 잘 정착되어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1960년대 이래 일하는 부모의 0~12세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 서비스 제공이 정비되어왔으며, 현재는 아동기 보육·교육의 제공이 지자체의 역할로 규정되며, 만4세부터는 부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의 보편적 보육·교육 이용권이 보장된다. 각 지자체별로 특별언어 피르스콜라 그룹을 운영하여, 모국어가 스웨덴어가 아닌 가정의 경우 하루에 2~3시간 스웨덴어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아동의 이중언어 습득과 이중문화 정체성의 형성을 돕는다.

스웨덴 이민자 가정 아동들의 공보육 수혜율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3세 이상의 모든 아동들이 피르스콜라에 다닐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기금을 제공하고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주로 개방형 피르스콜라나 공립 피르스콜라 건물 안에 특수한 반일제 언어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09; 한유미 외, 2005). 대다수 이주민 가정은 스웨덴의 3개 도시(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모)에 집중되어 있어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원 정책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기 교육 지원이 청년기로 이루어지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Taguma 외, 2010).

5.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규모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정 영유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들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차원의 지원 정책 등을 정리하였다. 90년대 이후 결혼이민자녀성과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과 문제 해결에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차원의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내용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로 이원화되어있어, 대상별로 다수의 사업들이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광의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을 구체적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화되고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못 미치는 점이 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부처간, 사업간에 중복되어 제공하면서도 서비스 대상이 성인(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아동 대상서비스의 경우 취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내용과 양적 측면에서 부족하고 대부분의 지원서비스가 판별 및 진단에 근거한 언어·인지·학습의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

둘째, 90년대 이후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다문화가족 정책은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정책은 성인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한정해 왔다. 최근 2011년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도 포함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은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대상 포괄에서의 부족함을 보인다.

셋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 등의 많은 사업이 그들을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교육시키려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일회성 행사 또는 단기 프로그램 지원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도 대체로 미약하다.

넷째, 부처에 따른 외국인·다문화관련 정책의 예산 편중이 있다. 시민주도의 민간단체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을 위탁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단체가 정부정책의 서비스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언어·학습지원과 사회정서발달 지원에의 프로그램과 지원내용이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기 다문화아동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발달역량은 고양되고 취약점을 보완되도록 하는 보다 세분화되고 유연한 지원내용이 다양한 방법과 전달체계를 통해 구비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유럽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 유입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 문제가 다문화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유럽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이주민 대상의 지원으로, 다문화대상을 따로 구분하지않고 보편적 취약계층 지원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파리시에서와 같이 지자체 수준에서 해당지역의 이주노동자 거주밀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이주민대상 육아지원기관의 설립과 다문화교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베를린시에서와 같이 시의 육아지원기관 협의체가 자체개발한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통해 다문화아동에 대한 구분 없이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다문화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동화주의와 통합의 정책기조 속에서 적극적인 자녀양육지원을 하며, 동시에 교육지원의 강화를 통해 이주민의 언어소통과 사회융합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

IV. 다문화가족 조사대상자 특성

이 장에서는 조사대상 다문화가족과 아동 534사례에 대한 전반적 특성을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육 특성으로 나누어,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해 기본적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외에 국적과 입국, 체류 관련 특성,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용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은 주 양육자,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의 양육참여에 대한 조사 외에, 양육특성의 하위요인으로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인 모 결혼만족도, 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감, 모 우울에 대해 분석하였다. 끝으로 모의 한국어능력 조사 결과를 양육 특성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의 응답자 특성은 5장에서 논의될 다문화 아동 발달실태를 설명하는 환경변인에 해당된다.

1. 다문화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된 다문화가족 534사례 중, 35.2%가 경기/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24.0%, 경상 21.5%, 전라 19.3%였다. 지역규모는 행정구역상 명칭에 따라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로, 읍·면·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촌지역으로 분류한 결과, 83.7%는 도시로, 16.3%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⁵⁾.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출신국이 외국이며 대부분 모가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정(이 경우 부모 모두 출신국이 외국)은 8.1%로 43사례만이 표집되었다.

모 출신국에 의해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을 분류한 결과, 베트남-일본-중국(한족)-중국(조선족)-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 가정 중 모가 한국인

5) 도시-농촌의 지역구분은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실제로 생활환경은 농촌에 해당하나 행정구역상 시·군·구에 속해서 도시로 분류된 경우가 있음.

인 경우가 3사례, 몽골출신 모인 다문화가족이 총31사례 표집되었다. 그 밖에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기타 국가에서 46사례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모집단을 배포하여 자발적으로 조사참여를 신청한 534가정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한 결과로,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의 분포 특성은 <표 IV-1-1> 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가정 모집단 특성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례수가 적은 한국과 몽골 출신 모 집단의 경우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IV-1-1>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의 분포 및 모집단과의 비교

단위: %(명)

연구집단		모집단 ⁶⁾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534)	(전체)	100.0(1,265,006)
거주지역		거주지역	
서울	24.0(128)	서울	29.0
경기/충청	35.2(188)	경기/충청	37.4
경상	21.5(115)	경상	9.9
전라	19.3(103)	전라	5.3
		그 외 지역	18.4
모 출신국		외국인주민 출신국	
한국	0.6(3)	-	-
중국(조선족)	15.7(84)	중국(한국계)	38.6
중국(한족)	17.0(91)	중국	16.5
일본	19.5(104)	일본	2.8
필리핀	10.1(54)	필리핀	4.6
베트남	22.7(121)	베트남	11.0
몽골	5.8(31)	몽골	1.9
기타	8.6(46)	기타	24.6
다문화가족 유형		외국인주민 유형	
결혼이민자가족	91.9(491)	결혼이민·혼인귀화자	16.7
외국인근로자가정	8.1(43)	외국인근로자	43.7
지역규모			
도시	83.7(447)	-	-
농촌	16.3(87)	-	-

6) 2011년 2~5월 조사된 행정안전부 「2011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임.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외국인근로자 외, 외국인주민자녀(다문화아동) 11.9%, 재외동포 6.6%, 유학생 6.9%, 기타 14.2%로 분류됨.

가. 인구학적 특성

1) 부모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36~40세가 24.3%, 41~45세가 35.5%, 46~50세가 25.8%로 대부분이 36세 이상이었으며, 35세 이하는 6.4%였다. 어머니의 경우 30세 이하가 29.2%, 31~35세가 27.7%, 36~40세가 23.3%로 아버지와 달리 절반 이상이 35세 이하였다.

〈표 IV-1-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연령		
(전체)	100.0(519)	100.0(528)
30세 이하	1.0	29.2
31-35세	5.4	27.7
36-40세	24.3	23.3
41-45세	35.5	15.5
46-50세	25.8	4.2
51세 이상	8.1	0.2
건강상태		
(전체)	100.0(519)	100.0(526)
장애	7.1	0.6
질병	6.0	4.9
건강 양호	86.9	94.5
종교		
(전체)	100.0(521)	100.0(529)
무교	40.9	31.8
불교	15.9	18.1
기독교	16.1	18.5
천주교	3.1	5.5
원불교	0.8	0.9
통일교	21.3	21.9
기타	1.9	3.2

부모의 건강상태는 대부분이 장애와 질병이 없다고 응답하여 부의 경우 86.9%가 건강이 양호하다고 답하였으며, 7.1%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6.0%가 당뇨, 고혈압, 신부전증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모의 경

우 94.5%가 건강이 양호하다고 답하였으며 0.6%가 장애를, 4.9%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종교를 살펴보면 부의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40.9%였고 통일교 21.3%, 기독교 16.1%, 불교 15.9%, 천주교 3.1%의 순이었다. 모의 경우 31.8%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통일교 21.9%, 기독교 18.5%, 불교 18.1%, 천주교 5.5%로 나타나, 약68%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통일교의 축복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 필리핀 출신 모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 중 만2~만7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 평균은 4.33명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다문화가족의 평균 가구원수 2.4명보다 많았다. 자녀수는 2명이 44.6%로 가장 많았고 4명 이상인 경우가 6%(32가구) 있었다. 평균 자녀수는 1.94명으로 이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다문화가족의 평균 동거아동수가 0.3명인 것에 비해 많았다.

〈표 IV-1-3〉 가구규모 및 자녀수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표준편차)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상		
총 가구원수	-	0.6	26.8	36.8	20.5	10.4	5.3	100.0(533)	4.33(1.30)
총 자녀수	34.5	44.6	15.0	4.5	1.3	0.2	-	100.0(534)	1.94(.91)

다문화가족의 현재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이혼·별거·사별로 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1.9%였으며 그 중 이혼이 1.1%, 별거 0.2%, 사별이 0.6%였다. 부의 경우 87.5%가 초혼, 재혼이 10.6%였으며, 모는 92.5%가 초혼, 5.7%가 재혼이었다.

〈표 IV-1-4〉 현재 결혼상태

구분	단위: %(명)					계(수)
	초혼	재혼	이혼	별거	사별	
아버지	87.5	10.6	1.1	0.2	0.6	100.0(530)
어머니	92.5	5.7				100.0(530)

2) 아동

조사대상 다문화가족 아동의 연령은 만3~6세(초1)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만2세와 만7세 이상 아동도 소수 포함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가 53.6%, 여아가 46.4%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성별은 <표 IV-3-1> 와 같다.

<표 IV-1-5> 아동의 연령 및 성별

단위: %(명)

연령	성별		계(수)
	남아	여아	
(전체)	53.6(286)	46.4(248)	100.0(534)
만2세	50.0(12)	50.0(12)	100.0(24)
만3세	53.4(78)	46.6(68)	100.0(146)
만4세	51.4(76)	48.6(72)	100.0(148)
만5세	57.9(66)	42.1(48)	100.0(114)
만6세	50.0(39)	50.0(39)	100.0(78)
만7세이상	62.5(15)	37.5(9)	100.0(24)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65.1%, 둘째아 21.8%, 셋째아 9.9%, 넷째아 이상이 3.2%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첫째아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1-6> 아동의 연령 및 출생순위

단위: %(명)

연령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계(수)
만2세	91.7	8.3	-	-	100.0(24)
만3세	75.3	18.5	4.8	1.4	100.0(146)
만4세	64.9	23.0	10.1	2.0	100.0(148)
만5세	58.8	26.3	9.6	5.3	100.0(14)
만6세	46.8	27.3	18.2	7.8	100.0(77)
만7세이상	66.7	8.3	25.0	-	100.0(24)

나. 사회경제적 특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부모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표 IV-1-7), 부의 경우 고졸이 53.0%, 초대졸 이상 29.3%, 중졸 이하 17.6%로 나타나 약82%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 고졸이 37.6%, 초대졸 이상 39.7%, 중졸 이하 22.6%로 모의 경우도 약 77%가 고졸로 나타났다. 부모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모의 경우 중졸이하의 저학력과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부

에 비해 다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부모의 학력분포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IV-1-7〉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학력		
(전체)	100.0(517)	100.0(529)
무학	0.2	0.9
초등학교 졸업	4.4	4.3
중학교 졸업	13.0	17.4
고등학교 졸업	53.0	37.6
2,3년제 대학 졸업	10.4	19.8
4년제 대학 졸업	16.2	17.6
대학원 이상	2.7	2.3
직업		
(전체)	100.0(523)	100.0(531)
전문직	1.3	1.9
사무직	17.6	1.5
서비스/조리/서빙	2.5	4.1
판매	4.0	1.1
농/림/축/어업	6.7	0.6
기능/기술/단순노무	43.2	8.3
운전/수송	10.5	0.2
자영업	6.3	1.7
기타	1.9	2.3
외국어/다문화강사	-	15.1
무직	6.0	63.3

부모의 직업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여 분류한 결과(표 IV-1-7), 부의 경우 기능/기술/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사무직 17.6%, 운전/수송 10.5%, 농업 6.7%, 자영업 6.3%, 판매 4.0%, 서비스/조리/서빙 2.5%, 기타 1.9%, 전문직 1.3%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직은 6.0%였다. 모의 경우 63.3%가 무직인 가운데, 직업이 있는 경우 외국어강사/다문화강사가 15.1%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기술/단순노무 8.3%, 서비스/조리/서빙 4.1%, 기타 2.3%, 전문직 1.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소득을 지난 달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표 IV-1-8), 200~250만원 미만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150~200만원 미만 21.7%, 150만원

미만 23.4%, 300만원 이상 17.3%로 나타나, 대체로 월가구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고 100만원 미만의 취약층이 8.2%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 250만원 이상의 비율은 26.5%로 나타났다.

〈표 IV-1-8〉 월 가구소득

		단위: %(명)
구분	계(수)	
가구소득(지난달기준)		
(전체)	100.0(534)	
50만원 미만	2.8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4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5.2	
150만원 이상 ~ 200만원미만	21.7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24.9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9.2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7.9	
350만원 이상	9.4	
모름/무응답	3.6	

가족 특성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V-1-9), 다문화가족의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주지역과 지역규모에 따라 가구 소득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1-9〉 가족특성별 소득수준

						단위: %(명)
	150만원 미만	150~250만원	25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계(수)	χ^2 (df)
거주지역						
(전체)	23.4	46.6	26.4	3.6	100.0(534)	18.27(9)*
서울	27.3	45.3	25.0	2.3	100.0(128)	
경기/충청	15.4	46.8	34.0	3.7	100.0(188)	
경상	24.3	47.8	22.6	5.2	100.0(115)	
전라	32.0	46.6	18.4	2.9	100.0(103)	
지역규모						
(전체)	23.4	46.6	26.4	3.6	100.0(529)	7.541(3) ⁺
도시	21.7	47.2	28.0	3.1	100.0(120)	
농촌	32.2	43.7	18.4	5.7	100.0(199)	

⁺ p <.10, * p <.05

거주지역에 따라 경기/충청 지역에서 15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낮고 250만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전라 지역에서 15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 250만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전라지역의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150만원 미만의 비율은 낮고 250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9).

부모 특성 가운데 부 학력, 모 학력, 모 출신국에 따라 가구소득수준에 차이가 있었다(표 IV-1-10). 부모 학력별로는 초대졸이상 그룹에서 15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낮고 250만원 이상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다. 모 출신국에 의하면 중국과 일본이 필리핀, 베트남, 기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150만원 미만의 비율이 낮고 250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의 직업군에 따라 소득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직의 경우 모두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고하였으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많았던 직업군은 사무직, 판매직, 자영업이었고, 반면에 서비스/조리/서빙 직업군과 농/축/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비율이 높았다.

〈표 IV-1-10〉 부모특성별 소득수준

단위: %(명)

	150만원 미만	150~ 250만원	25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계(수)	χ^2 (df)
부 학력						
(전체)	22.4	47.4	26.7	3.5	100.0(517)	14.86(6)*
중졸이하	27.5	54.9	15.4	2.2	100.0(91)	
고졸	23.7	46.4	25.5	4.4	100.0(274)	
초대졸이상	17.1	44.7	35.5	2.6	100.0(152)	
모 학력						
(전체)	23.4	46.3	26.7	3.6	100.0(529)	28.97(6)***
중졸이하	31.7	47.5	15.0	5.8	100.0(120)	
고졸	21.1	52.8	22.1	4.0	100.0(199)	
초대졸이상	21.0	39.5	37.6	1.9	100.0(210)	
모 출신국						
(전체)	23.4	46.6	26.4	3.6	100.0(534)	-
한국 ⁷⁾	33.3	33.3	33.3	-	100.0(3)	
중국(조선족)	19.0	44.0	34.5	2.4	100.0(84)	
중국(한족)	17.6	54.9	24.2	3.3	100.0(91)	
일본	11.5	46.2	42.3	-	100.0(104)	
필리핀	38.9	38.9	13.0	9.3	100.0(54)	
베트남	30.6	47.9	15.7	5.8	100.0(121)	
몽골	25.8	48.4	22.6	3.2	100.0(31)	
기타	30.4	41.3	26.1	2.2	100.0(46)	
부 직업군						
전문직	-	-	100.0	-	100.0(7)	-
사무직	9.8	48.9	39.1	2.2	100.0(92)	
서비스/조리/서빙	30.8	38.5	23.1	7.7	100.0(13)	
판매	19.0	42.9	38.1	-	100.0(21)	
농/축/임/어업	45.7	37.1	-	17.1	100.0(35)	
기능/기술/전문직	18.1	51.8	27.4	2.7	100.0(226)	
운전/수송	27.3	50.9	20.0	1.8	100.0(55)	
자영업	15.2	45.5	39.4	-	100.0(33)	
기타	50.0	50.0	-	-	100.0(10)	
무직/모름	60.7	28.6	-	10.7	100.0(31)	

주: 모 출신국별, 부 직업군별 교차분석은 사례수가 적은 셀로 인해 적용하지 않음.

* p <.05, ** p <.01, *** p <.001

7) 모 출신국이 한국, 몽골인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 다른 출신국 집단과의 직접적인 비교분석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모의 직업유형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취업 지표를 살펴본 결과(표 IV-1-11), 부 94.2%, 모 37.1%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맞벌이 비율은 32.8%로 조사되어 맞벌이를 하지 않는 외벌이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표 IV-1-11〉 부모 취업 지표

단위: %(명)			
구분	취업률	맞벌이비율	계(수)
부	94.2	32.8	100.0(534)
모	37.1		100.0(534)

가족특성에 따른 취업지표를 살펴보면(표 IV-1-12), 가족유형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모 취업률과 맞벌이 비율이 결혼이민자가정에 비해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충청지역에서 부·모 취업률,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1-12〉 가족특성별 부모 취업 지표

단위: %(명)				
구분	부 취업률	모 취업률	맞벌이 비율	계(수)
(전체)	94.2	37.1	33.0	100.0(534)
가족유형				
결혼이민자	94.5	34.2	31.0	100.0(491)
외국인근로자	90.7	69.8	56.1	100.0(43)
χ^2 (df)	1.05(1)	21.42(1)***	10.77(1)**	
거주지역				
서울	91.4	33.6	27.6	100.0(128)
경기/충청	96.3	44.7	40.9	100.0(188)
경상	93.9	28.7	23.5	100.0(115)
전라	94.2	36.9	35.9	100.0(103)
χ^2 (df)	3.33(3)	8.79(3)*	12.02(3)**	

* p <.05, ** p <.01, *** p <.001

부모 특성에 따라서는(표 IV-1-13), 부·모 연령, 모 학력, 모 체류기간, 모 출신국, 가구소득에 따라 부모 취업률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부의 연령에 따라서 모 취업률에 차이가 있어, 부 연령이 35세 이하인 경우 모의 취업률(54.5%)과 맞벌이 비율(5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 연령에 따라서는,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모의 취업률과 맞벌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 학력에 따라, 모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27.5%로 모 취업률이 가장 낮았고, 모 학력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취업률 48.1%, 맞벌이 비율 41.6%로 높았다.

〈표 IV-1-13〉 부모특성별 부모 취업 지표

				단위: %(명)
구분	부 취업률	모 취업률	맞벌이 비율	계(수)
(전체)	94.2	37.1	33.0	100.0(534)
부연령				
35세 이하	93.9	54.5	51.5	100.0(33)
36세 이하~45세 이상	94.8	34.5	31.7	100.0(310)
46세 이상	93.2	36.9	33.5	100.0(176)
χ^2 (df)	.57(2)	5.17(2) ⁺	5.24(2) ⁺	
모연령				
35세 이하	93.3	32.3	29.2	100.0(300)
36세 이상~45세 이하	94.6	41.5	36.3	100.0(205)
46세 이상	100.0	56.5	56.5	100.0(23)
χ^2 (df)	1.87(2)	8.32(2)*	8.67(2)*	
모학력				
중졸이하	90.8	27.5	24.4	100.0(119)
고졸	95.0	30.2	29.1	100.0(199)
초대졸이상	95.2	48.1	41.6	100.0(209)
χ^2 (df)	3.09(2)	19.79(2)***	12.38(2)**	
모 체류기간				
4년미만	87.5	25.0	25.0	100.0(32)
4년이상 7년미만	92.4	27.6	23.7	100.0(225)
7년이상 10년미만	95.0	43.8	40.0	100.0(121)
10년 이상	97.3	47.0	43.0	100.0(149)
χ^2 (df)	6.61(3) ⁺	19.41(3)***	19.11(3)***	
모 출신국				
한국	100.0	66.7	33.3	100.0(3)
중국(조선족)	96.4	38.1	33.3	100.0(84)
중국(한족)	95.6	28.6	28.1	100.0(91)
일본	98.1	32.7	32.7	100.0(104)
필리핀	88.9	55.6	44.4	100.0(54)
베트남	91.7	28.1	24.8	100.0(121)
몽골	90.3	77.4	60.0	100.0(31)
기타	93.5	34.8	32.6	100.0(46)
χ^2 (df)	-	38.66(7)***	17.78(7)*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85.6	36.0	25.8	100.0(125)
150 ~250 미만	96.0	34.1	32.0	100.0(249)
250만원 이상	100.0	44.0	43.3	100.0(141)
모름/무응답	84.2	31.6	15.8	100.0(19)
χ^2 (df)	30.50(3)***	4.10(3)	12.287(3)**	

주: 일부 모 출신국별 교차분석은 사례수가 적은 셀로 인해 적용하지 않음.

모 체류기간이 길수록 모의 취업률과 맞벌이 비율이 높았으며, 모 출신국에 따라서는, 필리핀과 몽골 모의 취업률과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취업률과 맞벌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과 월가구소득, 모 출신국과 체류기간 등이 취업률과 맞벌이여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13). 아동 특성인 아동의 연령과 및 성별에 따라서 부모의 취업 현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국적 및 입국, 체류

조사대상 부모의 출신국(민족)은 아버지의 대부분(92.0%)이 한국인이었으며, 몽골 2.5%, 조선족 2.1%, 중국한족 1.7%, 필리핀 0.8%였다. 이와는 달리 어머니는 0.8%만이 한국인으로, 중국 출신이 32.7%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한족 17.1%, 조선족 15.6%였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 출신이 22.7%, 일본 19.4%, 필리핀 10.2%, 몽골 5.6%였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대만, 미얀마와 같은 기타 국가 출신은 8.6%였다(표 IV-1-14).

부모의 현재 국적은 부의 93.5%가 한국이었으며 중국 2.4%, 몽골 2.5%, 필리핀 0.8%였다. 모는 45.7%가 한국, 일본 19.0%, 베트남 10.2%, 중국 9.5%, 기타 7.2%, 몽골 4.4%, 필리핀 4.0%이었다. 부의 1.5%만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과 달리 모는 44.9%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일본출신 모의 경우는 단 0.4%만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체류기간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 10년 이상이 45.0%로 가장 많았고, 모의 경우는 42.7%가 4년~7년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1-14〉 부모의 출신국 및 국적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출신국(민족)		
(전체)	100.0(523)	100.0(534)
한국	92.0	0.6
중국-한족	1.7	17.0
중국-조선족	2.1	15.7
일본	-	19.5
필리핀	0.8	10.1
베트남	-	22.7
몽골	2.5	5.8
기타	1.0	8.6
현재국적		
(전체)	100.0(523)	100.0(527)
한국	93.5	45.7
중국-한족	1.1	7.4
중국-조선족	1.3	2.1
일본	-	19.0
필리핀	0.8	4.0
베트남	-	10.2
몽골	2.5	4.4
기타	0.8	7.2
한국체류기간		
(전체)	100.0(40)	100.0(525)
4년 미만	22.5	6.1
4년이상 ~ 7년미만	12.5	42.7
7년이상 ~ 10년미만	20.0	23.0
10년이상	45.0	28.2

부모의 출신국이 외국인 경우 입국 목적을 살펴보면(표 IV-1-15), 부의 경우 결혼을 위해 입국한 경우가 2.4%인 반면 모의 경우는 77.2%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그 밖에 부의 51.2%가 취업, 22.0%가 기타, 9.8%가 연수, 7.3%가 유학, 7.3%가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며, 모는 6.5%가 취업, 4.4%가 유학, 4.2%가 관광, 기타 4.0%, 연수 3.6%였다.

부모의 입국시 비자는 입국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는 7.1%가 한국인 배우자(F-1, F-2, F-3)로 입국하였으며, 영주(F-5) 28.6%, 비전문 취업(E-9) 16.7%, 방문취업(H-2) 19.0%, 산업연수(D-3) 9.5%, 그 외 취업(E-1~E-8, H-1, C-4) 4.8%로 입국하였으며 입국시 비자 종류를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7.1%였다. 모는

77.4%가 한국인 배우자(F-1, F-2, F-3)로 입국하였으며, 비전문 취업(E-9) 1.5%, 방문취업(H-2) 2.9%, 산업연수(D-3) 2.5%, 그 외 취업(E-1~E-8, H-1, C-4) 1.3%, 기타 8.4%,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0.2%,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5.7%였다(표 IV-1-15).

〈표 IV-1-15〉 부모 입국 목적 및 비자

구분	단위: %(명)	
	아버지	어머니
입국목적		
(전체)	100.0(41)	100.0(523)
결혼	2.4	77.2
취업	51.2	6.5
연수	9.8	3.6
유학	7.3	4.4
관광	7.3	4.2
기타	22.0	4.0
입국시 비자		
(전체)	100.0(42)	100.0(522)
한국인배우자(F-1, F-2, F-3)	7.1	77.4
비전문취업(E-9)	16.7	1.5
방문취업(H-2)	19.0	2.9
산업연수(D-3)	9.5	2.5
그외 취업(E-1~E-8, H-1, C-4)	4.8	1.3
영주(F-5)	28.6	-
기타	7.1	8.4
없음	-	0.2
모름	7.1	5.7
현재 체류비자		
(전체)	100.0(32)	100.0(293)
한국인배우자(F-1, F-2, F-3)	25.0	57.3
비전문취업(E-9)	9.4	0.3
방문취업(H-2)	12.5	2.0
산업연수(D-3)	-	-
그외 취업(E-1~E-8, H-1, C-4)	2.4	0.7
영주(F-5)	7.1	32.1
기타	21.4	2.7
없음	9.5	1.4
모름	-	3.4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부모의 현재 비자를 살펴보면 (표 IV-1-15), 부의 경우 25.0%가 한국인배우자(F-1, F-2, F-3), 21.4%가 기타, 9.4%가 비전문취업(E-9), 7.1%가 영주(F-5), 12.5%가 방문취업(H-2) 비자로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 비자 없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부는 9.5%였다. 모의 경우 47.3%가 한국인배우자(F-1, F-2, F-3), 32.1%가 영주(F-5), 2.0%가 방문취업(H-2), 0.7%가 그 외 취업(E-1~E-8, H-1, C-4)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비자가 없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모는 1.4%였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4%였다.

모의 원가족 한국거주 여부에 대해서 68.5%가 한국에 원가족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31.5%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하였다(표 IV-1-16).

〈표 IV-1-16〉 모의 원가족 한국거주 여부

단위: %(명)

유형	한국 거주 가족 있음	한국 거주 가족 없음	계(수)
	31.5	68.5	100.0(534)

〈표 IV-1-17〉 아동의 현재 국적 및 중도입국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아동의 현재 국적		아동의 중도입국 여부	
(전체)	100.0(534)	(전체)	100.0(534)
한국	74.3	중도입국	8.6
중국	2.7	한국출생	91.4
일본	0.2	중도입국아동 체류기간	
필리핀	0.6	(전체)	100.0(46)
베트남	0.6	중도입국 후 1년미만	8.7
몽골	2.6	1년 이상 2년미만	19.6
기타	0.9	2년이상 3년미만	19.6
이중국적	18.2	3년이상	52.2

아동의 현재 국적을 살펴보면(표 IV-1-17) 한국이 7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중국적이 18.2%였다. 아동의 중도 입국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6%가 중도입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아동의 체류기간은 중도입국 후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아동이 52.2%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이 19.6%, 1년 이상 2년 미만이 16.9%, 중도 입국 후 1년이 안된 아동은 8.7%였다.

라. 서비스 이용

연구대상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특성으로 육아지원기관 및 공공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표 IV-1-18), 0.9%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동이 현재 일정하게 다니고 있는 기관이 있었다. 어린이집이 62.7%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 24.0%, 초등학교 11.6%, 반일제 이상 학원 0.4%, 종교기관 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이용기관을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취업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8〉 아동이 현재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

구분	단위: %(명)							계(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반일제이상)	선교원 종교기관	기타 (반일제이상)	없음	
(전체)	62.7	24.0	11.6	0.4	0.2	0.2	0.9	100.0(534)
아동연령								
만2세	91.7	4.2	-	-	-	-	4.2	100.0(24)
만3세	80.1	17.1	-	0.7	-	-	2.1	100.0(146)
만4세	72.3	26.4	-	-	0.7	-	0.7	100.0(148)
만5세	62.3	36.0	0.9	-	-	0.9	-	100.0(114)
만6세	23.1	28.2	47.4	1.3	-	-	-	100.0(78)
만7세이상	-	-	100.0	-	-	-	-	100.0(24)
모취업여부								
미취업모	63.7	23.2	10.7	0.6	0.3	0.3	1.2	100.0(336)
취업모	61.1	25.3	13.1	-	-	-	0.5	100.0(198)
가구소득								
150미만	65.6	20.0	13.6	-	-	-	0.8	100.0(125)
150-250	63.9	22.1	12.0	0.4	-	0.4	1.2	100.0(249)
250이상	58.2	29.8	9.9	0.7	0.7	-	0.7	100.0(141)
모름/무응답	63.2	31.6	5.3	-	-	-	-	100.0(19)

아동이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 IV-1-19), 특정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없다는 경우가 80.4%로 가장 많았으며, 18.8%는 있다, 0.8%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기관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교사와의 심층면담,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한글교육/학습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표 IV-1-19〉 기관별 다문화아동대상 프로그램 제공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있음	없음	모름	
(전체)	18.8	80.4	0.8	100.0(528)
자녀이용 기관				
어린이집	16.2	83.2	0.6	100.0(333)
유치원	14.8	84.4	0.8	100.0(128)
초등학교	41.0	57.4	1.6	100.0(61)
(반일제이상)학원	-	100.0	-	100.0(2)
선교원/종교기관	100.0	-	-	100.0(1)
기타	-	100.0	-	100.0(1)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면담, 행사, 모임 등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IV-1-20), 반드시 참여한다는 비율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 참여한다 38.5%, 참여하지 않는다 12.0%로 나타나, 조사대상 다문화 어머니의 자녀 육아지원기관행사에의 참여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45.6%가 취업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가 없어서 29.4%, 기타 17.6%, 교사와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0〉 아동의 기관 행사에 대한 부모의 참여

행사참여	단위: %(명)	
	참여	참여하지 않는 이유
반드시 참여	49.5	정보가 없어서 29.4
가끔 참여	38.5	교사와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7.4
참여 안함	12.0	취업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45.6
		기타 17.6
계(수)	100.0(527)	계(수) 100.0(6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역사회 복지관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표 IV-1-21), ‘아동’의 경우 다문화·외국인 아동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를 사용하여 학습지, 학원, 언어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살펴보았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55.1%로 과반수를 넘었고, 한 가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32.2%, 두 가지 9.9%, 세 가지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2.8%였다.

한편, '부모'의 경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언어교육,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와 아버지나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표 IV-1-21),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29.0%였으며 한 가지 이용이 36.3%, 두 가지 19.7%, 세 가지 이상이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아동 44.9%, 부모 71.0%, 평균이용횟수 아동 0.6개, 부모 1.21개로 다문화아동에 비해 부모의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1〉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개, %(명), 점

구분	이용안함	한가지	두가지	세가지 이상	평균	계(수)
아동	55.1	32.2	9.9	2.8	0.6	100.0(534)
부모	29.0	36.3	19.7	15.0	1.21	100.0(534)

공공서비스 이용(표 IV-1-22)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96.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3.6%만이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센터 이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점이 알려지기 싫다 10사례(43.5%), 외출하는 것을 싫어한다 3사례(13.0%), 기타 의견⁸⁾이 10사례(43.5%)였다.

〈표 IV-1-22〉 공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의 태도

단위: %(명)

부의 태도	공공서비스 이용 반대 이유	
찬성	96.4	다문화가족이라는 점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반대	3.6	외출하는 것을 싫어해서
		기타
계(수)	100.0(522)	계(수)
		100.0(23)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가 어떠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표 IV-1-23), 모 출신국에 따라 아동과 부모의 공공서비스 이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본, 몽골 출신 모의 아동들이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아동이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은

8) 센터이용을 반대하는 이유의 기타 의견으로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싫어한다, 살림에 소홀하다 등이 있었다.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기타 국가 출신 모의 아동과 필리핀, 베트남 출신 모의 아동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공공서비스 이용 역시 모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조선족 모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7.6%로 다른 국가 출신의 모에 비해 높았다. 일본 모의 경우, 아동의 공공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았던 것과 같이 부모의 공공서비스 이용 비율도 높았다.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골 출신 모의 경우 모두 67%~78%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특히 세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일본 20.4%, 필리핀 20.4%로 가장 높았다.

〈표 IV-1-23〉 모 출신국별 공공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모 출신국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				계(수)	$\chi^2(df)$
		이용안함	한가지	두가지	세가지 이상		
아동	한국	33.0	66.7	-	-	100.0(3)	-
	중국(조선족)	54.8	32.1	9.5	3.6	100.0(84)	
	중국(한족)	51.6	36.3	9.9	2.2	100.0(91)	
	일본	35.6	44.2	13.5	6.7	100.0(104)	
	필리핀	61.1	29.6	3.7	5.6	100.0(54)	
	베트남	68.6	24.8	6.6	-	100.0(121)	
	몽골	46.7	30.0	23.3	-	100.0(31)	
	기타	71.7	17.4	10.9	-	100.0(46)	
부모	한국	66.7	33.0	-	-	100.0(3)	35.9(21)*
	중국(조선족)	47.6	27.4	15.5	9.5	100.0(84)	
	중국(한족)	22.0	41.8	20.9	15.4	100.0(91)	
	일본	26.0	31.7	21.2	21.2	100.0(104)	
	필리핀	27.8	35.2	16.7	20.4	100.0(54)	
	베트남	30.6	37.2	20.7	11.6	100.0(121)	
	몽골	32.3	41.9	16.1	9.8	100.0(31)	
	기타	8.7	47.8	26.1	17.4	100.0(46)	

주: 아동 교차분석은 사례수가 적은 셀로 인해 적용하지 않음.

* p <.05

아동의 서비스 이용의 경우(표 IV-1-24) 아동의 연령, 모의 연령, 모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 아동의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최

약계층집단에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4〉 아동의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의 차이

단위: %(명)

구분	공공서비스 이용여부				계(수)	χ^2 (df)
	이용안함	한가지	두가지	세가지 이상		
아동연령						
만2세	79.2	16.7	4.2	-	100.0(24)	47.97(15)***
만3세	65.8	28.1	4.8	1.4	100.0(146)	
만4세	58.8	33.1	6.8	1.4	100.0(148)	
만5세	43.0	36.8	15.8	4.4	100.0(114)	
만6세	46.2	30.8	19.2	3.8	100.0(78)	
만7세이상	29.2	30.0	87.3	2.8	100.0(24)	
모연령						
35세 이하	59.3	31.7	8.0	1.3	100.0(300)	14.13(6)*
36~45세	50.2	32.7	12.7	4.4	100.0(205)	
46세 이상	34.8	43.5	13.0	8.7	100.0(23)	
모학력						
중졸이하	69.2	22.5	7.5	0.8	100.0(120)	14.44(6)*
고졸	53.3	34.7	9.0	3.0	100.0(199)	
초대졸이상	49.0	35.2	11.9	3.8	100.0(21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64.8	28.0	4.8	2.4	100.0(125)	18.49(6)*
150~250만원	48.6	34.9	12.9	3.6	100.0(249)	
250만원이상	53.9	34.0	9.9	2.1	100.0(141)	

* p <.05, *** p <.001.

2.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가. 주 양육자

다문화아동의 양육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아동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표 IV-2-1), 모가 85.4%로 가장 많았으며 친조부모 5.2%, 부 3.7%, 외조부모 2.4%로 나타났다. 아동이 혼자 지낸다고 답한 비율은 0.6%였다.

자녀의 연령별 주 양육자 차이는 없었으나 모 취업여부와 모의 원가족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 취업모인 경우 어머니 본인 75.6%로 친·외 조부모 14.8%, 부 7.1%로 가족의 주양육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모의 원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조부모에게 양육을 의존하는 경우가 6.0%로, 조부모 양육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IV-2-1〉 아동의 주 양육자

단위: %(명)

구분	부	모	친조 부모	외조 부모	부모 형제자매	비혈연	혼자 지냄	기타	계(수)
(전체)	3.7	85.4	5.2	2.4	1.3	0.2	0.6	0.7	100.0(534)
가족 유형									
결혼이민자	3.5	87.4	5.1	1.4	1.0	0.2	0.6	0.6	100.0(491)
외국인근로자	6.5	67.4	6.5	13.0	4.3	-	-	2.2	100.0(43)
모취업여부									
미취업모	1.8	91.6	1.8	1.8	1.2	0.3	0.9	0.6	100.0(335)
취업모	7.1	75.6	11.2	3.6	1.5	-	-	1.0	100.0(197)
모 원가족 한국거주여부									
한에가족있음	2.4	82.7	7.1	6.0	0.6	-	-	1.2	100.0(168)
한에가족없음	4.4	87.1	4.4	0.8	1.6	0.3	0.8	0.5	100.0(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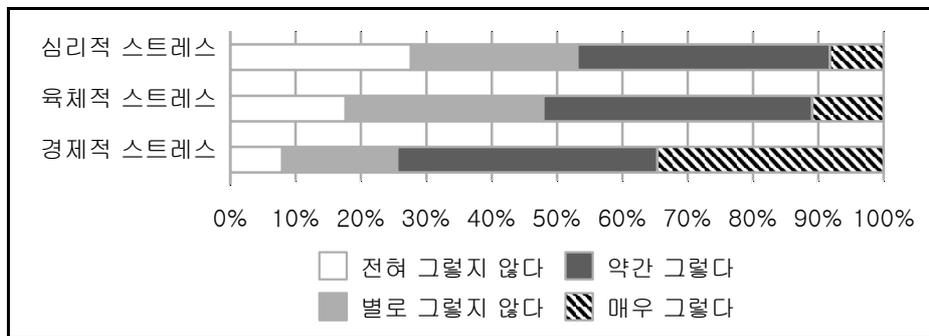
나. 모의 양육스트레스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 모 스스로 평정한 것으로(표 IV-2-2), 4점 척도 3개 항목 총점 평균 7.73, 4점 평균 2.58점으로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해 우리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의 양육효능감에 해당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3개 영역 스트레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의 육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교육 비용이 부담스럽다’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의 순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4.3%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어 다문화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이 자녀양육에 반영되었음이며, 3개 영역 스트레스에 ‘그렇다(약간+매우)’는 긍정응답이 각 46.6% 51.9%, 73.8%로 나타나 과반 이상의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느낌을 알 수 있다.

〈표 IV-2-2〉 모의 양육스트레스

단위: %(명),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치	계(수)	평균 (표준편차)
양육스트레스(전체)						100.0(534)	2.58(0.69)
심리적 스트레스	27.5	25.3	38.4	8.2	0.6	100.0(534)	2.27(0.96)
육체적 스트레스	17.6	30.1	41.0	10.9	0.4	100.0(534)	2.45(0.91)
경제적 스트레스	7.9	17.4	39.5	34.3	0.9	100.0(534)	3.01(0.92)



[그림 IV-2-1] 모의 양육스트레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인의 파악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지지 및 서비스 이용의 특성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IV-2-3~5).

우선 거주지역 및 가족유형과 같은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표 IV-2-3), 거주지역별로 모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서울/경상 지역의 모 스트레스가 경기/충청/전북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영역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도농 지역구분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유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족에 비해 결혼이민자가족의 모가 체감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표 IV-2-3), 취학전 만2세에서 5세로 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줄다가, 자녀가 취학하면서 다시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U자형의 변화를 보인다. 다문화아동의 영아기와 취학직후 초등 1~2학년 시기의 모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아동 성별로는 여아를 둔 모에 비해 남아를 둔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2-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 비교

단위: 점

구분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평균(표준편차)	계(수)
(전체)	2.27	2.45	3.01	2.58(0.69)	100.0(534)
거주지역					
서울	2.31	2.59	3.09	2.66(0.65)	100.0(126)
경기/충청	2.11	2.35	2.99	2.48(0.67)	100.0(186)
경상	2.52	2.55	3.09	2.71(0.66)	100.0(112)
전라	2.27	2.36	2.86	2.50(0.75)	100.0(103)
F	4.48**	2.53†	1.54	3.72*	
가족유형					
결혼이민자가족	2.29	2.49	3.01	2.59(0.68)	100.0(491)
외국인근로자가족	2.09	2.11	3.02	2.41(0.68)	100.0(43)
t	1.39	2.71**	-0.08	1.78†	
아동 연령					
만2세	2.42	2.83	3.26	2.84(0.78)	100.0(23)
만3세	2.42	2.54	3.08	2.67(0.70)	100.0(144)
만4세	2.3	2.42	2.96	2.56(0.68)	100.0(147)
만5세	2.11	2.32	2.86	2.42(0.67)	100.0(111)
만6세	2.1	2.45	3.05	2.53(0.60)	100.0(78)
만7세 이상	2.42	2.38	3.29	2.69(0.74)	100.0(24)
F	2.12†	1.68	1.70	2.67*	
아동 성별					
남아	2.31	2.49	3.01	2.60(0.69)	100.0(283)
여아	2.23	2.41	3.01	2.55(0.68)	100.0(244)
t	.99	1.1	-.02	.99	

+ p <.10, * p <.05

부모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조사한 결과(표 IV-2-4), 우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경제적 양육스트레스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외벌이가족 보다는 맞벌이가족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경제적 양육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IV-2-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구분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평균(표준편차)	계(수)
(전체)	2.27	2.45	3.01	2.58(0.69)	100.0(534)
소득					
150만원 미만	2.33	2.49	3.1	2.64(0.77)	100.0(123)
150~250만원 미만	2.29	2.45	3.12	2.61(0.64)	100.0(246)
250만원 이상	2.18	2.41	2.78	2.45(0.66)	100.0(139)
모름/무응답	2.47	2.53	2.79	2.59(0.77)	100.0(19)
F	0.88	0.19	4.95**	2.11†	
맞벌이 여부					
외벌이	2.34	2.50	3.02	2.62(0.70)	100.0(353)
맞벌이	2.15	2.36	2.98	2.49(0.64)	100.0(171)
t	2.16*	1.67†	0.51	1.97*	
모 학력					
중졸이하	2.48	2.58	3.02	2.69(0.72)	100.0(118)
고졸	2.28	2.39	2.90	2.53(0.71)	100.0(198)
초대졸 이상	2.13	2.43	3.10	2.55(0.64)	100.0(207)
F	5.14**	1.69	2.37†	2.45†	
모 출신국					
한국	1.75	2.00	2.75	2.17(0.88)	100.0(3)
중국-조선족	2.20	2.33	2.89	2.47(0.67)	100.0(82)
중국-한족	2.45	2.57	3.16	2.72(0.71)	100.0(90)
일본	2.21	2.42	3.07	2.57(0.60)	100.0(103)
필리핀	1.96	2.41	2.89	2.42(0.64)	100.0(54)
베트남	2.53	2.60	3.03	2.72(0.68)	100.0(118)
몽골	2.21	2.20	3.07	2.48(0.69)	100.0(29)
기타	1.98	2.41	2.87	2.42(0.79)	100.0(45)
F	3.48**	1.42	0.94	2.69*	
모 체류기간					
4년미만	2.31	2.56	3.00	2.60(0.81)	100.0(30)
4~7년미만	2.36	2.48	3.02	2.62(0.71)	100.0(222)
7~10년미만	2.09	2.45	2.95	2.50(0.65)	100.0(119)
10년이상	2.26	2.39	3.05	2.57(0.63)	100.0(149)
F	2.13†	0.45	0.26	0.84	

+ p < .10, * p < .05, ** p < .01

부모 학력에 의하면, 모 학력이 낮을수록 특히 중졸이하의 저학력일수록 모의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난 가운데, 역으로 경제적 양육스트레스의 경우는 고학력일수록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을 고려하면, 대체로 부 학력이 높을수록 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부모 연령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 출신국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IV-2-4), 대체로 중국 한족과 베트남 출신의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의 순이었다. 모의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즉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측면에서 유의하게 그러하였다.

〈표 IV-2-5〉 사회적지지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구분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평균(표준편차)	계(수)
(전체)	2.27	2.45	3.01	2.58(0.68)	100.0(534)
모 원가족거주여부					
없음	2.27	2.49	3.03	2.60(0.68)	100.0(361)
있음	2.28	2.37	2.97	2.54(0.69)	100.0(166)
t	-.11	1.45	.70	.88	
도움을 주는사람여부					
없음	2.43	2.86	3.33	2.87(0.65)	100.0(21)
있음	2.27	2.44	3.00	2.57(0.68)	100.0(506)
t	.75	2.09*	1.65	2.02*	
(모)공공서비스이용여부					
이용안함	2.17	2.27	2.89	2.44(0.66)	100.0(154)
한가지 이용	2.32	2.53	3.07	2.64(0.69)	100.0(193)
두가지 이용	2.30	2.53	3.07	2.63(0.70)	100.0(103)
세가지 이상	2.35	2.51	3.04	2.63(0.67)	100.0(77)
F	.96	2.91*	1.30	2.86*	

* p <.05

다문화가족 모의 사회적지지의 네트워크와 모의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IV-2-5), 대체로 모의 원가족이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응답된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지각하고 응답한 경우에는 응답하지 못 한 어머니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지원체계를 이룸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모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라서도 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었다. 공공서비

스를 한 가지라도 이용하는 어머니의 육체적, 전반적 양육스트레스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모의 양육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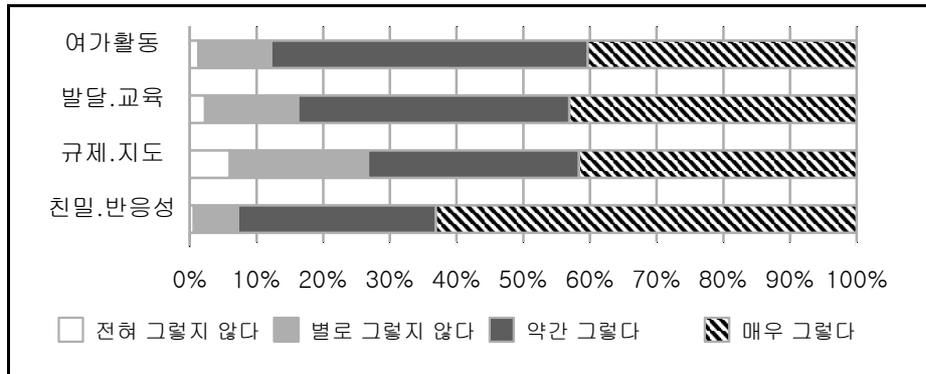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할 때 모가 행하는 행동양식에 대해 모 스스로 4개 영역 11개의 문항에 대해 4점 평정한 것이다.

〈표 IV-2-6〉 모의 양육행동

						단위: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	계(수)	평균 (표준편차)
양육행동(전체)						100.0(534)	3.26(0.38)
여가활동 영역							3.27(0.70)
함께 놀아주기	1.3	10.9	47.4	40.3	0.2	100.0(533)	3.27(0.70)
발달·교육 영역							3.25(0.47)
책읽기	3.7	15.0	49.3	31.6	0.4	100.0(532)	3.09(0.78)
자율적 행동	4.3	14.8	43.3	37.5	0.2	100.0(533)	3.14(0.82)
모르는것 설명	1.1	14.0	39.5	44.9	0.4	100.0(532)	3.29(0.75)
공부 가르치기	1.9	19.9	37.6	40.4	0.2	100.0(533)	3.17(0.81)
칭찬하기	0.7	6.0	32.6	60.3	0.4	100.0(533)	3.61(1.87)
규제·지도 영역							3.10(0.48)
기본생활습관	0.6	4.3	26.4	68.5	0.2	100.0(533)	3.63(0.59)
체벌 훈육	9.2	44.0	30.0	16.5	0.4	100.0(532)	2.54(0.88)
규율·제한두기	8.1	13.5	38.2	39.5	0.7	100.0(530)	3.10(0.92)
친밀·반응성영역							3.56(0.53)
매일 애정표현	0.6	4.3	21.2	74.0	-	100.0(534)	3.69(0.58)
대화 나누기	0.6	8.8	38.2	52.1	0.4	100.0(532)	3.42(0.68)

그 결과 총점 평균 35.89점, 4점 평균 3.26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양육행동을 여가활동(1문항), 발달·교육(5문항), 규제·지도(3문항), 친밀감·반응성(2문항)의 4개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로 4개 영역에의 양육행동이 '약간 그런편이다(3점)'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이에게 애정표현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친밀감·반응성의 양육행동점수가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기본생활습관을 가르치고 TV 시청, 게임 시간 등에 관한 규율을 지키게 하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체벌하는 등의 규제·지도의 영역에서는 양육행동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별항목별

로 살펴보면, '잘못했을 때 때린다'의 체벌 항목에서 4점 평균 2.54점으로 가장 낮게, '아이에게 매일 애정표현을 한다(N=534)의 친밀감 항목에서 4점 평균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2-6).



[그림 IV-2-2] 모의 양육행동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의 파악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지지 및 서비스 이용의 특성에 따른 모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IV-2-7~9).

우선 거주지역 및 가족유형과 같은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표 IV-2-7), 거주지역별로 모 양육행동에 다소 차이가 있어 '아이와 놀아준다'의 여가활동 양육행동에서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보다는 경상/전북 지역의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상대적으로 많이 놀아주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여,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여가활동 양육행동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가족유형(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에 따른 모 양육행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연령에 의하면, 부의 나이가 젊은 가정일수록 대체로 여가활동 및 친밀·반응성의 모 양육행동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모 연령에 의하면, 모 연령이 35세 미만의 젊은 가정이 36~45세 미만의 모 연령 가정에 비해 모의 여가활동 양육행동이 많고 규제·지도의 양육행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모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 IV-2-7), 여가활동영역의 경우 만2~4세아를 둔 다문화 어머니들이 만5~7세아를

둔 어머니들보다 자녀와 더 놀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지도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친밀·반응성의 영역에서 여아를 둔 모가 남아를 둔 모에 비해 애정표현과 대화를 나누는 반응적 양육행동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행동

단위: 점, %(명)

구분	여가활동	발달·교육	규제·지도	친밀·반응성	평균(SD)	계(수)
(전체)	3.27	3.25	3.10	3.56	3.26(0.38)	100.0(534)
거주지역						
서울	3.20	3.24	3.09	3.54	3.25(.41)	100.0(127)
경기/충청	3.21	3.23	3.12	3.53	3.26(.38)	100.0(180)
경상	3.36	3.21	3.12	3.58	3.26(.35)	100.0(111)
전라	3.37	3.32	3.04	3.58	3.30(.36)	100.0(101)
F	2.24†	1.13	.63	.25	.38	
지역규모						
도시	3.24	3.25	3.10	3.55	3.26(.38)	100.0(436)
농촌	3.39	3.24	3.07	3.58	3.27(.36)	100.0(83)
t	-1.78†	.12	.52	-.50	-.27	
모 연령						
35세 이하	3.33	3.28	3.05	3.60	3.28(.38)	100.0(290)
36~45세미만	3.17	3.22	3.17	3.50	3.25(.36)	100.0(202)
46세 이상	3.35	3.11	3.12	3.52	3.21(.42)	100.0(23)
F	3.59*	2.01	3.51*	2.31	.75	
아동 연령						
만2세	3.29	3.18	2.82	3.50	3.15(.54)	100.0(24)
만3세	3.41	3.28	3.06	3.64	3.29(.33)	100.0(141)
만4세	3.34	3.30	3.11	3.60	3.31(.38)	100.0(143)
만5세	3.16	3.21	3.12	3.47	3.23(.38)	100.0(111)
만6세	3.05	3.13	3.13	3.46	3.18(.37)	100.0(77)
만7세 이상	3.13	3.31	3.28	3.52	3.33(.35)	100.0(23)
F	3.89*	1.75	2.64*	2.08†	2.07†	
아동 성별						
남아	3.24	3.22	3.09	3.50	3.24(.38)	100.0(276)
여아	3.30	3.27	3.11	3.62	3.29(.38)	100.0(243)
t	-.83	-1.19	-.44	-2.65**	-1.56	

+ p <.10, * p <.05, ** p <.01

부모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모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IV-2-8),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규제·지도영역의 모 양육행동이 상대적으로 많아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구소득이 적은 다문화가족일수록 기본생활습관의 훈련과 행동양식에 규율과 약속을 정하는 모 양육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부모의 맞벌이여부에 따라서는 모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2-8〉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모 양육행동

단위: 점

구분	여가활동	발달·교육	규제·지도	친밀 반응성	평균(SD)	계(수)
(전체)	3.27	3.25	3.10	3.56	3.26(0.38)	100.0(534)
가구소득						
150만원미만	3.27	3.20	3.04	3.51	3.21	100.0(120)
150~250만원	3.30	3.28	3.10	3.57	3.29	100.0(243)
250만원이상	3.18	3.24	3.17	3.56	3.27	100.0(138)
F	1.17	1.18	3.28*	.45	1.87	
모 학력						
중졸이하	3.30	3.16	2.97	3.49	3.18(.41)	100.0(118)
고졸	3.34	3.28	3.08	3.59	3.28(.38)	100.0(193)
초대졸이상	3.20	3.27	3.18	3.57	3.29(.35)	100.0(205)
F	2.11	2.53†	7.83*	1.30	3.79*	
모 출신국						
한국	3.25	3.40	3.25	3.50	3.36(.33)	100.0(3)
중국·조선족	3.28	3.30	3.06	3.59	3.28(.35)	100.0(81)
중국·한족	3.26	3.26	3.00	3.57	3.25(.39)	100.0(89)
일본	3.01	3.11	3.21	3.39	3.17(.38)	100.0(102)
필리핀	3.35	3.42	3.19	3.76	3.42(.30)	100.0(51)
베트남	3.46	3.20	3.01	3.59	3.25(.43)	100.0(116)
몽골	2.97	3.29	3.11	3.67	3.27(.27)	100.0(29)
기타	3.46	3.30	3.19	3.45	3.31(.37)	100.0(46)
F	4.96***	2.79**	2.61*	3.39***	2.24*	
모 체류기간						
4년미만	3.53	3.37	3.02	3.77	3.36(.33)	100.0(31)
4~7년미만	3.38	3.28	3.05	3.58	3.28(.40)	100.0(215)
7~10년미만	3.30	3.30	3.11	3.61	3.30(.34)	100.0(119)
10년이상	3.04	3.13	3.17	3.43	3.19(.38)	100.0(148)
F	9.03***	4.36**	2.28†	5.10**	3.33*	
모 종교여부						
없음	3.26	3.28	3.01	3.57	3.26(.40)	100.0(162)
있음	3.27	3.23	3.14	3.55	3.26(.37)	100.0(357)
t	-.24	1.27	-2.92**	.59	-.20	

+ p <.10, * p <.05, ** p <.01, *** p <.001

부모 학력에 의하면(표 IV-2-8), 모 학력이 높을수록 모가 발달·교육과 규제·

지도의 영역 및 전반적인 긍정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 학력이 중졸이하의 저학력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다른 부 학력 집단에 비해 모의 여가활동 및 친밀·반응성 양육행동이 좀 더 많고 부 학력이 높을수록 모의 규제·지도 양육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모 출신국에 따른 모 양육행동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여, 함께 놀아 주는 여가활동의 경우 베트남, 필리핀의 모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몽골과 일본의 모가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발달·교육의 양육 행동에서는 (한국 모를 제외하고) 필리핀 모가 가장 많이, 상대적으로 일본과 베트남의 모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도의 양육행동에서는 (한국 모를 제외하고) 일본과 필리핀 모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 한족과 베트남, 그리고 조선족 가정에서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반응성의 영역에서는 필리핀 모가 가장 많이 애정표현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일본 모는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긍정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필리핀과 한국, 기타 국적 모의 양육행동이 가장 많았다면 일본 모의 양육행동이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모 응답에 의해 조사되었다.

모 체류기간이 적을수록 여가활동과 발달·교육, 전반적인 긍정 양육행동이 많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모 체류기간이 길수록 규제·지도의 양육행동이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아동 및 모의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 종교여부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모 양육행동에 차이가 없는 가운데, 종교가 있는 모의 규제·지도 양육행동이 종교가 없는 모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8).

다문화가족 모의 사회적지지 네트워크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모의 원가족이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모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의 사회적 지지여부에 따른 모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V-2-9), 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규제·지도영역의 모 양육행동이 상대적으로 많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보다도 기본생활습관의 훈련과 행동양식에 규율과 약속을 정하는 모 양육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9〉 사회적 지지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모 양육행동

단위: 점

구분	여가 활동	발달 교육	규제 지도	친밀 반응성	평균(SD)	계(수)
(전체)	3.27	3.25	3.10	3.56	3.26(0.38)	100.0(534)
도움주는사람 여부						
없음	3.14	3.27	2.87	3.64	3.24(.44)	100.0(20)
있음	3.27	3.25	3.10	3.55	3.26(.37)	100.0(499)
t	-.90	.20	-2.19*	.74	-.32	

* p <.05

다문화가족 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표 IV-2-10), 모의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스트레스 간에 그리고 4개 영역 모 양육행동 간에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모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는 4개 영역 양육행동과 일관된 부적 관계를 보여 양육스트레스가 모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모의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모의 4개 양육행동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가 함께 놀아주는 여가활동과 친밀반응의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발달교육의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함께 놀아주고 애정표현과 대화를 많이 하는 모가 자녀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책을 읽어주는 등의 학습지원행동을 함을 알 수 있다.

〈표 IV-2-10〉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심리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여가활동 양육행동	발달·교육 양육행동	규제·지도 양육행동	친밀·반응성 양육행동
심리적	1						
육체적	.33***	1					
경제적	.28***	.35***	1				
여가활동	-.13**	-.09*	-.07	1			
발달·교육	-.18***	-.14**	-.04	.40***	1		
규제·지도	-.11*	-.13**	.01	.19***	.32***	1	
친밀·반응성	-.16***	-.09*	-.06	.39***	.55***	.2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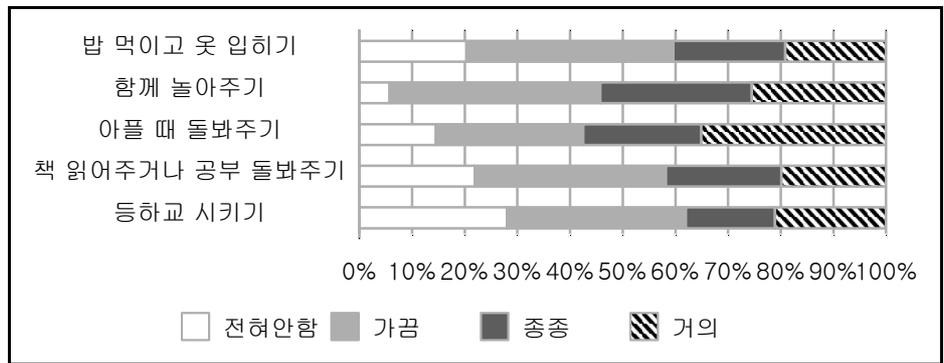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라. 부의 양육참여

〈표 IV-2-11〉는 어머니가 평정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4점 척도 평균 2.52이었다. 양육참여 5가지 항목 중 이플 때 돌봐주기와 함께 놀아주기가 평균 2.78, 2.7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책을 읽어 주거나 공부 돌봐주기 평균 2.40, 밥먹고 옷 입히기 평균 2.39,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시키기가 평균 2.31 순이었다.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시키시가 27.5%로 가장 많고, 함께 놀아주기가 5.6%로 가장 적다. '거의 항상'하는 부의 양육참여는 이플 때 돌봐주기가 3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함께 놀아주기 24.9%,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시키기 20.6%, 책을 읽어 주거나 공부 돌봐주기 19.3%, 밥 먹고 옷 입히기 18.7% 순이었다.

〈표 IV-2-11〉 모가 평정한 부의 양육참여 정도

	전혀 안함	가끔	종종	거의 항상	무응 답	계(수)	단위: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2(0.78)
밥 먹이고 옷 입히기	19.9	38.4	20.8	18.7	2.2	100.0(534)	2.39(1.02)
함께 놀아주기	5.6	39.1	28.1	24.9	2.2	100.0(534)	2.74(0.91)
이플 때 돌봐주기	14.2	27.3	21.9	34.3	2.2	100.0(534)	2.78(1.08)
책을 읽어 주거나 공부 돌봐주기	21.3	35.2	21.3	19.3	2.8	100.0(534)	2.40(1.04)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 등학교 등하교 시키기	27.3	33.1	16.5	20.6	2.4	100.0(534)	2.31(1.10)



[그림 IV-2-3]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족특성을 거주지역, 지역규모, 가족유형으로 나누어 부의 양육참여 정도를 분석한 결과(표 IV-2-12), 가족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정이 평균 2.60점, 결혼이민자가정 평균 2.51점으로 외국인근로자가정 부의 양육참여가 약간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책 읽어주기/공부 돌봐주기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의하게 많았다.

〈표 IV-2-12〉 가족특성에 따른 부의 양육참여

단위: 점

구분	밥맛교 옷 입기	함께 놀이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책읽어주기 /공부 돌봐주기	등학교 시키기	평균 (표준편차)	계(수)
(전체)	2.39	2.74	2.78	2.40	2.31	2.52(0.78)	1000(534)
가족유형							
결혼이민자가정	2.39	2.73	2.76	2.42	2.29	2.51(0.78)	1000(491)
외국인근로자가정	2.48	2.86	3.02	2.57	2.57	2.60(0.78)	1000(43)
t	-0.56	-0.88	-1.53	1.97*	-1.61	-0.72	

부모특성별로 살펴보면(표 IV-2-13),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의 양육참여가 하위범주 모두에서 높으며,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참여가 많아 책 읽어주기 /공부 돌봐주기와 등학교 시키기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의 양육참여가 많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부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등학교 시키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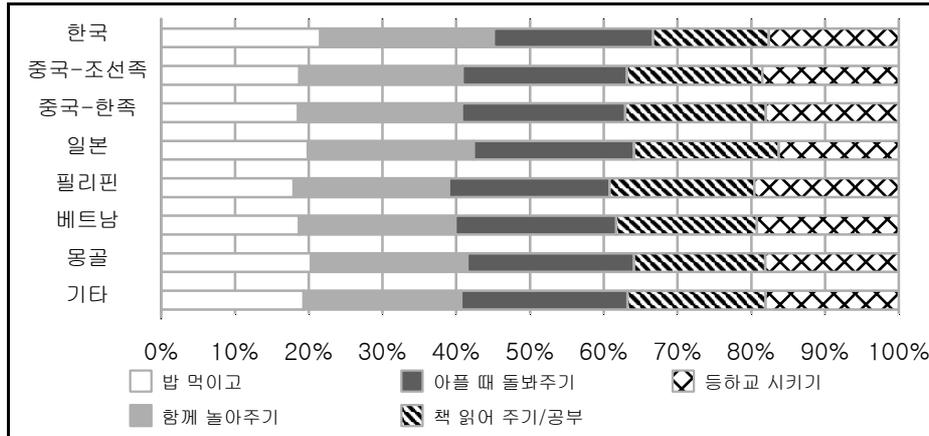
모의 출신국별로 부의 양육참여에 차이가 있어, 베트남(2.80)과 필리핀(2.79)이 가장 높고, 일본(2.17)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베트남, 필리핀 모의 남편의 양육참여가 높고, 일본 모의 경우 부의 양육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모의 체류기간에 의하면,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부의 양육참여가 많았다.

〈표 IV-2-13〉 부모 특성에 따른 부의 양육참여

단위: 점

구분	밥 먹이고 옷 입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책 읽어 주기/공부 봐주기	등·하교 시키기	전체 평균 (표준편차)	계(수)
(전체)	2.39	2.74	2.78	2.40	2.31	2.52(0.78)	
모 연령							
35세 이하	2.58	2.88	2.97	2.55	2.48	2.69(0.77)	100.0(298)
36세~45세 미만	2.18	2.55	2.53	2.19	2.13	2.32(0.75)	100.0(205)
46세 이상	2.00	2.52	2.52	2.17	1.83	2.21(0.71)	100.0(23)
F	11.47***	8.76***	11.02***	7.89***	8.62***	16.16***	
부 학력							
중졸 이하	2.34	2.65	2.69	2.11	2.31	2.41(0.82)	100.0(90)
고졸	2.40	2.70	2.74	2.35	2.24	2.48(0.78)	100.0(273)
초대졸 이상	2.40	2.85	2.89	2.65	2.40	2.64(0.76)	100.0(152)
F	0.13	1.94	1.23	8.44***	1.07***	3.02	
모 학력							
중졸이하	2.49	2.90	2.88	2.52	2.53	2.66(0.86)	100.0(119)
고졸	2.42	2.69	2.80	2.40	2.34	2.53(0.72)	100.0(198)
초대졸 이상	2.33	2.71	2.71	2.34	2.16	2.45(0.79)	100.0(210)
F	1.03	2.23	0.98	1.13	4.47*	2.61	
모 출신국							
한국	2.75	3.00	2.75	2.00	2.25	2.55(0.55)	100.0(3)
중국-조선족	2.21	2.60	2.63	2.16	2.18	2.35(0.71)	100.0(84)
중국-한족	2.34	2.79	2.79	2.40	2.27	2.51(0.79)	100.0(91)
일본	2.16	2.44	2.36	2.13	1.77	2.17(0.67)	100.0(104)
필리핀	2.51	2.94	3.04	2.74	2.74	2.79(0.82)	100.0(54)
베트남	2.63	2.98	3.07	2.68	2.71	2.80(0.77)	100.0(121)
몽골	2.57	2.68	2.86	2.25	2.29	2.53(0.68)	100.0(31)
기타	2.49	2.76	2.91	2.42	2.33	2.58(0.85)	100.0(46)
F	2.50*	3.77**	4.39***	3.93***	7.86***	7.18***	
모 체류기간							
3년 이하	2.61	2.90	3.06	2.48	2.71	2.75(0.87)	100.0(31)
4년~6년	2.60	2.89	2.99	2.56	2.46	2.70(0.74)	100.0(225)
7년~9년	2.34	2.72	2.72	2.43	2.23	2.48(0.79)	100.0(120)
10년 이상	2.09	2.50	2.47	2.14	2.07	2.25(0.75)	100.0(149)
F	8.39***	6.03***	7.94***	4.87**	5.49**	10.89***	

* p <.05, ** p <.01, *** p <.001



[그림 IV-2-4] 모 출신국별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동 특성에 따른 부의 양육참여 정도를 살펴보면(표 IV-2-14), 아동 연령에 따라 부의 양육참여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대체로 5개 하위범주 모두에서 부의 양육참여가 많았다. 즉 자녀가 커갈수록 부의 양육참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여아의 경우 부의 양육참여가 다소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2-14> 아동 특성에 따른 부의 양육참여

단위: 점

구분	밥 먹이고 옷 입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책 읽어 주기/ 공부 봐주기	등하교 시키기	평균 (SD)	(수)
(전체)	2.39	2.74	2.78	2.40	2.31	2.52(0.78)	(534)
아동 연령							
만 2세	2.92	3.17	2.79	2.88	2.91	2.90(0.92)	(23)
만 3세	2.50	2.80	2.87	2.39	2.31	2.58(0.75)	(146)
만 4세	2.42	2.88	2.91	2.39	2.35	2.59(0.80)	(147)
만 5세	2.33	2.63	2.68	2.41	2.34	2.48(0.78)	(114)
만 6세	2.18	2.47	2.66	2.27	2.16	2.35(0.75)	(78)
만 7세이상	1.96	2.48	2.22	2.27	1.83	2.12(0.59)	(24)
F	3.31**	4.09**	2.27*	1.31	2.70*	3.47**	
아동 성별							
남아	2.36	2.70	2.72	2.36	2.28	2.48(0.76)	(285)
여아	2.43	2.79	2.85	2.44	2.35	2.57(0.80)	(247)
t	-0.78	-1.07	-1.33	-0.83	-0.78	-1.31	

* p <.05, ** p <.01

사회적 지원 여부에 따라 부의 양육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IV-2-15),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 평균 1.73, 있는 경우 평균 2.55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부의 양육참여가 더 많았다. 도움을 주는 조력자에 남편(부)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남편을 제외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여부에 따라서도 부의 양육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편을 제외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평균 2.86이고, 있는 경우 평균 2.4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편을 제외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남편의 양육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의 양육참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15〉 사회적 지원 여부에 따른 부의 양육참여

단위: 점

구분	밤낮교 웃 입기	함께 놀이주기	아플 때 돌라주기	책읽어주기 공부 돌라주기	등·하교 시키기	평균 (표준편차)	(수)
도움주는 사람 여부							
없음	1.67	1.86	1.90	1.71	1.52	1.73(.66)	(21)
있음	2.42	2.78	2.82	2.43	2.34	2.55(.77)	(506)
t	-4.22***	-6.20***	-3.94***	-4.01**	-4.45***	-4.80***	
남편제외							
도움주는 사람 여부							
없음	2.66	3.08	3.30	2.69	2.62	2.86(0.72)	(102)
있음	2.33	2.65	2.65	2.32	2.24	2.41(0.78)	(416)
t	3.01**	4.62***	6.21***	3.22**	3.07**	5.23***	
공공서비스 이용 횟수							
이용 안함	2.28	2.70	2.70	2.38	2.23	2.46(0.75)	(154)
1개	2.31	2.73	2.80	2.30	2.31	2.49(0.80)	(194)
2개	2.66	2.78	2.85	2.59	2.38	2.65(0.82)	(104)
3개	2.44	2.78	2.79	2.40	2.38	2.56(0.76)	(80)
F	3.46*	0.21	0.45	1.69	0.52	1.41	

* p <.05, *** p <.001

마. 모의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표 IV-2-16), 4점척도 평균 3.11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하위범주) 중 남편의 폭력이 평균 3.70으로 남편의 폭력이 거의 없는 편이었고, 다음으로 결혼생활 만족은 평균 3.16으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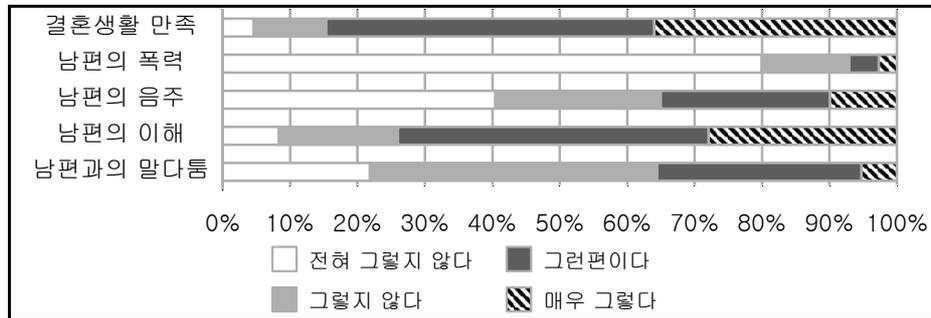
소 만족하는 편이었다면, 남편의 음주와 말다툼은 별로 없는 편에 속한다.

〈표 IV-2-16〉 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534)	3.11(0.53)
결혼생활 만족	4.5	10.5	47.6	35.2	2.2	100.0(534)	3.16(0.79)
남편의 폭력 ¹⁾	78.1	12.7	4.3	2.6	2.2	100.0(534)	3.70(0.68)
남편의 음주 ²⁾	39.5	24.0	24.5	9.7	2.2	100.0(534)	2.95(1.03)
남편의 이해	8.1	17.2	44.9	27.2	2.6	100.0(534)	2.94(0.88)
남편과의 말다툼 ³⁾	21.3	41.6	29.6	5.1	2.4	100.0(534)	2.81(0.83)

주: 1), 2), 3) 역코딩 문항임.



[그림 IV-2-5] 모의 결혼만족도

하위특성별로 모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표 IV-2-17), 가족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외국인근로자가정의 결혼만족도(3.28)가 결혼이민자가정(3.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범주 중 결혼생활 만족과 남편의 이해에서 외국인근로자가정의 모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도농 지역특성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9) 결혼만족도 하위범주 중 남편의 폭력, 남편의 음주, 남편과의 말다툼 항목은 역코딩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음주, 말다툼이 없다는 것을 뜻함.

〈표 IV-2-17〉 가족특성에 따른 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구분	결혼 생활만족	남편의 폭력 ¹⁾	남편의 음주 ²⁾	남편의 이해	남편과의 말다툼 ³⁾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16	3.70	2.98	2.85	2.76	3.11(0.54)	(534)
지역규모							
도시	3.15	3.71	2.93	2.94	2.81	3.11(0.54)	(439)
농촌	3.23	3.65	3.06	2.93	2.82	3.14(0.51)	(83)
t	-0.85	0.74	-1.03	0.10	-0.09	-0.45	
가족유형							
결혼이민자가정	3.14	3.70	2.94	2.91	2.81	3.10(0.54)	(475)
외국인근로자가정	3.41	3.77	3.12	3.23	2.86	3.28(0.55)	(43)
t	-2.18*	-0.67	-1.08	-2.30*	-0.40	-2.18*	

주: 1), 2), 3) 역코딩 문항임.

* p < .05

부모의 특성별로 살펴보면(표 IV-2-18), 부의 연령별로 모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부 연령이 젊을수록 (즉 모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모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이해도가 높고, 남편의 폭력, 음주, 말다툼이 적었다. 부의 학력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부가 고학력일수록 모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이해가 높고, 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남편이 음주를 자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의 학력에 의해서도, 대체로 모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월소득이 많을수록 모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이해가 높고, 남편의 폭력은 드문 경향을 보였다. 모의 출신국에 따라 남편의 폭력이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필리핀과 베트남 모의 경우 남편의 폭력이 다른 출신국 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편의 음주가 잦은 편이었다.

아동의 특성(연령, 성별)별로는 모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2-18〉 부모 특성에 따른 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구분	결혼 생활만족	남편의 폭력 ¹⁾	남편의 음주 ²⁾	남편의 이해	남편과의 말다툼 ³⁾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16	3.70	2.98	2.85	2.76	3.11(0.54)	(534)
부 연령							
35세 이하	3.42	3.84	3.16	3.13	2.78	3.28(0.48)	(32)
36세~45세 미만	3.22	3.75	2.95	3.02	2.90	3.17(0.51)	(305)
45세 이상	3.03	3.59	2.92	2.78	2.66	3.00(0.58)	(175)
F	5.18**	4.26*	0.71	4.68*	4.62*	7.52**	

(표 IV-2-18 계속)

부 학력							
중졸 이하	2.96	3.64	2.73	2.73	2.79	2.97(0.61)	(91)
고졸	3.12	3.72	3.00	2.93	2.78	3.11(0.52)	(270)
초대졸 이상	3.34	3.73	3.01	3.10	2.88	3.21(0.51)	(149)
F	7.27**	0.60	2.75*	5.22*	0.71	5.97*	
모 학력							
중졸이하	3.14	3.61	2.86	2.83	2.69	3.02(0.50)	(117)
고졸	3.20	3.72	3.04	3.03	2.87	3.17(0.51)	(194)
초대졸 이상	3.15	3.73	2.92	2.91	2.82	3.11(0.58)	(207)
F	0.24	1.41	1.17	2.10	1.69	2.77*	
모 출신국							
한국	3.50	4.00	3.50	2.75	3.25	3.40(0.37)	(3)
중국-조선족	3.06	3.79	3.00	2.95	2.86	3.13(0.52)	(78)
중국-한족	3.20	3.82	3.01	3.01	2.79	3.17(0.52)	(89)
일본	3.20	3.77	2.87	2.88	2.99	3.14(0.50)	(103)
필리핀	3.15	3.52	2.93	2.94	2.66	3.04(0.68)	(53)
베트남	3.19	3.56	2.89	2.97	2.69	3.06(0.51)	(116)
몽골	3.32	3.64	3.11	2.82	2.79	3.14(0.66)	(28)
기타	2.98	3.74	3.02	2.87	2.80	3.08(0.53)	(46)
F	0.90	2.20*	0.50	0.29	1.51	0.67	
모 체류기간							
3년 이하	3.58	3.68	3.06	3.26	2.77	3.27(0.41)	(31)
4년~6년	3.19	3.68	2.93	2.91	2.76	3.09(0.54)	(217)
7년~9년	3.05	3.66	2.96	3.00	2.87	3.11(0.54)	(118)
10년 이상	3.12	3.78	2.97	2.86	2.85	3.12(0.56)	(147)
F	3.95**	0.86	0.16	1.97	0.56	0.99	
가계 소득							
150만원 미만	2.97	3.53	2.99	2.72	2.69	2.98(0.68)	(116)
150만원~250만원미만	3.19	3.75	2.90	2.96	2.82	3.12(0.47)	(247)
250만원 이상	3.27	3.80	3.01	3.06	2.94	3.22(0.49)	(137)
모름/무응답	3.06	3.39	3.00	3.00	2.56	3.00(0.60)	(18)
F	3.37*	5.08**	0.46	3.33*	2.44+	4.41**	
맞벌이 여부							
외벌이	3.17	3.70	3.01	2.91	2.80	3.12(0.53)	(343)
맞벌이	3.15	3.70	2.84	2.99	2.83	3.10(0.56)	(173)
t	0.23	-0.07	1.83*	-0.99	-0.43	0.28	

주: 1), 2), 3) 역코딩 문항임.

* p <.05, ** p <.01

사회적 특성에 따른 모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결과(표 IV-2-19), 모의 원가족이 있는 경우(3.17)가 없는 경우(3.09)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3.14)가 없는 경우(2.48)보다 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남편의 이해가 높고 남편과의 말다툼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남편의 폭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9〉 사회적 특성에 따른 모의 결혼만족도 차이

단위: 점

구분	결혼 생활 만족	남편의 폭력 ¹⁾	남편의 음주 ²⁾	남편의 이해	남편과 말다툼 ³⁾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16	3.70	2.98	2.85	2.76	3.11(0.54)	(534)
모 원가족 거주 여부							
없음	3.15	3.68	2.93	2.90	2.77	3.09(0.55)	(358)
있음	3.19	3.75	3.00	3.01	2.90	3.17(0.52)	(160)
t	-0.55	-1.27	-0.69	-1.31	-1.65	-1.72 ⁺	
도움주는 사람 여부							
없음	2.20	3.35	2.60	1.80	2.45	2.48(0.56)	(20)
있음	3.20	3.72	2.97	2.98	2.83	3.14(0.52)	(498)
t	-5.70 ^{***}	-1.98 ⁺	-1.58	-6.05 ^{***}	-1.99 [*]	-5.51 ^{***}	

주: 1), 2), 3) 역코딩 문항임.

⁺ p <.10, * p <.05, *** p <.001

바. 어머니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

1) 어머니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어머니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다중응답)을 조사한 결과(표 IV-2-20), 같이 사는 남편이 3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본국 친구/이웃이 12.7%, 한국친구/이웃이 11.0%의 순이었다. 그 외 시댁식구와 친정식구, 센터종사자나 종교기관의 경우는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IV-2-20〉 도움을 주는 사람

단위: %(명)

구분	비율(수)
남편	31.5(420)
시부모	9.7(129)
그 외 시댁식구	7.4(98)
한국친구/이웃	11.0(147)
본국친구/이웃	12.7(169)
친정식구	9.2(123)
센터종사자(다문화/외국인지원센터, 복지관)	8.0(107)
종교기관(성당, 교회)	8.0(107)
기타	0.8(10)
없음	1.7(12)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모가 95.9%의 대부분이었으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1%로 매우 적었다. 남편을 제외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80.3%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9.7%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제외되는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표 IV-2-21).

〈표 IV-2-21〉 도움을 주는 사람 여부

유형	있음		없음		계(수)
	%	명	%	명	
도움을 주는 사람여부	95.9	(512)	4.1	(22)	100.0(534)
(남편제외) 도움을 주는 사람여부	80.3	(429)	19.7	(105)	100.0(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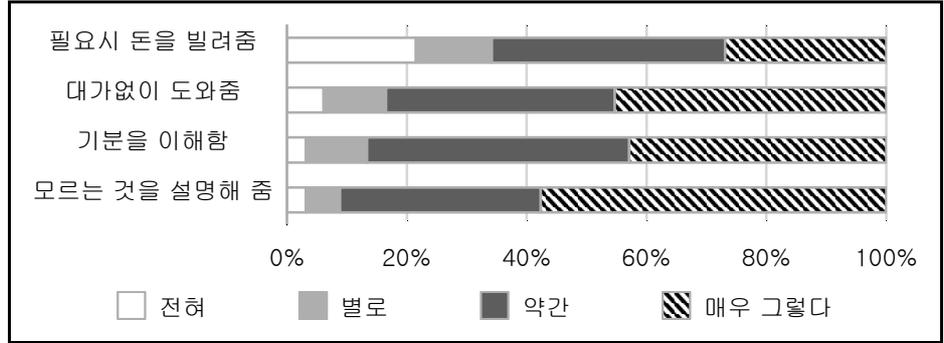
2) 사회적지지

가) 사회적 지지의 종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가를 조사하였을 때(표 IV-2-22), 모르는 것으로 설명해주는 정보·인지적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분을 이해하고 대가없이 도와주는 정서적 지지와 도움이 높게 응답되었다. 상대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경제적 지지는 낮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지지보다는 정보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2〉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

	응답					평균 (표준편차)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3.16(0.66)	100.0(534)
필요시 돈을 빌려줌	20.4	12.0	36.9	25.5	5.2	2.71(1.08)	100.0(534)
대가없이 도와줌	5.8	9.9	36.3	43.1	4.9	3.23(0.87)	100.0(534)
기분을 이해함	3.0	9.7	41.6	40.8	4.9	3.26(0.77)	100.0(534)
모르는 것을 설명해 줌	3.0	5.4	31.8	54.7	5.1	3.46(0.74)	100.0(534)



[그림 IV-2-6] 모의 사회적지지

나) 가족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가족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결과(표 IV-2-23), 지역규모에 따라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모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는 사례수가 적은 제한점이 있으나 외국인근로자가정 모의 사회적 지지감 인식이 결혼이민자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2-23> 가족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단위: 점, (명)

구분	필요시돈을 빌려줌	대가없이 도와줌	기분을 이해함	모르는 것을 설명해 줌	평균	(수)
(전체)	2.71	3.23	3.26	3.46	3.16	(504)
지역규모						
도시	2.75	3.29	3.28	3.48	3.20	(422)
농촌	2.50	2.88	3.17	3.34	2.96	(82)
t	1.96	4.05***	1.20	1.59	2.96**	
가족유형						
결혼이민자가정	2.65	3.19	3.26	3.46	3.13	(458)
외국인근로자 가정	3.30	3.54	3.35	3.39	3.39	(43)
t	-3.95***	-2.62**	-0.78	0.62	-2.60*	

* p <.05, ** p <.01, *** p <.001

다) 부모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표 IV-2-24>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것이다. 부모의 특성에 따른 모의 사회적 지지감 차이를 살펴보면(표 IV-2-24), 부의 연령이 젊을수록 모의 대가없이 도와주는 지지감이 높았으며, 모 학력이 높을수록 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감에 더 높았다.

<표 IV-2-24>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지지

단위: 점, (명)

구분	필요시 돈을 빌려줌	대가없이 도와줌	기분을 이해함	모르는 것을 설명해 줌	평균	(수)
(전체)					3.16	(490)
부연령						
35세 이하	3.03	3.36	3.30	3.55	3.31	(33)
36세~45세 미만	2.73	3.29	3.26	3.47	3.18	(292)
46세 이상	2.60	3.10	3.26	3.40	3.06	(165)
F	2.38	3.23*	0.05	0.83	2.81	
모학력						
중졸이하	2.50	2.91	3.13	3.29	2.92	(109)
고졸	2.76	3.26	3.32	3.55	3.22	(192)
초대졸 이상	2.79	3.38	3.29	3.46	3.23	(200)
F	2.70	11.03***	2.47	4.31*	9.98***	

*** p <.001

모의 출신국에 따라 모의 사회적 지지감이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다(표IV-2-25). 경제적 지지에 대해 중국-조선족(3.19점)과 몽골 사람들(3.11점)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대가없이 도와주는 지지에 대해서는 중국-조선족(3.45점)과 한족(3.41점), 일본 출신국 어머니들(3.43점)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기분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서적 지지에 대해서도 중국-조선족(3.44점)과 한족(3.40)이 높게 나타나, 중국과 일본 출신의 모의 사회적 지지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모의 체류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모의 종교가 없는 경우와 맞벌이인 경우에 모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표 IV-2-25〉 모 출신국과 제 특성에 의한 사회적지지
단위: 점, (명)

	필요시 돈을 빌려줌	대가없이 도와줌	기분을 이해함	모르는 것을 설명해 줌	평균	(수)
모 출신국						
한국	2.25	2.25	2.75	3.25	2.63	(3)
중국-조선족	3.19	3.45	3.44	3.59	3.42	(78)
중국-한족	2.83	3.41	3.40	3.51	3.28	(84)
일본	2.78	3.43	3.33	3.52	3.27	(101)
필리핀	2.58	3.29	3.19	3.38	3.11	(52)
베트남	2.25	2.71	2.94	3.31	2.77	(113)
몽골	3.11	3.36	3.36	3.36	3.32	(27)
기타	2.63	3.28	3.44	3.51	3.22	(43)
F	7.19***	9.70***	4.90***	1.42	3.14*	
모 체류기간						
4년미만	2.71	3.19	3.37	3.35	3.13	(30)
4~7년미만	2.60	3.10	3.18	3.42	3.08	(216)
7~10년미만	2.72	3.28	3.35	3.50	3.19	(111)
10년이상	2.91	3.41	3.31	3.52	3.29	(141)
F	2.37	3.84*	1.76	0.90	2.12*	
모 종교 여부						
없음	2.89	3.28	3.32	3.50	3.25	(157)
있음	2.63	3.20	3.24	3.43	3.12	(347)
t	2.45*	0.94	1.20	0.97	2.12*	
소득						
150만원 미만	2.70	3.15	3.17	3.30	3.06	(115)
50~250만원미만	2.66	3.18	3.24	3.43	3.12	(236)
250만원 이상	2.84	3.37	3.17	3.30	3.31	(136)
모름/무응답	2.53	3.28	3.24	3.43	3.31	(17)
F	0.97	1.90	2.00	4.10**	3.51*	
맞벌이 여부						
외벌이	2.66	3.20	3.22	3.42	3.11	(336)
맞벌이	2.80	3.28	3.35	3.52	3.24	(165)
t	-1.33	-0.98	-1.81	-1.35	-2.00*	

* p <.05, ** p <.01, *** p <.001

사. 어머니의 우울

1) 어머니의 우울의 일반적 경향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우울의 정도는 1.78점으로 1주일에 1~2일정도(‘가끔’)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모의 우울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귀찮게 느껴짐(1.90)’과 외로움을 느낌(1.82)’에 대한 문항의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2-26).

〈표 IV-2-26〉 우울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점

	극히 드물다 (하루미만)	가끔 (1-2일)	종종 (3-4일)	거의 항상 (5-7일)	무응답	계(수)	평균(SD)
(전체)						100.0(534)	1.78(0.64)
귀찮게 느껴짐	34.1	45.9	15.2	4.5	0.4	100.0(534)	1.90(0.82)
우울함	46.6	36.3	10.3	6.2	0.6	100.0(534)	1.76(0.87)
잠을 잘 못잠	50.4	28.1	12.9	7.9	0.7	100.0(534)	1.78(0.95)
외로움을 느낌	45.3	34.1	12.4	7.5	5.1	100.0(534)	1.82(0.83)
자신감과 의욕이 없음	51.1	35.2	7.9	5.1	0.7	100.0(534)	1.67(0.64)

2) 가족특성에 따른 모 우울

가족특성에 따른 우울감을 살펴보면, 가족유형에 따른 우울감에 차이가 있어 외국인근로자가정의 모에 비해 결혼이민자 가정의 모가 약간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2-27).

〈표 IV-2-27〉 가족특성에 따른 우울

단위: 점, 명

구분	귀찮게 느껴짐	우울함	잠을 잘 못잠	외로움을 느낌	자신감과 의욕이 없음	전체	(수)
가족유형						1.78	(527)
결혼이민자가정	1.90	1.77	1.81	1.82	1.69	1.80	(483)
외국인근로자가정	1.87	1.61	1.46	1.80	1.44	1.63	(43)
t	0.27	0.50	2.43*	0.14	1.88	1.67	

* p <.05, ** p <.01

3) 부모 특성에 따른 모 우울

부모특성에 따른 모 우울감을 비교하면(표 IV-2-28), 모 연령이 35세 미만인 경우 우울하거나(1.84) 잠을 못자는(1.90) 우울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모 학력이 공히 낮을수록 모 우울감이 큰 경향이 있었으며, ‘잠을 못 잠’과 ‘외로움’의 항목에서 유의하게 그러하였다. 즉, 중졸 이하의 어머니들은 거의 모든

문항에서 우울 점수가 높았다.

〈표 IV-2-28〉 부모연령과 학력에 따른 모 우울

단위: 점, 명

구분	귀찮게 느껴짐	우울함	잡을 잘 못잡	외로움을 느낌	자신감과 의욕이 없음	평균	(수)
(전체)						1.77	(512)
모연령							
35세 이하	1.89	1.84	1.90	1.87	1.71	1.84	(294)
36세~45세 미만	1.93	1.64	1.63	1.76	1.60	1.71	(204)
46세 이상	1.70	1.65	1.57	1.52	1.48	1.58	(23)
F	0.90	3.12*	5.45**	2.16	1.77	3.68*	
부학력							
중졸이하	2.08	1.98	1.86	2.01	1.82	1.95	(90)
고졸	1.88	1.70	1.82	1.74	1.66	1.76	(268)
초대졸 이상	1.83	1.69	1.61	1.76	1.60	1.70	(152)
F	2.82	3.88	3.09*	3.22*	2.15	4.63*	
모학력							
중졸이하	2.03	2.03	2.09	2.05	1.96	2.03	(118)
고졸	1.83	1.74	1.80	1.77	1.66	1.76	(196)
초대졸 이상	1.88	1.61	1.58	1.73	1.50	1.66	(209)
F	2.33	8.79***	11.39***	5.14**	12.11***	13.10***	

* p <.05, ** p <.01, *** p <.001

모 출신국에 따라 모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29).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의 경우 1.96점으로 우울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과 중국-한족 순이었다. 이 출신국 모는 거의 모든 문항에서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모 체류기간에 의하면, 체류기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일 경우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초기 적응 과정에서 우울을 약간 높게 지각하다가 차츰 적응함에 따라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맞벌이가정에 비해 외벌이가정에서 모의 우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9〉 부모특성에 의한 모 우울

단위: 점, 명

	귀찮게 느껴짐	우울함	잡을 잘 못잡	외로움을 느낌	자신감과 의욕이없음	전체 평균	(수)
모 출신국							
한국	1.75	1.50	1.75	1.50	1.25	1.55	(3)
중국-조선족	1.88	1.72	1.82	1.77	1.54	1.74	(82)
중국-한족	1.88	1.79	1.86	1.86	1.78	1.83	(90)
일본	1.82	1.44	1.44	1.45	1.54	1.53	(103)
필리핀	1.96	1.96	1.89	2.00	1.56	1.87	(54)
베트남	1.94	2.02	2.02	2.01	1.86	1.96	(118)
몽골	1.83	1.62	1.55	2.03	1.47	1.70	(29)
기타	2.07	1.70	1.78	1.87	1.72	1.83	(45)
	0.58	4.30***	3.50**	3.91***	2.41*	4.06***	
모 체류기간							
4년미만	2.19	1.91	1.81	1.97	1.53	1.89	(31)
4~7년미만	1.89	1.87	1.95	1.91	1.80	1.89	(223)
7~10년미만	1.79	1.62	1.64	1.73	1.57	1.67	(118)
10년이상	1.93	1.66	1.62	1.70	1.56	1.69	(148)
	2.10	3.21*	4.76**	2.31	3.63*	4.45**	
소득							
150만원 미만	1.90	1.90	2.03	2.03	1.77	1.92	(124)
150~250만원미만	1.93	1.77	1.74	1.79	1.74	1.80	(244)
250만원 이상	1.88	1.61	1.62	1.70	1.48	1.66	(141)
모름/무응답	1.72	1.78	1.83	1.72	1.50	1.71	(18)
	0.41	2.34	4.51**	3.25	4.00**	3.88**	
맞벌이 여부							
외벌이	1.92	1.83	1.82	1.89	1.76	1.84	(351)
맞벌이	1.86	1.61	1.68	1.67	1.46	1.66	(173)
	0.71	2.67**	1.60	2.62**	4.03***	3.10**	

* p <.05, ** p <.01, *** p <.001

아. 양육특성과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간 상관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양육특성과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관련 행동을 덜 하고, 부의 양육참여가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과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이 상관이 있고,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느끼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이 상관이 있으며, 모가 우울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육행동은 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모의 우울과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의 양육참여가 많고 모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지지감이 클수록 모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과 상관이 있고, 모가 우울하다고 느끼면 양육행동을 덜 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의 양육참여는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부의 양육참여가 많다고 느끼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과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와 정적관계, 모의 우울과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느끼는 것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과 상관이 있고,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과 모의 우울 낮은 것이 상관이 있다. 사회적 지지와 모의 우울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느낄수록 모의 우울감이 덜 한 것과 상관이 있다 하겠다.

〈표 IV-2-30〉 양육특성과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상관관계

구분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	모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1					
양육행동	-.18***	1				
부의 양육참여	-.14**	.23***	1			
결혼만족도	-.22***	.21***	.27***	1		
사회적 지지	-.13**	.21***	.07	.24***	1	
모의 우울	.32***	-.19***	-.04	-.35***	-.22***	1

** p <.01, *** p <.001

자.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다문화아동의 양육특성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였다(표 IV-2-31).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아동의 어휘력 발달을 측정한 도구인 REV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아동과 달리 표현 언어만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모의 표현 언어 점수는 최소 1점, 최대 178점 이었으며 평균 80.99점이었다.

〈표 IV-2-31〉 모의 REVT 표현언어 평균점수

	단위: 점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어머니의 표현언어 점수	1	178	80.99(40.15)

검사 결과,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원점수에 따른 등가연령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표 IV-2-32), 가장 낮은 수준인 2세 6개월 미만은 7.7%였고, 가장 높은 수준인 16세 이상은 6.6%였다. 표준편차가 40.15점으로 커, 다문화가족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IV-2-32〉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 수준별 비율

단위: %(명)

수준	계(수)	수준	계(수)
(전체)	100.0(534)	8세	10.9(58)
검사 불능	0.4(2)	9세	4.1(22)
2세 6개월 미만	7.7(41)	10세	4.5(24)
2세 6 ~ 11개월	5.1(27)	11세	2.6(14)
3세	7.5(40)	12세	3.6(19)
4세	6.2(33)	13세	2.1(11)
5세	13.3(71)	14세	3.9(21)
6세	10.1(54)	15세	4.1(22)
7세	6.8(36)	16세 이상	6.6(35)

모의 표현어휘력 능력의 편차를 설명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가족특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결혼이민자 모(81.7)의 어휘력 점수가 외국인근로자가정 모(74.0)에 비해 높았다. 부모의 특성에 따른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IV-2-33), 모 연령, 모 학력, 모 출신국, 모의 한국 체류기간, 종교 여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연령이 많을수록, 모학력이 높을수록, 모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점수가 높았다.

〈표 IV-2-33〉 부모 특성에 따른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 차이

단위: 점

	(수)	평균(표준편차)	t, F
(전체)	(534)	80.99(40.15)	
모연령			
35세 이하	(298)	70.99(33.70)a	26.34**
36세 이상 45세 미만	(205)	94.02(44.03)b	
46세 이상	(23)	104.65(40.32)b	

(표 IV-2-33 계속)

모 학력				
중졸이하	(119)	65.50(34.56)a		12.97***
고졸	(198)	99.45(39.74)b		
초대졸 이상	(210)	82.68(41.44)b		
모 출신국				
한국	(3)	132.50(31.90)a		68.60***
중국-조선족	(83)	122.82(34.84)a		
중국-한족	(91)	86.05(25.13)bc		
일본	(103)	106.57(32.39)ab		
필리핀	(53)	50.43(19.34)d		
베트남	(120)	54.28(21.51)cd		
몽골	(30)	60.43(31.56)cd		
기타	(46)	52.98(21.66)cd		
모 체류기간				
4년미만	(31)	50.61(35.46)a		43.18***
4년이상 7년미만	(225)	69.29(33.87)b		
7년이상 10년미만	(120)	76.63(34.77)b		
10년이상	(149)	107.66(39.91)c		
모 종교 여부				
없음	(167)	86.91(41.44)		2.31*
있음	(365)	78.29(39.32)		
소득				
150만원 미만	(125)	66.30(36.55)a		14.76***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49)	80.53(36.06)ab		
250만원 이상	(141)	96.74(45.08)a		
모름/무응답	(17)	65.24(33.17)b		

주: a, b, c, d는 사후검정 결과로 $a \neq b$, $b \neq c$, $c \neq d$ 를 의미함.

* $p < .05$, *** $p < .001$, **** $p < .001$

모 출신국에 따른 한국어 표현어휘력은(표 IV-2-33), (한국 제외) 조선족 모(122.8), 일본(106.6), 중국한족(85.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몽골(60.4), 베트남(54.3), 필리핀(50.4)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한국과 조선족 모가 같은 집단으로 분류 되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필리핀 모가 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모(86.9)가 종교가 있는 모(78.3)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적 지원이 취약계층에 우선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 특성에 따른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력 차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IV-2-34).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

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만 2세 아동을 가진 모의 집단과 만5세, 만6세, 만7세 이상 집단이 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한국체류기간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이 아동의 연령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아의 모가 83.40점으로 여아의 모 78.21보다 약간 높았다.

〈표 IV-2-34〉 아동 특성에 따른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 차이

단위:점			
	(수)	평균(표준편차)	t, F
아동 연령			
만2세	(23)	55.61(35.47) ^a	7.45***
만3세	(146)	70.60(36.17) ^{ab}	
만4세	(147)	79.41(40.08) ^{ab}	
만5세	(114)	91.52(39.32) ^b	
만6세	(78)	91.06(42.75) ^b	
만7세 이상	(24)	95.58(37.59) ^b	
아동 성별			
남아	(285)	83.40(40.14)	1.49
여아	(247)	78.21(40.08)	

*** p <.001

다음으로 모의 표현어휘력과 모 심리사회적 특성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IV-2-35). 위에서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연령, 학력, 출신국가, 체류기간, 소득, 종교여부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우울, 사회적지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우울하다고 느낄수록 한국어 표현어휘력이 낮았으며, 사회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 경우 한국어 표현어휘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35〉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어머니 우울	사회적 지지	결혼 만족도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점수	-.13**	.12*	.04

주: 모 연령, 체류기간, 출신국가, 학력, 소득, 종교여부는 통제한 후 상관관계를 산출함.

* p <.05, ** p <.01.

양육특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연령, 학력, 출신국

가, 체류기간, 소득, 종교여부를 통제하였다(표 IV-2-36).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다고 느낄 수록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가 양육 관련하여 남편에게 더욱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이 향상될 기회가 없었거나, 혹은 모의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부의 양육참여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모의 어휘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2-36〉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과 양육 특성과의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아버지 양육참여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점수	.02	.02	-.15***

주: 모 연령, 체류기간, 출신국가, 학력, 소득, 종교여부를 통제한 후 상관계수를 산출함.

*** $p < .001$.

차. 교사와 원장/교장이 생각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교사’가 답임아동의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표 IV-2-37). 다문화아동의 담당교사는 모의 언어수준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가능 75%, 의사소통 어려움 25%로 평가하여 조사대상 다문화 모의 1/4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사회정서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함 93.3%, 부적절함 6.7%로 대다수 다문화 어머니의 사회정서가 양호한 것으로 평정하였다. 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적절 88.0%, 전반적인 양육환경에 대해서는 적절 86.2%로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교사평정에 의한 다문화아동의 양육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37〉 교사들이 생각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단위: %(명), 점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균(SD)
모의 언어수준	2.2	23.0	43.4	31.4	100.0(226)	3.04(0.80)
모의 사회정서수준	-	6.7	60.3	33.0	100.0(224)	3.26(0.57)
모-자녀 상호작용	0.4	11.6	58.7	29.3	100.0(225)	3.17(0.63)
전반적인 양육환경	0.4	13.4	64.3	21.9	100.0(224)	3.08(0.61)

‘원장/교장’이 인식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표 IV-2-38), 4개 항목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모의 언어수준에서 74.8%, 모의 사회정서수준 93.3%, 모-자녀 상호작용 88.0%, 전반적인 양육환경 86.2%로 대체로 긍정응답이 많았다. 교사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교사보다는 원장/교장들이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적지만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정된 사례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VI-2-38〉 원장/교장들이 생각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단위: %(명), 점

	매우 부적절	부적절한 편	적절한 편	매우 적절	계(수)	평균(SD)
모의 언어수준	-	47.8	39.6	12.6	100.0(159)	2.65(0.70)
모의 사회정서수준	-	19.6	70.9	9.5	100.0(158)	2.90(0.53)
모자 상호작용	0.6	21.5	67.7	10.1	100.0(159)	2.87(0.57)
전반적인 양육환경	1.3	27.0	66.7	5.0	100.0(159)	2.75(0.60)

3. 요약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조사대상 응답자 특성을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부모 특성, 아동 특성, 양육환경 특성의 4개 주제로 나누어 하위특성별로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파악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양육과정과 가정환경 특성 실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가족이 대다수 표집되었고 주로 도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30대 이하가 많고 아버지는 4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부모 모두 고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력 분포가 다양했다. 소득 범위는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가운데, 가계소득은 거주지역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부부간 연령의 차가 컸다.

둘째, 조사대상 다문화아동은 만3세에서 5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기관에 비교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연

령이 증가할수록 공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가족과의 사회적 관계도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평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은 비교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양육 특성을 살펴보면, 주 양육자는 어머니였고 양육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적-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 양육스트레스가 자녀가 영아기와 취학 전후시기로 높아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이 초기 양육과 자녀 취학후 정규교육 시작 시점에 어려움으로 느낀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양육 행동에 있어서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규제·지도 영역의 양육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심리적 양육 스트레스와 4개 영역의 양육 행동과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모의 양육스트레스 완화가 다문화가정 양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타국에서 문화적 차이로 오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차이점을 알게 하고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양육 실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건강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양육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양육행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하다.

넷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결혼이민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학력, 가계소득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는 남편과 이웃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경제적 지지보다는 정서적이고 정보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특성, 모의 학력, 가계 소득과 모의 출신국가, 체류기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우울 정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거주지역, 모 연령, 부모 학력, 가계소득, 모의 출신국과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분포를 보여 어휘력 점수의 편차가 컸다. 가계소득과 모의 제 특성(연령, 학력, 출신국,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모의 한국어 능력은 우울 정도, 사회적 지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이 있었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건강하

고 언어에 불편함이 없을 때 새로운 사회의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심리적 건강성이 아동의 양육,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다섯째, 교사, 원장/교장이 생각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에 있어 대부분 어머니의 언어수준에 대해서는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모의 사회정서 수준, 모의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전반적 양육환경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즉, 교사들이나 학교와 기관의 장들은 다문화가족의 양육 환경이 언어 능력을 제외하고는 적절하다고 봄은 다문화가족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육환경에 있어 우리나라 비다문화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V.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이 장에서는 조사된 발달점수와 수준에 근거하여, 다문화아동의 발달결과를 유형화하였다. 이는 다양한 발달수준과 패턴을 보이는 다문화아동 대상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고려하기 위한 논의이다.

1. 다문화아동의 건강 및 신체발달

가. 다문화아동의 건강상태

모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표 V-1-1), 91.2%의 대다수 아동이 장애나 질병이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심장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질병이 있다고 응답된 아동이 7.5%였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1.3%였다.

〈표 V-1-1〉 아동의 건강상태

	장애	질병	건강양호	계(수)
(전체)	1.3	7.5	91.2	100.0(533)
모 건강				
장애	-	-	100.0	100.0(3)
질병	-	15.4	84.6	100.0(26)
건강양호	1.4	6.7	91.9	100.0(496)
부 건강				
장애	5.4	13.5	81.1	100.0(37)
질병	-	9.7	90.3	100.0(31)
건강양호	1.1	6.7	92.2	100.0(450)

아동 건강상태와 부모 건강상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V-1-1), 부·모가 질병을 가진 경우 아동이 질병을 가진 비율은 부 9.7%, 모 15.4%로 나타났고,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경우는 부 5.4%, 모 0%로 나타났다. 부모의 질병과 장애가 제한적이거나 자녀의 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건강상태와 부모의 건강상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표 V-1-2), 아동의 건강은 부 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모의 건강과 부의 건강 역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V-1-2〉 아동의 건강상태와 부모의 건강상태의 상관관계

	아동 건강	모 건강	부 건강
아동 건강	1		
모 건강	.019	1	
부 건강	.107*	.113*	1

* p <.05, ** p <.01, *** p <.001

나. 다문화아동의 신체발달 실태

아동의 키, 몸무게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가 제시한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의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을 이용하여 비만도([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를 계산하였으며, 산출된 비만도가 -20%이하인 아동은 허약, 20%이상인 아동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82.8%의 대부분의 아동이 정상으로 분류되었고, 비만 6.7%, 허약 4.9%로 분류되었다(표 V-1-3).

〈표 V-1-3〉 아동의 신체발달 실태

				단위: %(명)
	허약	정상	비만	계(수)
(전체)	4.9	82.8	6.7	100.0(533)
모 건강				
장애	-	100.0	-	100.0(3)
질병	11.5	80.8	7.7	100.0(26)
건강양호	4.7	88.1	7.2	100.0(496)
부 건강				
장애	-	93.9	6.1	100.0(37)
질병	3.3	86.7	10.0	100.0(31)
건강양호	5.4	87.6	7.0	100.0(450)

부모의 건강상태에 따른 아동의 신체발달 실태를 살펴보면(표 V-1-3), 모가 질병이 있는 경우 자녀가 허약한 그룹으로 분류된 비율이 건강이 11.5%로 양호한 모 그룹의 4.7%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다. 부 건강에 따라서는 부가 질병

이 있는 경우 아동이 비만일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약간 높았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4〉 아동의 활동 및 수면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바깥놀이 여부 (전체)	100.0(531)	수면시간 (전체)	100.0(531)
매우 그렇다	27.9	7시간 이하	0.4
그런편이다	46.9	7시간이상 8시간미만	1.7
그렇지 않다	23.2	8시간이상 9시간미만	13.7
전혀 아니다	2.1	9시간이상 10시간미만	31.3
		10시간이상 11시간미만	40.3
		11시간이상 12시간미만	9.2
		12시간 이상	3.4

아동이 매일 바깥놀이를 하는지 질문한 결과(표 V-1-4), 매일 바깥놀이를 한다 74.8%, 그렇지않다 25.3%로 조사대상 아동의 1/4정도는 매일 바깥놀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수면시간과 관련해서는 71.6%가 하루에 9시간~11시간 잠을 잔다고 응답하였으며, 11시간 이상 12.6%, 8시간 미만은 2.1%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한 수면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V-1-5〉 바깥놀이 여부와 취침시간에 따른 신체발달

				단위: %(명)
	허약	정상	비만	계(수)
바깥놀이 여부 (전체)	5.2	87.8	7.0	100.0(501)
매우 그렇다	5.0	86.5	8.5	100.0(141)
그런편이다	3.4	89.7	6.8	100.0(234)
그렇지 않다	7.7	87.2	5.1	100.0(117)
전혀 아니다	22.2	66.7	11.1	100.0(9)
수면시간 (전체)	5.2	87.8	7.0	100.0(501)
8시간 미만	10.0	90.0	-	100.0(1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7	87.2	7.0	100.0(227)
10시간 이상	4.5	88.3	7.2	100.0(26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아동의 신체활동 및 수면시간에 따라 신체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V-1-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바깥놀이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아동이 바깥놀이를 매일 한다고 답한 경우보다 허약하거나 비만인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수면시간에 따른 신체발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 다문화아동의 산전 관리

다문화아동의 모가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 주기적으로 산전 관리를 받았는지에 대해 95.0%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5.0%는 주기적인 산전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동의 신체활동 및 수면시간에 따라 신체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V-1-6). 이는 장인순 외(2010) 연구의 결혼이민여성의 산전관리율 91.7%보다 높으나, 2009년 전국 출산력 조사(김승권 외, 2009)의 우리나라 여성 평균 산전관리율 100.0%와 과거 농촌지역 산전 수진율인 97.3%(김장락 외, 1993) 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하겠다.

〈표 V-1-6〉 아동의 산전 관리 및 출생

단위: %(명)

산전관리		출산형태		출산예정일	
(전체)	100.0(523)	(전체)	100.0(530)	(전체)	100.0(532)
받음	95.0	자연분만	66.7	정상출산	86.3
받지 않음	5.0	제왕절개	32.8	조산	11.5
				만산	2.3

출산형태와 관련해서는 66.7%가 자연분만으로 아동을 출산하였으며 32.8%는 제왕절개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출산 시기와 관련하여 출산예정일보다 2주 전에 태어난 조산의 경우 11.5%, 출산예정일보다 2주 이후에 태어난 만산의 경우가 2.3%였다. 출산예정일 2주 내외로 출산한 경우는 86.3%였다(표 V-1-6).

산전관리, 출산형태, 조산여부에 따른 아동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표 V-1-7). 산전관리에 따라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산전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 아동이 질병을 가지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분만 형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출산예정일에 따라서는 조산한 경우에 아동이 질병을 가지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V-1-7〉 출산에 따른 아동의 건강상태

				단위:%(명)
구분	장애	질병	건강양호	계(수)
(전체)	1.3	7.5	91.2	100.0(533)
산전관리				
받음	1.4	7.3	91.3	100.0(467)
안받음	-	11.5	88.5	100.0(26)
분만형태				
자연분만	1.4	7.9	90.7	100.0(333)
제왕절개	1.1	6.9	92.0	100.0(167)
출산예정일				
정상	1.5	7.0	91.5	100.0(433)
조산	-	11.5	88.5	100.0(58)
만산	-	8.3	91.7	100.0(50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표 V-1-8〉 출산에 따른 아동의 신체발달

				단위:%(명)
구분	허약	정상	비만	계(수)
산전관리				
(전체)	5.3	87.4	7.3	100.0(493)
받음	5.1	87.4	7.5	100.0(467)
안받음	7.7	88.5	3.8	100.0(26)
분만형태				
(전체)	5.2	87.6	7.2	100.0(500)
자연분만	6.6	87.4	6.0	100.0(333)
제왕절개	2.4	88.0	9.6	100.0(167)
출산예정일				
(전체)	5.2	87.6	7.2	100.0(502)
정상	5.8	87.8	6.5	100.0(433)
조산	1.7	89.7	8.6	100.0(58)
만산	-	72.7	27.3	100.0(50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산전관리, 출산형태, 조산여부에 따른 아동의 신체발달을 살펴보면(표 V-1-8), 만산(예정일보다 2주 뒤에 아이를 낳은 경우)인 경우에 아동이 비만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제 특성별 다문화아동의 신체발달실태

1) 아동특성별 신체발달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신체발달을 살펴보면(표 V-1-9), 만2세에서 사례 수가 적긴하나 허약/비만범주에 속하는 아동이 많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허약/비만아동의 비율이 줄다가 만5세와 만7세 이상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허약/비만아동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장애아동의 경우 비만에 속하는 아동이 많은 편이었다. (만2세, 5세, 7세에서의 허약/비만 비율이 높음이 다문화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

〈표 V-1-9〉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발달

구분	허약	정상	비만	단위: %(명)
				계(수)
(전체)	5.2	87.7	7.1	100.0(504)
연령				
만2세	18.2	72.7	9.1	100.0(22)
만3세	3.5	92.9	3.5	100.0(141)
만4세	3.7	90.4	5.9	100.0(136)
만5세	9.3	78.7	12.0	100.0(108)
만6세	1.4	91.9	6.8	100.0(74)
만7세 이상	4.3	82.6	13.0	100.0(23)
성별				
남아	4.8	88.2	7.0	100.0(271)
여아	5.6	87.1	7.3	100.0(233)
건강상태				
장애	-	85.7	14.3	100.0(7)
질병	5.3	86.8	7.9	100.0(38)
정상	5.2	87.8	7.0	100.0(45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 가족특성별 신체발달

아동의 가족특성인 지역규모와 가족형태에 따른 신체발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 정상아동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다문화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외국인근로자 가정이 결혼이민자가정에 비해 허약한 아동과 비만인 아동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표 V-1-10).

〈표 V-1-10〉 아동의 가족 특성에 따른 신체발달

	허약	정상	비만	단위: %(명)
				계(수)
(전체)	5.2	87.7	7.1	100.0(504)
지역규모				
도시	5.7	86.7	7.6	100.0(422)
농촌	2.4	92.7	4.9	100.0(82)
가족유형				
결혼이민자 가정	5.0	88.4	6.7	100.0(464)
외국인근로자 가정	7.5	80.0	12.5	100.0(40)

3) 부모특성별 신체발달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신체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V-1-11). 부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36~45세 미만에서 비만아동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모 연령에 따라서는 36~45 미만 집단에서 허약/비만 아동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모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집단에서 비만 아동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모가 가구소득이 얼마인지 모른다거나 혹은 응답하지 않은 집단에서 허약/비만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에 의한 가정환경의 질이 아동의 신체발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모의 출신국에 따라서는 필리핀, 기타, 몽골 집단에서 허약아동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중국(조선족), 몽골 집단에서 비만아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V-1-11〉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신체발달

구분	허약	정상	비만	단위: %(명)
				계(수)
모 학력				
(전체)	5.2	87.6	7.2	100.0(501)
중졸 이하	5.3	89.4	5.3	100.0(113)
고졸	5.3	86.2	8.5	100.0(189)
초대졸 이상	5.0	87.9	7.0	100.0(199)
가계 소득				
(전체)	5.2	87.7	7.1	100.0(504)
150만원 미만	5.2	88.8	6.0	100.0(116)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5.1	87.7	7.2	100.0(236)
250만원 이상	4.4	88.2	7.4	100.0(136)
모름/무응답	12.5	75.0	12.5	100.0(16)
모 출신국				
(전체)	5.2	87.7	7.2	100.0(503)
한국	-	100	-	100.0(3)
중국(조선족)	2.4	86.6	11.0	100.0(82)
중국(한족)	5.7	87.4	6.9	100.0(87)
일본	5.1	92.9	2.0	100.0(98)
필리핀	8.0	84.0	8.0	100.0(50)
베트남	4.5	87.5	8.0	100.0(112)
몽골	6.9	82.8	10.3	100.0(29)
기타	7.3	85.4	7.3	100.0(41)

4) 다문화아동 신체발달수준의 관련 요인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과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V-1-12).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변수는 어머니의 우울과 결혼만족도였다. 이는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아동의 건강상태가 허약하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1-12〉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에 따른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어머니 우울	사회적 지지	결혼 만족도
아동신체발달 수준	-.22***	-.07	.24***

주: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은 신장별 표준체중의 계산한 결과를 사용함.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함.

*** p <.001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과 양육 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V-1-13),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13〉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에 따른 모의 양육 특성의 차이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아버지 양육참여
아동신체발달 수준	.01	-.05	-.01

주: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은 신장별 표준체중의 계산한 결과를 사용함. 연속변수인 관계로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함.

2.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은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에 대한 수행검사와 어머니와 교사가 주관적으로 평정한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⁰⁾.

가.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실태

1)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표 V-2-1),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비율이 전체 약78%로 다수였으며, 한국어와 어머니 모국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약20%로 응답되었다.

〈표 V-2-1〉 아동의 언어사용

단위: %(명)			
한국어	어머니모국어	한국어+모 모국어	계(수)
78.1	2.2	19.7	100.0(534)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문화아동의 언어사용이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표 V-2-2),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10) 어휘력발달은 언어발달의 주요 하위영역으로, 언어발달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으나 대표성 있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논의는 표현 및 수용 어휘력 검사결과에 근거한다.

어머니 모국어와의 이중언어사용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입학후에 12.5%의 아동이 한국어와 어머니 언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아보다는 여아가 이중언어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언어사용

구분				단위: %(명)	
	한국어	어머니모국어	한국어+모국어	계(수)	$\chi^2(df)$
(전체)	78.1	2.2	19.7	100.0(534)	
아동 연령					
만2세	58.3	8.3	33.3	100.0(24)	
만3세	74.7	0.4	21.9	100.0(146)	
만4세	78.4	0.7	20.9	100.0(148)	17.18(15)
만5세	84.2	1.8	14.0	100.0(114)	
만6세	78.2	2.6	19.2	100.0(78)	
만7세 이상	87.5	-	12.5	100.0(24)	
아동 성별					
남아	82.5	2.4	14.7	100.0(286)	9.78(3)*
여아	73.0	2.0	25.0	100.0(534)	

* p <.05

2) 모/교사 평정에 의한 언어발달실태

어머니가 평정한 아동의 한국어 및 어머니 모국어 언어능력은 한국어 잘함 83.7%, 어머니 모국어 잘함 26.3%로 그 차이가 크다. 어머니 모국어를 잘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 다문화아동의 1/4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V-2-3).

〈표 V-2-3〉 모 평정 아동의 한국어/어머니 모국어 능력

구분					단위: %(명)	
	매우 못함	잘 못함	잘함	매우 잘함	계(수)	평균(표준편차)
한국어	2.3	14.1	57.3	26.4	100.0(531)	3.08(0.70)
어머니 모국어	31.6	42.0	22.0	4.3	100.0(531)	1.99(0.84)

어휘력 검사가 아닌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4점척도 평정을 비교한 결과(표 V-2-4), 대체로 잘한다는 응답률이 어머니에 게서 더 높아 4점평균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의 언어능력을 ‘대체로 잘하는’ 것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머니가 ‘못한다(매우+약간)’고 평정

한 비율은 16.4%, 교사의 경우 34.5%로 교사가 어머니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못함'으로 평정했다. 아동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모의 평정과 교사 평정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chi^2=29.094$, $p<.01$). 교사는 모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평정한 아동에 대해 약간 지연되었다고 평정한 경향이 있었으며, 모가 매우 잘한다고 평정한 아동에 대해 약간 지연되거나, 양호하다고 평정한 경향이 높았다. 이는 모가 교사에 비해 아동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교사 평정에서의 긍정 응답의 차이는 다른 발달영역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V-2-4〉 모/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언어능력

단위: %(명)

구분	매우 못함	잘 못함	잘함	매우 잘함	계(수)	4점평균
모 평정 한국어	2.3	14.1	57.3	26.4	100.0(531)	3.08(.70)
교사평정 한국어	7.5	27.0	52.3	13.3	100.0(241)	2.71(.79)

3) 어휘력검사에 의한 언어발달실태

발달수행검사도구 REVT의 어휘력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표 V-2-5), 표현언어와 수용언어의 검사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언어발달지체로 조사된 아동은 각 40.8%, 43.3%로 4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상범주의 언어 발달로 조사된 아동은 약45~47%였다. 언어발달이 우수(매우+약간)한 다문화아동의 비율은 10.1%, 8.9%로 조사되었다. 이를 4점척도 평균으로 환산하면 표현언어 2.0점, 수용언어 1.98점으로 전체 평균이 '다소 못 함'에 속한다.

〈표 V-2-5〉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결과

단위: %(명)

구분	검사불능	발달지체	약간지체	정상발달	약간우수	매우우수	계(수)	5점평균
표현언어	2.2	19.5	21.3	46.8	8.8	1.3	100.0(534)	2.50(.95)
수용언어	2.4	19.5	23.8	45.3	6.7	2.2	100.0(534)	2.47(.96)

주: 5점 서열척도로 환산하여 평균 산출함.

어휘력검사결과 판명된 조사대상 아동 534명의 실제나이 대비 언어능력의 나이(연·월령)를 대비하면(표 V-2-6~7), 실제 나이 분포에 비해 대체로 왼쪽(어린 연령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여 만2세아 4.5%에 비해 언어발달나이가 만2세아 수준인 아동이 33~39%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2-6〉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결과-언어능력 연·월령 분포

단위: %(명)

구분	검사 불능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05월	68월	91월	05월	612월	05월	612월	05월	612월	05월	612월	05월	612월	05월	612월		
표현	2.2	26.2	3.4	3.4	4.9	5.2	6.9	7.1	13.1	6.6	5.8	4.5	4.3	2.1	2.6	.9	.7	-
		33.0			10.1		14.0		19.7		10.3		6.4		3.5			
수용	2.4	32.2	3.9	3.0	5.8	5.2	5.4	5.6	7.5	9.2	7.3	5.1	3.4	2.1	.9	-	.6	.4
		39.1			11.0		11.0		16.7		12.4		5.5		.9			

〈표 V-2-7〉 아동의 연령과 언어발달연령 분포 비교

단위: %(명)

연령	실제연령	표현언어발달연령	수용언어발달연령
(전체)	100.0(534)	100.0(534)	100.0(534)
만2세	4.5	33.0	39.1
만3세	27.3	10.1	11.0
만4세	27.7	14.1	11.0
만5세	21.4	19.7	16.7
만6세	14.6	10.3	12.4
만7세 이상	4.5	10.6	7.4

나. 제 특성별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실태

REVT 어휘력 검사결과에 의한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수준(5단계)을 아동 및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아동특성별 언어발달

조사된 어휘력검사결과를 구체적인 하위특성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의한 검사결과를 비교한 결과(표 V-2-8), 다문화아동의 연령이 만4, 5세일 때 정상이상(정상+우수)의 표현언어발달비율(약62~65%)이 만2, 3세(45.0%, 51.5%)보다 높아 4~5세 연령에서 정상이상의 비율이 10~1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언어발달에 있어서도 정상이상의 어휘력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만2세 45.3%, 만3세 52.9%, 만4세 57.6%, 만5세 68.2%로 연령증가에 따른 언어발달 성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육아지원기

관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3세 이하에 대해, 특히 2세 미만의 영아기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성별에 따른 언어발달은 남아보다 여아의 어휘력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2-8〉 아동특성별 아동 언어발달수준

		단위: %(명), 점							
구분	발달지체	약간지체	정상	우수	매우우수	계(수)	$X^2(df)$	평균	
표현 언어	(전체)	19.9	21.8	47.9	9.0	1.3	100.0(522)	2.50	
	연령							F=2.14 [†]	
	만2세	25.0	30.0	45.0	-	-	100.0(20)	2.20	
	만3세	20.7	27.9	42.9	8.6	-51.5	100.0(140)	2.39	
	만4세	22.4	15.6	52.4	9.5	-61.9	100.0(147)	2.49	
	만5세	12.4	23.0	52.2	8.0	4.464.6	100.0(113)	2.69	
	만6세	19.2	19.2	46.2	14.1	1.3	100.0(78)	2.59	
	만7세이상	33.3	20.8	37.5	4.2	4.2	100.0(24)	2.25	
	성별							2.43(4)	
	남아	20.5	21.9	48.2	7.6	1.8	100.0(278)	2.48	
여아	19.3	21.7	47.5	10.7	0.8	100.0(244)	2.52		
수용 언어	(전체)	20.0	24.4	46.4	6.9	2.3	100.0(521)	2.47	
	연령							F=2.91 [*]	
	만2세	40.9	22.7	31.8	-	4.5	100.0(22)	2.05	
	만3세	22.5	24.6	43.5	5.8	3.6	100.0(138)	2.43	
	만4세	13.7	28.8	47.3	9.6	0.7	100.0(146)	2.55	
	만5세	18.6	13.3	57.5	8.0	2.7	100.0(113)	2.63	
	만6세	15.4	32.1	47.4	3.8	1.3	100.0(78)	2.44	
	만7세이상	45.8	25.0	16.7	8.3	4.2	100.0(24)	2.00	
	성별							3.53(4)	
	남아	21.4	24.6	46.7	5.8	1.4	100.0(276)	2.41	
여아	18.4	24.1	46.1	8.2	3.3	100.0(245)	2.54		

* p <.05, ** p <.01

2) 가족특성별 언어발달

다문화아동의 가족특성에 따른 언어발달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V-2-9), 표현언어와 수용언어 모두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아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족과 외국인근로자가족의 아동 언어발달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현언어 40.5% vs. 55.8%, 수용언어 43.5% vs. 54.8%).

〈표 V-2-9〉 가족특성별 아동 언어발달수준

		단위: 점						
구분	발달지체	약간지체	정상	우수	매우우수	계(수)	X ² (df)	평균
표 현 언 어	(전체)	19.9	21.8	47.9	9.0	1.3	100.0(522)	2.50
	지역규모							
	도시	20.0	21.3	47.5	9.6	1.6	100.0(436)	2.95(4)
	농촌	19.8	24.4	50.0	5.8	-	100.0(86)	2.42
	가족유형							t=2.95**
	결혼이민자	18.7	21.8	48.3	9.8	1.5	100.0(482)	9.70(4)*
외국인토사	35.0	22.5	42.5	-	-	100.0(40)	2.08	
수 용 언 어	(전체)	20.0	24.4	46.4	6.9	2.3	100.0(521)	2.47
	지역규모							
	도시	19.1	23.7	48.0	6.9	2.3	100.0(435)	2.99(4)
	농촌	24.4	27.9	38.4	7.0	2.3	100.0(86)	2.35
	가족유형							t=2.39*
	결혼이민자	18.1	25.2	47.4	7.3	2.1	100.0(481)	16.40(4)**
외국인토사	42.5	15.0	35.0	2.5	5.0	100.0(40)	2.13	

† p <.10, * p <.05, ** p <.01

3) 부모특성별 언어발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아동의 '표현'언어발달을 살펴본 결과(표 V-2-10), 부모의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아동 표현언어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아동의 표현언어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다문화아동의 표현언어발달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신국에 따라 아동의 표현언어발달점수에 차이가 있어, 중국 조선족 아동의 표현언어발달점수가 (한국아동 다음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한족, 일본, 그리고 베트남과 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가족이 43.3%(13사례)인 몽골 모 아동의 표현언어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2-10〉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표현언어발달수준

단위: %(명)

구분	발달지체	약간지체	정상	우수	매우우수	전체	$\chi^2(df)$	평균
부 연령								
35세 미만	33.3	23.3	36.7	6.7	-	100.0(30)	7.93(8)	2.17
36-45세 미만	20.7	21.1	47.0	10.2	1.0	100.0(304)		
46세 이상	16.8	22.0	51.4	7.5	2.3	100.0(173)		
전체	20.1	21.5	47.9	9.1	1.4	100.0(507)		2.50
모 연령								
35세 미만	19.3	20.7	50.3	8.6	1.0	100.0(290)	7.2(8)	2.51
36-45세 미만	19.7	24.1	45.8	8.9	1.5	100.0(203)		
46세 이상	26.1	8.7	43.5	17.4	4.3	100.0(23)		
전체	19.8	21.5	48.3	9.1	1.4	100.0(516)		2.51
부 학력								
중졸 이하	23.9	18.2	50.0	6.8	1.1	100.0(88)	3.83(8)	2.43
고졸	19.7	20.1	48.7	10.4	1.1	100.0(269)		
초대졸 이상	18.8	24.2	47.0	8.1	2.0	100.0(149)		
전체	20.2	20.9	48.4	9.1	1.4	100.0(506)		2.51
모 학력								
중졸 이하	25.4	19.5	46.6	7.6	0.8	100.0(118)	4.91(8)	2.39
고졸	18.0	21.1	48.5	10.3	2.1	100.0(194)		
초대졸 이상	18.4	23.8	48.1	8.7	1.0	100.0(206)		
전체	19.9	21.8	47.9	9.1	1.4	100.0(518)		2.50
가계 소득 F=2.94*								
150만원 미만	29.3	23.6	38.2	6.5	2.4	100.0(123)	14.89(12)*	2.29
150-250만원 미만	17.9	22.4	50.0	8.9	0.8	100.0(246)		
250만원 이상	16.3	19.3	51.9	11.1	1.5	100.0(135)		
모름/무응답	11.1	22.2	55.6	11.1	-	100.0(18)		
전체	19.9	21.8	47.9	9.0	1.3	100.0(522)		2.50
모 출신국 F=38.8***								
한국	33.0	-	33.0	-	33.0	100.0(3)	-	3.50
중국(조선족)	11.9	9.5	64.3	14.3	-	100.0(84)		
중국(한족)	13.3	24.4	45.6	15.6	1.1	100.0(90)		
일본	19.4	25.2	47.6	6.8	1.0	100.0(103)		
필리핀	25.0	23.1	44.2	7.7	-	100.0(52)		
베트남	25.0	19.0	47.4	6.9	1.7	100.0(116)		
몽골	37.9	34.5	17.2	6.9	3.4	100.0(29)		
기타	17.8	31.1	48.9	-	2.2	100.0(45)		
전체	19.8	21.8	47.9	9.0	1.3	100.0(522)		2.50

* p <.05, *** p <.001

〈표 V-2-1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수용언어발달수준

								단위: %(명)	
구분	발달지체	약간지체	정상	우수	매우우수	전체	$\chi^2(df)$	평균	
부 연령									
35세 미만	41.4	6.9	48.3	3.4	-	100.0(29)		2.14	
36-45세 미만	18.5	26.4	45.2	6.6	3.3	100.0(303)	15.6(8)*	2.50	
46세 이상	18.4	23.6	48.9	8.0	1.1	100.0(174)		2.50	
전체	19.8	24.3	46.6	6.9	2.4	100.0(506)		2.48	
모 연령									
35세 미만	20.2	22.9	46.9	6.8	3.1	100.0(292)		2.50	
36-45세 미만	18.9	27.9	44.8	7.0	1.5	100.0(201)	7.20(8)	2.44	
46세 이상	30.4	8.7	52.2	8.7	-	100.0(23)		2.39	
전체	20.2	24.2	46.3	7.0	2.3	100.0(516)		2.47	
부 학력									
F=4.53*									
중졸 이하	30.3	24.7	39.3	4.5	1.1	100.0(89)		2.21	
고졸	16.7	24.2	48.0	8.2	3.0	100.0(269)	10.43(8)	2.57	
초대졸 이상	19.7	23.8	49.0	5.4	2.0	100.0(147)		2.46	
전체	20.0	24.2	46.7	6.7	2.4	100.0(505)		2.47	
모 학력									
중졸 이하	22.7	23.5	45.4	6.7	1.7	100.0(119)		2.41	
고졸	19.2	24.9	45.1	7.8	3.1	100.0(193)	1.92(8)	2.51	
초대졸 이상	19.4	24.8	47.6	6.3	1.9	100.0(206)		2.47	
전체	20.1	24.5	46.1	6.9	2.3	100.0(518)		2.47	
가계 소득									
F=3.01*									
150만원 미만	32.0	19.2	40.8	7.2	0.8	100.0(125)		2.26	
150-250만원	18.8	24.9	46.1	6.9	3.3	100.0(245)		2.51	
250만원 이상	13.5	25.6	51.9	6.8	2.3	100.0(133)	24.50(12)*	2.59	
모름/무응답	-	44.4	50.0	5.6	-	100.0(18)		2.61	
전체	20.0	24.4	46.4	6.9	2.3	100.0(521)		2.47	
모 출신국									
F=3.45**									
한국	-	-	50.0	-	50.0	100.0(2)		3.50	
중국(조선족)	11.9	19.0	57.1	8.3	3.6	100.0(84)		2.72	
중국(한족)	16.7	26.7	44.4	6.7	5.6	100.0(90)		2.58	
일본	18.6	27.5	47.1	5.9	1.0	100.0(102)	-	2.43	
필리핀	21.6	19.6	52.9	5.9	-	100.0(51)		2.43	
베트남	21.2	24.6	43.2	9.3	1.7	100.0(118)		2.46	
몽골	40.0	26.7	33.3	-	-	100.0(30)		1.93	
기타	27.3	27.3	38.6	6.8	-	100.0(44)		2.25	
전체	20.0	24.4	46.4	6.9	2.3	100.0(521)		2.47	

* p <.05, ** p <.01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아동의 '수용'언어발달을 살펴본 결과(표 V-2-11), 부모의 연령에 의한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아버지 학력에 의한 아동의 언어이해력에는 차이가 있어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아동의 수용언어발달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의한 차이도 유의하여 가구소득이 많은 가정일수록 다문화아동의 수용언어발달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출신국에 따라 아동의 수용언어발달점수에도 차이가 있어, 한국아동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 아동의 표현언어발달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한족), 베트남과 필리핀,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외국인 근로자가족의 하나인 몽골 모 아동의 수용언어점수가 표현언어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에 모 출신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4) 다문화아동 언어발달수준의 관련 요인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언어능력, 심리사회적 특성(우울,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 양육특성(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부의 양육참여)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의 공공서비스 이용 등에 따라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평균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한 관련변인이 나타났다.

가)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과 모의 언어능력의 상관관계

아동의 언어발달수준과 모의 언어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의 표현언어와 수용언어는 모의 표현언어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표 V-2-12).

〈표 V-2-12〉 아동의 언어발달수준과 모의 언어능력 간의 상관관계

	아동 표현언어수준	아동 수용언어수준	모 표현언어수준
아동 표현언어수준	1		
아동 수용언어수준	.366***	1	
모 표현언어수준	.284***	.222***	1

*** p <.001

나) 아동의 언어발달수준과 모의 심리사회적 요인 및 양육특성의 관계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은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우울,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 양육관련 변인(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부의 양육참여)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V-2-13).

〈표 V-2-13〉 아동의 언어발달수준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상관관계

	어머니우울	사회적지지	결혼만족도
아동 표현언어수준	.018	.075	.044
아동 수용언어수준	-.015	.021	.020

다) 아동의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언어발달 수준

한편, 아동이 이용하는 각종 공공지원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양에 따라 아동의 언어발달수준이 다른지 살펴본 결과(표 V-2-14), 공공서비스 이용이 세 가지 이상으로 많은 경우 다문화아동의 표현언어 발달지체와 정상이상의 우수 비율 양자가 상대적으로 높아 두 가지의 상반된 양상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즉 공공서비스의 이용이 많을수록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수준이 높으며, 동시에 언어발달지체인 다문화아동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V-2-14〉 아동의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언어발달 차이

단위: %(명)

	구분	발달 지체	약간 지체	정상	우수	매우 우수	전체	X ² (df)
표 현 언 어	이용안함	21.8	22.2	45.4	9.9	0.7	100.0(284)	22.24(12)*
	한가지이용	15.9	24.1	51.2	8.2	0.6	100.0(170)	
	두가지이용	18.9	18.9	47.2	9.4	5.7	100.0(53)	
	세가지이상	33.3	-	60.0	-	6.7	100.0(15)	
	(전체)	19.9	21.8	47.9	9.0	1.3	100.0(522)	
수 용 언 어	이용안함	22.8	22.5	44.9	8.1	1.8	100.0(285)	18.16(12)
	한가지이용	16.6	26.6	50.3	4.1	2.4	100.0(169)	
	두가지이용	13.5	30.8	44.2	9.6	1.9	100.0(52)	
	세가지이상	26.7	13.3	40.0	6.7	13.3	100.0(15)	
	(전체)	20.0	24.4	46.4	6.9	2.3	100.0(521)	

다.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 변인(연령, 성별,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부모변인(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양육스트레스,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행동, 모 우울,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어머니 표현언어), 아동과 부모의 공공 서비스이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표현언어 발달에는 아동의 인지발달(인지처리과정), 모의 표현어휘력, 모의 체류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2-15).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모의 표현어휘 능력이 좋을수록 아동의 표현언어 수준도 높았다. 아동 자신의 인지처리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모의 언어능력으로 나타났다. 모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표현언어 발달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부족과 감소, 또는 모 언어능력의 정체로 아동의 표현어휘력 성장이 또래아동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모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모 행동에서 여가활동과 발달·교육부분, 긍정적 양육행동이 적어지고 규제·지도의 양육행동이 늘어나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2-15〉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표현언어발달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15	.28		-29	.28		-.09	.29	
인지발달(인지처리과정)	.03	.01	.43	.02	.01	.39	.02	.01	.39
모 표현어휘능력				.01	.01	.19	.01	.01	.23
모 체류기간							-.10	.05	-.10
조정 R ²	.179			.210			.217		
F	92.77***			56.95***			39.72***		
(수)	(421)			(421)			(421)		

*** p <.001

아동의 수용언어 발달에는 아동의 인지발달(인지처리과정), 모의 표현어휘력, 모 연령, 아동의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2-16). 표현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모의 표현어휘력이 좋을수록 아동의 수용언어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모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아동의 수용언어발달 수준이 낮아졌으며 남아보다 여아의 수용언어발달 수준이 높았다. 모의 연령은 모의 체류기간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모 연령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현언어발달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수용언어발달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부족과 감소, 또는 모 언어능력의 정체로 아동의 표현어휘력 성장이 또래아동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모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모 행동에서 여가활동과 발달·교육부분, 긍정적 양육행동이 적어지고 규제·지도의 양육행동이 늘어나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2-16〉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수용언어발달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31	.29		-.40	.29		.16	.30		-.38	.31	
인지발달												
(인지처리과정)	.03	.01	.43	.02	.01	.40	.02	.01	.40	.02	.01	.39
모 표현어휘 능력				.01	.01	.13	.01	.01	.16	.01	.01	.17
모 연령							-.19	.07	-.12	-.19	.07	-.12
아동 성별										.18	.08	.10
조정 R ²		.18			.20			.21			.22	
F		95.31***			52.73***			37.91***			29.89***	
(수)		(421)			(421)			(421)			(421)	

주: dummy 남아=0, 여아=1.

*** p <.001

전반적으로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유의한 변수는 아동 자신의 인지처리능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변인으로는 모의 언어능력, 모의 연령 또는 체류기간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다문화아동의 표현언어발달에 가장 주요한 환경은 결국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모 어휘력이 증가하고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줄며 사회적 지지를 조금 더 높게 인식하며 우울감 역시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양육행동에서 여가활동과 발달·교육부분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적어지고 규제·지도의 양육행동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환경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아동의 인지능력, 어머니 언어능력 등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을 넣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들에서는 대체로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10%미만으로 낮은 가운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외국인근로가정에 비해 결혼이민자가족일수록, 그리고 학원이나 학습지 등의 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문화아동의 (표현·수용)언어수준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인지처리능력과 모의 언어능력, 아동-모의 상호작용의 질을 고려할 때 그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유의한 근접변인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는 모의 언어능력과 모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임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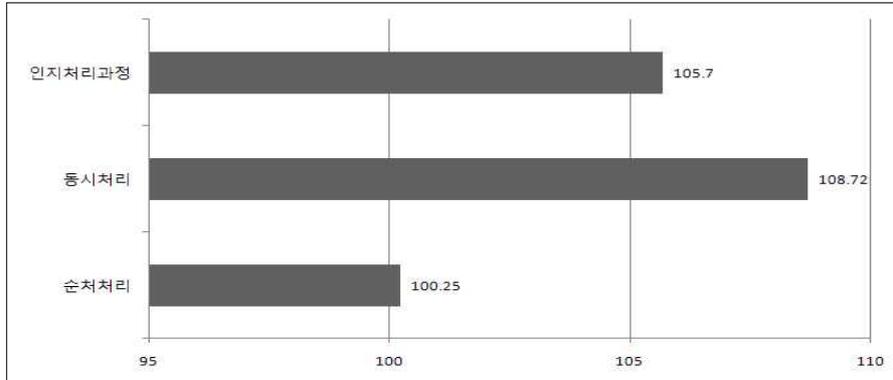
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실태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을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표 V-3-1> 과 같다. 순차처리 평균 100.25점, 동시처리 평균 108.72점으로 순차처리 점수보다 동시처리 점수가 약간 더 높았다. 순차처리와 동시처리를 합산한 인지처리과정 점수는 평균 105.70점이었다. 조사대상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수준 평균은 평균수준이거나 평균을 다소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V-3-1>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능력(K-ABC)

단위: %(명), 점

구분	낮음	보통	높음	검사 불능	계(수)	평균(표준편차)
순차처리	14.0	68.7	15.4	1.9	100.0(534)	100.25(18.67)
동시처리	5.6	68.4	24.2	1.9	100.0(534)	108.72(15.08)
인지처리과정	7.9	71.2	19.1	1.9	100.0(534)	105.70(16.39)



[그림 V-3-1] 다문화아동의 인지능력(K-ABC)

아동의 인지능력을 세 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순차와 동시, 인지처리과정 모두 '보통' 수준이 가장 많아 순차처리와 동시처리가 68.7%, 68.4%로 거의 동일한 아동의 비율을 보였으며, 인지처리과정이 이보다 약간 많은 71.2%였다. '높은' 수준은 동시처리가 24.2%로 가장 많았고, 인지처리과정, 순차처리 순으로 많았다. '낮은' 수준은 순차처리가 14.0%로 동시처리나 인지처리과정보다 2~3배 더 많았다. 다문화아동의 인지처리는 순차처리보다 동시처리에서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나. 제 특성별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실태

1) 아동 특성별 인지발달

아동의 개인 특성, 즉, 연령, 성별에 따라 아동의 인지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V-3-2> 와 같다.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대체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상대적으로 만2세의 인지점수가 가장 낮았다. 인지, 순차와 동시 처리 모두에서 2세아의 경우 낮은 수준의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많았다. 아동 성별에 의하면 남아보다 여아의 인지점수가 높았으며 동시처리와 인지처리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순차처리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표 V-3-2〉 아동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

구분	낮음	보통	높음	계(수)	단위: %(명), 점 평균(표준편차)
인지처리 (전체)	8.0	72.5	19.5	100.0(524)	105.70(16.39)
아동 연령					
만 2세	23.8	57.1	19.0	100.0(21)	99.29(18.25)
만 3세	9.9	70.9	19.1	100.0(141)	103.84(18.28)
만 4세	5.4	76.4	18.2	100.0(148)	106.06(14.61)
만 5세	7.1	72.3	20.5	100.0(112)	106.33(16.59)
만 6세	7.7	69.2	23.1	100.0(78)	108.49(15.79)
만 7세 이상	4.2	83.3	12.5	100.0(24)	108.00(12.88)
$X^2(df)/F$		11.85			1.61
아동 성별					
남아	10.0	71.4	18.6	100.0(280)	104.39(17.40)
여아	5.7	73.8	20.5	100.0(244)	107.20(15.05)
$X^2(df)/t$		0.19			-1.99*
순차처리 (전체)	14.3	70.0	15.6	100.0(524)	100.25(18.67)
아동 연령					
만 2세	28.6	52.4	19.0	100.0(21)	96.14(20.30)
만 3세	17.7	63.1	19.1	100.0(141)	99.11(21.16)
만 4세	12.2	79.1	8.8	100.0(148)	99.19(15.49)
만 5세	11.6	67.9	20.5	100.0(112)	102.39(19.52)
만 6세	14.1	70.5	15.4	100.0(78)	101.69(18.57)
만 7세 이상	8.3	79.2	12.5	100.0(24)	102.42(15.79)
$X^2(df)/F$		17.35 ⁺ (10)			.86
아동 성별					
남아	15.0	69.3	15.7	100.0(280)	99.68(19.15)
여아	13.5	70.9	15.6	100.0(244)	100.91(18.12)
$X^2(df)/t$		0.25			-.76
동시처리 (전체)	5.7	69.7	24.6	100.0(524)	108.72(15.08)
아동 연령					
만 2세	9.5	85.7	4.8	100.0(21)	102.29(15.32)
만 3세	8.5	68.8	22.7	100.0(141)	107.05(16.54)
만 4세	4.7	67.6	27.7	100.0(148)	110.24(14.63)
만 5세	4.5	68.8	26.8	100.0(112)	108.41(15.10)
만 6세	3.8	70.5	25.6	100.0(78)	111.09(13.48)
만 7세 이상	4.2	75.0	20.8	100.0(24)	108.42(11.62)
$X^2(df)/F$		10.53			1.82
아동 성별					
남아	7.1	71.8	21.1	100.0(280)	107.21(16.01)
여아	4.1	67.2	28.7	100.0(244)	110.44(13.77)
$X^2(df)/t$		0.06			-2.49*

+ p < .10, * p < .05

2) 가족특성별 인지발달

가족유형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을 살펴본 결과(표 V-3-3), 대체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이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인지처리과정 점수에서 결혼이민자 자녀가 평균 106.17점, 외국인근로자 자녀 평균 100.55점으로 결혼이민자 자녀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수준별로 살펴보면, 낮음, 보통 수준 모두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나 높은 수준에서 외국인근로자보다 결혼이민자 자녀가 두 배정도 많았다. 순차처리 점수에서도 결혼이민자가 평균 100.70점, 외국인근로자가 평균 95.48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높은 수준에서 결혼이민자가 16.5%, 외국인근로자 9.1%로 5% 이상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시처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결혼이민자 평균 109.06점, 외국인근로자 평균 104.93으로 5점 정도 차이가 있었다. 동시처리 점수도 높은 수준에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에 10% 정도 차이를 보였다.

〈표 V-3-3〉 가족유형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

	낮음	보통	높음	계(수)	단위: %(명), 점 평균(표준편차)
인지처리 (전체)	8.0	72.5	19.5	100.0(524)	105.70(16.39)
가족유형					
결혼이민자	7.9	71.8	20.3	100.0(483)	106.14(16.48)
외국인근로자	9.8	80.5	9.8	100.0(41)	100.56(14.51)
X ² (df)/t		2.71(2)			2.10*
순차처리 (전체)	14.3	70.0	15.6	100.0(524)	100.25(18.67)
가족유형					
결혼이민자	14.5	69.2	16.4	100.0(483)	100.68(18.83)
외국인근로자	12.2	80.5	7.3	100.0(41)	95.20(16.03)
X ² (df)/t		2.80(2)			1.81 ⁺
동시처리 (전체)	5.7	69.7	24.6	100.0(524)	108.72(15.08)
가족유형					
결혼이민자	5.6	69.2	25.3	100.0(483)	109.04(15.08)
외국인근로자	7.3	75.6	17.1	100.0(41)	104.95(14.76)
X ² (df)/t		1.45(2)			1.67 ⁺

+ p <.10, * p <.05

3) 부모 특성별 인지발달

부모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4>는 부모특성별 순차처리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부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부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순차처리 점수가 높았다. 순차처리 점수를 수준별로 살펴보면, 높은 수준은 초대졸 이상이 21.3%로 가장 많고, 중졸 이하와 고졸은 각각 13.8%, 13.7%였다. 가계소득별로도 차이를 보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순차처리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모의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 모의 아동이 평균 106.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 한족(104.1), 일본(101.4), 베트남(98.8), 필리핀(94.4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몽골(92.8)이 가장 낮았다. 이를 수준별로 보면, 높은 수준은 중국 조선족과 중국 한족이 가장 많았으며, 낮은 수준은 필리핀, 베트남, 일본, 몽골의 순으로 많았다.

다문화아동의 동시처리 점수를 부모특성별로 살펴보면(표 V-3-5), 모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자녀의 동시처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수준별 분포를 보면, 높은 수준은 초대졸 이상이 가장 많고, 낮은 수준은 중졸 7.7%이하가 많았다. 가계소득별로도 유의하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의 동시처리 점수가 높았다.

모의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한족이 평균 111.98점으로 가장 높고, 중국 조선족, 일본, 몽골이 110점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이 그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수준별로는 높은 수준은 중국 조선족이 36.5%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14.7%로 가장 적었다. 낮은 수준은 베트남이 10.3%, 필리핀 9.6%로 가장 높고, 이외 국가는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지처리과정 점수도 부모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V-3-6).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인지처리과정 점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모의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그리고 일본이 각 평균 109.8점, 109.8점, 107.5점으로 높았으며, 다른 국가는 100점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V-3-4〉 부모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 순차처리

구분	단위: %(명), 점				
	낮음	보통	높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부 학력					
(전체)	14.6	69.5	15.9	100.0(508)	100.15(18.84)
중졸 이하	17.2	69.0	13.8	100.0(87)	97.66(19.40)
고졸	16.2	70.1	13.7	100.0(271)	99.19(18.43)
초대졸 이상	10.0	68.7	21.3	100.0(150)	103.33(18.95)
X ² (df)/F		7.00(4)			3.28*
모 학력					
(전체)	14.3	69.9	15.8	100.0(519)	100.28(18.70)
중졸 이하	17.9	66.7	15.4	100.0(117)	99.09(20.51)
고졸	14.4	66.5	19.1	100.0(194)	100.95(19.00)
초대졸 이상	12.0	75.0	13.0	100.0(208)	100.32(17.36)
X ² (df)/F		5.50(4)			0.36
가구 소득					
(전체)	14.3	70.0	15.6	100.0(524)	100.25(18.67)
150만원 미만	17.9	70.7	11.4	100.0(123)	96.54(18.77)
150만원~250만원 미만	14.2	69.9	15.9	100.0(246)	99.96(18.59)
250만원 이상	12.4	67.2	20.4	100.0(137)	104.00(18.64)
모름/무응답	5.6	88.9	5.6	100.0(18)	101.00(14.85)
X ² (df)/F		8.11(6)			3.54*
모 출신국					
(전체)	14.3	70.0	15.6	100.0(524)	100.31(18.67)
한국	33.3	33.3	33.3	100.0(3)	94.75(23.80)
중국(조선족)	7.1	71.4	21.4	100.0(84)	106.10(18.19)
중국(한족)	12.1	68.1	19.8	100.0(91)	104.12(18.55)
일본	13.5	71.2	15.4	100.0(104)	101.42(17.60)
필리핀	21.2	73.1	5.8	100.0(52)	94.40(15.77)
베트남	16.4	65.5	18.1	100.0(116)	98.75(19.91)
몽골	12.9	87.1	-	100.0(31)	92.77(11.97)
기타	20.9	67.4	11.6	100.0(43)	95.60(21.15)
X ² (df)/F		22.33 [†] (14)			3.87 ^{***}

* p <.05, ** p <.01

〈표 V-3-5〉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인지발달: 동시처리

구분					단위: %(명), 점	
	낮음	보통	높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부 학력						
(전체)	5.7	69.7	24.6	100.0(508)	108.69(15.09)	
중졸 이하	9.2	69.0	21.8	100.0(87)	106.10(16.28)	
고졸	6.3	67.9	25.8	100.0(271)	109.06(15.65)	
초대졸 이상	2.7	73.3	24.0	100.0(150)	109.51(13.17)	
X ² (df)/F		5.31(4)			1.59	
모 학력						
(전체)	5.6	69.6	24.9	100.0(519)	108.78(15.06)	
중졸 이하	7.7	75.2	17.1	100.0(117)	105.58(15.59)	
고졸	5.7	70.1	24.2	100.0(194)	108.68(15.54)	
초대졸 이상	4.3	65.9	29.8	100.0(208)	110.66(14.02)	
X ² (df)/F		7.39(4)			4.33*	
가구 소득						
(전체)	5.7	69.7	24.6	100.0(524)	108.72(15.08)	
150만원 미만	8.1	72.4	19.5	100.0(123)	106.27(16.29)	
150만원~250만원 미만	5.7	70.7	23.6	100.0(246)	108.59(14.48)	
250만원 이상	3.6	65.0	31.4	100.0(137)	111.26(14.95)	
모름/무응답	5.6	72.2	22.2	100.0(18)	107.83(13.65)	
X ² (df)/F		8.11(6)			2.43 ⁺	
모 출신국						
(전체)	5.7	69.7	24.6	100.0(524)	108.80(15.02)	
한국	-	100.0	-	100.0(3)	104.75(10.53)	
중국(조선족)	2.4	61.9	35.7	100.0(84)	110.95(14.22)	
중국(한족)	4.4	67.0	28.6	100.0(91)	111.98(15.89)	
일본	3.8	73.1	23.1	100.0(104)	110.40(13.84)	
필리핀	9.6	65.4	25.0	100.0(52)	106.65(16.04)	
베트남	10.3	75.0	14.7	100.0(116)	105.04(15.70)	
몽골	6.5	64.5	29.0	100.0(31)	110.33(13.10)	
기타	2.3	74.4	23.3	100.0(43)	106.09(13.82)	
X ² (df)/F		-			2.52*	

* p <.10, * p <.05

〈표 V-3-6〉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아동의 인지발달: 인지처리과정

구분	단위: %(명), 점				
	낮음	보통	높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부 학력					
(전체)	8.3	72.4	19.3	100.0(508)	105.63(16.49)
중졸 이하	10.3	75.9	13.8	100.0(87)	102.98(17.62)
고졸	9.2	72.0	18.8	100.0(271)	105.46(16.71)
초대졸 이상	5.3	71.3	23.3	100.0(150)	107.48(15.25)
X ² (df)/F		5.16(4)			2.09
모 학력					
(전체)	7.9	72.4	19.7	100.0(519)	105.76(16.38)
중졸 이하	12.8	73.5	13.7	100.0(117)	102.93(17.84)
고졸	6.2	73.2	20.6	100.0(194)	106.13(16.94)
초대졸 이상	6.7	71.2	22.1	100.0(208)	107.00(14.81)
X ² (df)/F		7.61(4)			2.40 ⁺
가계 소득					
(전체)	8.0	72.5	19.5	100.0(524)	105.70(16.39)
150만원 미만	12.2	71.5	16.3	100.0(123)	102.33(17.53)
150만원~250만원 미만	7.3	76.4	16.3	100.0(246)	105.55(16.00)
250만원 이상	5.8	65.7	28.5	100.0(137)	109.01(15.77)
모름/무응답	5.6	77.8	16.7	100.0(18)	105.61(14.48)
X ² (df)/F		12.98 ⁺ (6)			3.67 [*]
모 출신국					
(전체)	8.0	72.5	19.5	100.0(524)	105.79(16.36)
한국	-	66.7	33.3	100.0(3)	99.50(18.12)
중국(조선족)	2.4	75.0	22.6	100.0(84)	109.83(15.03)
중국(한족)	5.5	69.2	25.3	100.0(91)	109.79(17.39)
일본	5.8	72.1	22.1	100.0(104)	107.51(15.02)
필리핀	13.5	75.0	11.5	100.0(52)	101.67(16.07)
베트남	11.2	72.4	16.4	100.0(116)	102.65(17.00)
몽골	9.7	77.4	12.9	100.0(31)	102.87(13.00)
기타	14.0	69.8	16.3	100.0(43)	101.44(16.88)
X ² (df)/F		16.59(14)			3.52 ^{**}

* p <.05

한편,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과 아동의 인지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표 V-3-7), 아동의 인지발달 전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표현언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은 것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아동의 순차-동시 처리간의 상관은 .44로 나타났다.

〈표 V-3-7〉 모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과 아동의 인지발달 상관관계

		아동인지발달			어머니의 표현언어
		순차처리	동시처리	인지과정	
아동	순차처리	1			
	동시처리	.44***	1		
	인지과정	.82***	.86***	1	
어머니	표현언어	.19***	.15**	.20**	1

** p <.01, *** p <.001

다.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 변인(성별, 사회정서발달, 표현언어, 수용언어), 부모변인(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 표현언어), 사회적 지지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순차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표 V-3-8),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부모 학력이 아동의 순차처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변인 중 성별, 부모 변인 중 부모 연령, 가구 소득,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 표현 언어, 사회적 지지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8〉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순차처리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3.36	0.11							
아동의 수용언어	0.11	0.12	0.31	0.09	0.02	0.26	0.10	0.02	0.27
아동의 표현언어				0.01	0.002	0.14	0.01	0.002	0.13
부모 학력							0.13	0.06	0.10
조정 R ²		0.09			0.11			0.12	
F		45.61***			27.67***			20.17***	
(수)		(534)			(534)			(534)	

*** p <.001

아동의 동시처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표 V-3-9), 아동의 수용언어,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 학력, 아동의 성별이 아동의 동시처리 점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수용어휘력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이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아에 비해 여아인 경우 동시처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동시처리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4.08	0.10		2.81	0.51		2.22	0.56		2.16	0.56	
아동 수용언어	0.10	0.01	0.32	0.10	0.01	0.32	0.10	0.01	0.32	0.10	0.01	0.32
모 양육행동				0.04	0.01	0.11	0.04	0.01	0.12	0.03	0.01	0.11
부 학력							0.13	0.05	0.11	0.14	0.05	0.12
아동 성별										0.25	0.12	0.10
조정 R ²	0.10			0.11			0.12			0.13		
F	48.83***			27.88***			20.86***			16.89***		
(수)	(534)			(534)			(534)			(534)		

주: dummy 남아=0, 여아=1
*** p <.001

아동의 인지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아버지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지처리과정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3-10).

〈표 V-3-10〉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인지처리과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3.72	0.10							
아동의 수용언어	0.11	0.01	0.36	0.10	0.12	0.11	0.11	0.02	0.33
아동의 표현언어				0.004	0.002	0.11	0.004	0.002	0.11
부 학력							0.11	0.05	0.09
조정 R ²	0.12			0.13			0.14		
F	63.82***			35.26***			25.11***		
(수)	(534)			(534)			(534)		

*** p <.001

다문화 아동의 인지발달의 경우, 아동 자신의 언어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인 가운데, 환경변인으로는 아버지 학력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모 양육행동과 같은 양육환경의 질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 변인은 본 조사에서 미처 측정하지 못한 부의 언어능력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4.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발달

가. 어머니가 평정한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실태

1) 사회정서발달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가 평정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의 일반적 경향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는 자녀의 사회정서 행동에 관해 1점에서 4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회정서 발달 평균 점수를 3.13으로 응답하여 하위항목들에 대해 약간 높은 점수라고 하겠다. 하위항목별로 보면, 내재적 문제의 평균은 1.74와 외현적 문제의 평균은 2.01점, 긍정-친사회적 행동은 3.15점으로 나타났다.

〈표 V-4-1〉 다문화 아동 사회정서 발달의 일반적 경향

구분	최소	최대	단위: 점, 명	
			평균(표준편차)	(수)
친사회적 행동	1.00	4.00	3.15(0.45)	(519)
내재적 문제	1.00	3.57	1.74(0.52)	(522)
외현적 문제	1.00	3.50	2.01(0.52)	(523)
사회정서발달	2.00	4.00	3.13(0.36)	(504)

2) 아동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정서 발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V-4-2). 먼저,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의 차이를 보면, 외현적 문제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만 2세의 외현적 문제는 2.32로 다른 문제 행동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정

서 발달 총점은 두드러지지 않는지만 3세부터 6세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정서발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아의 발달이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2〉 아동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차이

연령	단위: 점, 명				(수)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	외현적 문제	사회정서발달	
만 2세	3.17	1.74	2.32	3.02	(23)
만 3세	3.13	1.82	2.14	3.05	(136)
만 4세	3.15	1.76	1.98	3.13	(138)
만 5세	3.20	1.68	1.90	3.20	(108)
만 6세	3.11	1.62	1.87	3.19	(76)
만 7세이상	3.15	1.74	1.94	3.14	(23)
F	0.43	1.77	6.11***	3.14*	
성별					
남아	3.11	3.24	2.96	3.10	(269)
여아	3.20	3.28	3.03	3.16	(235)
t	-2.20*	-0.71	-1.2	-1.99*	

* p <.05, ** p <.01, *** p <.001

3) 가족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아동의 가족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V-4-3).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았을 때 사회정서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경기 충청지역이 경상 전라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차이에 따른 사회정서발달의 차이에서는 외현적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를 제외한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 사회정서발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친사회성과 사회정서발달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아동이 높고, 내재적 문제에서는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3〉 가족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구분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	외현적 문제	사회정서발달	단위: 점, 명 (수)
(전체)	3.23	1.74	2.01	3.13	(504)
거주지역					
서울	3.22	1.69	2.09	3.14	(120)
경기/충청	3.18	1.68	1.92	3.19	(181)
경상	3.08	1.89	2.07	3.02	(104)
전라	3.07	1.73	2.00	3.10	(99)
F	3.35*	4.35**	3.67*	5.41**	
지역규모					
도시	3.16	1.74	2.00	3.14	(429)
농촌	3.11	1.72	1.84	3.08	(75)
t	0.92	-0.32	0.90	1.31	
가족유형					
결혼이민자가정	3.14	1.75	2.01	3.11	(462)
외국인근로자가정	3.29	1.55	1.90	3.28	(42)
t	-2.15*	-2.48*	-1.45	-2.87**	

* p <.05, ** p <.01, *** p <.001

4) 부모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부모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V-4-4>와 같다.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전반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점수가 높고 문제행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친사회적 행동은 증가하고 외현적 문제 행동이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의 또 다른 특성에 따른 아동들의 사회정서 발달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출신국, 어머니의 체류기간과 맞벌이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출신국에 의하면 조선족 모의 자녀들이 사회정서발달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 점수는 가장 낮았다. 필리핀 모의 자녀도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베트남 모의 아동은 사회정서발달점수는 가장 낮고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은 가장 높았다. 몽골 모의 아동은 외현적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4〉 부모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단위: 점, 명

구분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	외현적 문제	사회정서발달	(수)
모연령					
35세 이하	3.15	1.80	2.06	3.09	(294)
36세 ~45세 미만	3.16	1.66	1.95	3.18	(204)
46세 이상	3.20	1.62	1.86	3.23	(23)
F	0.11	5.18**	3.74*	4.68*	
모학력					
중졸이하	3.10	1.84	2.10	3.04	(118)
고졸	3.17	1.68	1.99	3.15	(196)
초대졸 이상	3.16	1.72	1.98	3.15	(209)
F	3.91*	1.07	3.54*	2.04	
모 출신국					
한국	3.28	1.54	1.88	3.28	(3)
중국-조선족	3.20	1.52	1.81	3.29	(82)
중국-한족	3.14	1.72	2.04	3.11	(90)
일본	3.13	1.70	1.95	3.16	(103)
필리핀	3.19	1.63	1.96	3.19	(54)
베트남	3.11	1.95	2.12	3.01	(118)
몽골	3.17	1.69	2.13	3.10	(29)
기타	3.18	1.84	2.13	3.07	(45)
F	0.44	6.11***	3.56**	4.85***	
모 체류기간					
4년미만	3.09	1.76	2.22	3.03	(31)
4년이상 7년미만	3.15	1.82	2.10	3.07	(223)
7년이상10년미만	3.18	1.71	1.90	3.17	(118)
10년이상	3.15	1.63	1.92	3.19	(148)
F	0.28	4.06**	7.31***	4.72**	
맞벌이 여부					
외벌이	3.12	1.76	2.04	3.10	(351)
맞벌이	3.22	1.68	1.95	3.18	(173)
t	-2.33*	-1.66	-1.68	-2.32*	

* p <.05, ** p <.01, *** p <.001

어머니의 체류기간에 의하면 모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정서발달 점수가 높아져, 10년 이상인 경우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내재적 행동과 외현적 행동에 있어서도 체류기간이 긴 어머니의 자녀가 더 문제행동의 점수가 낮아지고 통제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맞벌이 여부에 의하면, 맞벌이인 경우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의 점수가 높고 전반적인 사회정서 발달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 종교유무와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 발달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1) 일반적 경향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들이 평정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의 하위영역들의 평균 점수들은 다음과 같다.

〈표 V-4-5〉 교사가 평정한 일반적 경향

구분	최소	최대	단위: 점, 명	
			평균(표준편차)	(수)
친사회적 행동	1.40	4.00	2.97(0.51)	(237)
내재적 문제	1.00	3.45	1.81(0.60)	(236)
외현적 문제	1.00	3.78	1.78(0.64)	(237)
사회정서발달	1.83	4.00	3.13(0.47)	(227)
사회적 유능성	1.26	4.00	2.86(0.51)	(234)

친사회적 행동 2.97, 내재적 문제(불안-위축된 행동) 1.81, 외현적 문제(분노-공격적 행동) 1.78, 사회정서발달 평균은 3.13, 사회적 유능성 점수는 2.86으로 나타나, 대체로 사회정서발달과 친사회성, 사회적 유능성 발달이 양호한 편에 속하며, 문제행동은 별로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발달을 분석한 결과(표 V-4-6), 아동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이 증가하고, 내재적 문제행동도 증가하나, 외현적 문제행동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친사회성,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이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6〉 아동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단위: 점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	외현적 문제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성
연령					
만 2세	2.80	1.55	1.75	3.20	2.66
만 3세	2.84	1.76	1.89	3.07	2.78
만 4세	3.00	1.85	1.83	3.11	2.88
만 5세	3.06	1.77	1.71	3.19	2.91
만 6세	3.10	1.86	1.66	3.19	2.95
만 7세이상	3.05	2.10	1.60	3.13	2.92
F	2.11	1.34	1.03	0.54	0.96
성별					
남아	2.86	1.83	1.85	3.06	2.78
여아	3.11	1.79	1.69	3.22	2.97
t	-3.88***	-0.48	-1.90	-2.67*	-2.81**

* p <.05, ** p <.01, *** p <.001

3) 가족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이 가족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아동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의 점수는 낮고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의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7〉 가족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단위: 점

구분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	외현적 문제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성
가족유형					
결혼이민자가정	3.00	1.79	1.73	3.17	2.89
외국인근로자가정	2.67	2.01	2.34	2.78	2.56
t	2.97**	1.60	4.44***	3.78***	2.97**

* p <.05, ** p <.01, *** p <.001

4) 부모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부모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알아보고자 먼저 부모의 연령과 학력을 분석한 결과(표 V-4-8), 부모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각각의 영역의 발달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도 올라갈수록 사회정서 발달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4-8〉 부모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	외현적 문제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성
단위: 점					
모 출신국					
한국	2.90	2.14	2.17	2.87	2.61
중국-조선족	2.96	1.75	1.80	3.14	2.88
중국-한족	3.03	1.81	1.81	3.13	2.94
일본	3.03	1.84	1.72	3.17	2.92
필리핀	3.11	1.92	1.72	3.19	2.95
베트남	2.93	1.82	1.79	3.12	2.79
몽골	3.08	1.91	1.94	3.08	2.84
기타	2.70	1.70	1.67	3.11	2.67
F	1.34	0.38	0.35	0.19	0.98
모 체류기간					
4년미만	2.51	1.68	1.92	2.97	2.41
4년이상 7년미만	2.98	1.76	1.81	3.15	2.91
7년이상 10년미만	3.07	1.80	1.67	3.21	3.00
10년이상	3.02	1.92	1.74	3.12	2.82
F	5.82**	1.19	0.87	1.13	6.24***
소득					
150만원 미만	2.92	1.88	1.79	3.08	2.77
150~250만원 미만	2.96	1.77	1.77	3.15	2.87
250만원 이상	3.04	1.79	1.80	3.16	2.94
모름/무응답	3.08	2.09	1.78	3.10	3.00
F	0.69	1.05	0.02	0.38	1.41

* p <.05, ** p <.01, *** p <.001

또 다른 부모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의 출신국, 체류기간, 종교여부, 소득, 맞벌이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표 V-4-8), 어머니의 체류기간 외에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즉, 모 체류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사회정서 발달, 사회적 유능이 증가하고 내재적 문제행동도 증가하며, 반면에 외현적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 체류기간에 따른 친사회성과 사회적 유능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가구소득이 증

가할수록 아동의 친사회성과 사회적 유능이 증가하였으며, 모 출신국별로는 몽골과 필리핀 모 아동의 경우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양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중국 한족과 일본 모의 아동은 친사회성과 사회정서, 사회적 유능의 점수가 높고 문제행동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변인 간 상호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독립변인들과 사회정서발달 총점,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 외현적 문제 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파악하고자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설명하는 아동 특성 변인(아동의 연령, 성별, 아동의 건강, 아동의 순차점수, 동시 점수, 아동의 표현언어 점수, 아동의 수용언어 점수), 부모특성 변인(부학력, 모학력, 모의 체류기간, 가구 소득, 결혼 만족도), 사회적 특성 변인(사회적지지, 부모의 공공 서비스 이용)들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정서발달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아동특성, 부모특성, 사회적 특성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투입한 세 개의 독립변인들은 사회정서발달 총점에 대해 24%를 설명하였다.

〈표 V-4-9〉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총점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모형 1			모형 2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상수)	2.05	0.21		1.36	0.22	
아동의 성별	0.07	0.33	0.11	0.06	0.02	0.03
결혼만족도	0.10	0.26	0.19	0.07	0.03	0.12
모 체류기간	0.02	0.02	0.06	0.47	0.19	0.12
모 양육행동				0.30	0.04	0.32
조정 R2		0.16			0.24	
F		6.39***			9.68***	

*** p <.001

아동의 성별, 모의 결혼 만족도, 모의 체류기간과 양육행동에 의해 사회정서 발달 총점(전반)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여아일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점수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V-4-9).

두 번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V-4-10),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양육행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이 두 변인의 설명력은 11%였다. 즉,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표 V-4-10〉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모형 1			모형 2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상수	2.39	0.28		1.56	0.30	
결혼만족도	0.13	0.04	0.18	0.08	0.04	0.12
모 양육행동				0.35	0.06	0.29
조정 R ²		0.04			0.11	
F		2.21**			4.57***	

** p <.01, *** p <.001

세 번째,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V-4-11),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양육행동이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행동 많을수록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겠다. 이들 변인들의 내재적 문제 행동의 설명력은 11%였다.

〈표 V-4-11〉 아동의 내재적 문제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모형 1			모형 2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상수	2.11	0.30		1.53	0.33	
결혼만족도	0.14	0.04	0.18	0.11	0.04	0.14
모 양육행동				0.25	0.07	0.19
조정 R ²		0.08			0.11	
F		3.76***			4.54***	

*** p <.001

마지막으로 아동의 외현적 문제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V-4-12), 아동의 성별과 아동의 인지발달에서 순차처리 능력, 모의 양육행동이 외현적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동의 성이 여아인 경우, 인지적 능력에서 순차처리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은 줄어든다고 하겠다. 이러한 세 변인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표 V-4-12〉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모형 1			모형 2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상수	1.69	0.29		1.07	0.32	
아동의 성별	0.12	0.05	0.12	0.11	0.05	0.11
순차처리	0.04	0.00	0.16	0.00	0.00	0.17
모 양육행동				0.26	0.06	0.19
조정 R ²		0.16			0.19	
F		6.88***			7.79***	

*** p <.001

라.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교사 평정 비교

모가 평정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점수와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V-4-13). 교사용 설문지에 문항이 더 많아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두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회정서 발달의 총점과 내재적 문제에서 모의 평정과 교사의 평정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친사회적 특성과 외현적 문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또래 친구와 협동하고 놀잇감을 나누고 자신보다 어린 아동을 돌보는 등의 친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모가 교사보다 점수를 높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자주 보이는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교사에 비해 모가 더 많은 점수를 주었다. 즉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발달 인식은 교사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과 외현적 문제행동 양자를 모두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겠다.

〈표 V-4-13〉 모와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평정결과 차이

단위: 점(명)

구분	(수)	모평정 평균	교사평정 평균	대응차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t
사회정서발달	(216)	78.41(9.47)	78.40(11.58)	0.00(13.71)	.16*	.004
친사회적 행동	(230)	79.05(12.13)	74.25(12.87)	4.80(16.60)	.12	4.38***
내재적 문제	(231)	43.34(14.00)	41.66(13.64)	2.07(18.58)	.17**	1.69
외현적 문제	(233)	49.84(12.85)	44.53(16.04)	-5.31(19.27)	.12	-4.21***

* p <.05, ** p <.01, *** p <.001

마. 다문화아동의 기관적응 및 사회적 관계

사회정서발달 척도 조사 외에, 다문화아동의 기관 적응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 대한 모 평정을 부가적으로 조사하였다(표 V-4-14). 아동이 일정하게 다니고 있는 기관에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모 평정 결과, 95.3%의 대다수 어머니가 자녀가 기관에 잘 적응하고 있다(매우57.8%+비교적37.5%)고 평정하였다.

〈표 IV-4-14〉 아동의 기관 적응

단위: %(명)

구분	전혀		별로		비교적 잘 적응함	매우 잘 적응함	계(수)
	적응하지 못함	적응하지 못함	적응하지 못함	적응하지 못함			
전체	0.6	4.2	37.5	57.8			100.0(528)

아동의 사회적 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조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모가 주관적으로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표 V-4-15) 관계가 '좋다(매우+약간)'는 비율이 어머니와의 관계 98.3%, 선생님과의 관계 97.1%, 아버지와의 관계 9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할머니와의 관계가 좋다 73.0%, 형제자매와의 관계 67.0%,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50.4%로,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경우가 46.7%로 할아버지 부재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4-15〉 아동의 사회적 관계

단위: %(명), 점

	매우 좋지않음	좋지 않은편	좋은편	매우좋음	비해당 /없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와의 관계	0.9	3.4	38.4	55.8	1.5	100.0(534)	3.46(0.74)
어머니와의 관계	0.2	0.9	30.1	68.2	0.4	100.0(533)	3.66(0.55)
할아버지와의 관계	0.2	2.8	27.9	22.5	46.7	100.0(532)	1.80(1.73)
할머니와의 관계	0.6	4.1	41.2	31.8	22.3	100.0(531)	2.61(1.49)
형제자매와의 관계	0.2	3.6	35.2	31.8	29.3	100.0(525)	2.44(1.61)
선생님과의 관계	0.2	1.3	46.4	50.7	0.9	100.0(532)	3.46(0.63)

바. 교사와 기관장이 평정한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실태

교사들이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신체 발육 및 성장, 신체발달(운동성, 대근육/소근육), 언어발달, 인지발달 및 학업수행, 사회정서발달에 대해 교사의 주관적 평정을 조사한 결과(표 V-4-16), '지연(매우+약간)'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발육 및 성장 20.7%, 신체발달 11.5%, 언어발달 34.5%, 인지발달 및 학업수행 26.3%, 사회정서발달 22.4% 로 언어영역의 지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신체 발육 및 운동성 신체발달에서는 적게 나타났다. 대체로 언어-인지-사회정서-신체의 순으로 지연률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교사가 평정한 다문화아동의 발달은 영역에 따라 신체 발육 및 성장, 신체발달, 사회정서 발달에 비해 언어발달, 인지발달 및 학업수행에서 약간 지연되었다고 평가한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표 V-4-16〉 교사가 생각하는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실태

단위: %(명)

	매우 지연	약간 지연	양호	발달이 빠름	평균 (표준편차)	계(수)
발육 및 성장	1.7	19.0	69.0	10.3	2.88(0.59)	100.0(242)
신체 발달	1.2	10.3	80.2	8.3	2.95(0.48)	100.0(242)
언어 발달	7.5	27.0	52.3	13.3	2.71(0.79)	100.0(241)
인지발달/학업수행	3.8	22.5	63.3	10.4	2.80(0.67)	100.0(240)
사회정서 발달	1.2	21.2	71.8	5.8	2.82(0.54)	100.0(241)
기관적응	0.4	6.3	70.8	22.5	3.15(0.53)	100.0(240)
교사-아동 관계	0.4	2.1	69.9	27.5	3.25(0.50)	100.0(236)

한편 다문화 아동의 전반적인 기관적응과 교사-아동간 관계에 대해 4점평정 하에 한 결과(표 V-4-16) 양호한 수준 이상이 기관적응 93.3%, 교사-아동 관계 97.4%로 대체로 높은 가운데, 부정적 응답은 기관적응 6.7%, 교사-아동 관계 2.5%로 나타났다.

기관장, 즉 원장/학교장이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표 V-4-17). 기관장이 '지연(매우+약간)'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발육 및 성장 14.4%, 신체발달 11.3%, 언어발달 48.6%, 인지발달 및 학업수행 38.8%, 사회정서발달 26.4% 로 전반적으로 교사에 비해 기관장의 다문화아동의 발달 지연 인식률이 높았다. 교사와 마찬가지로 언어영역의 지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지/학업수행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신체발육 및 운동성 신체발달에서는 적게 나타났다. 대체로 언어-인지-사회정서-신체 의 순으로 지연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 인지 발달 및 학업수행에 관련해서 다른 영역에 비해 (약간) 지연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았다.

〈표 V-4-17〉 기관장이 생각하는 다문화아동의 전반적 발달실태

단위: %(명), 점

	매우 지연	약간 지연	양호	발달 빠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신체 발육 및 성장	0.6	13.8	83.1	2.5	2.88(0.42)	100.0(160)
신체 발달	-	11.3	86.2	2.5	2.91(0.36)	100.0(159)
언어 발달	4.3	44.3	48.7	2.5	2.49(0.63)	100.0(158)
인지발달 및 학업수행	1.3	37.5	57.5	3.8	2.64(0.58)	100.0(160)
사회정서 발달	1.9	24.5	67.9	5.7	2.77(0.57)	100.0(159)

5. 다문화아동의 발달영역간 상관관계

다문화아동의 각 발달 영역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V-5-1). 신체발달의 경우 다른 발달 영역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영역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인지발달의 경우 사회정서 발달, 표현 언어, 수용언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정서발달은 언어발달 중 표현 언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인지발달 수준은 사회정서 발달, 언어발달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고, 사회정서 발달은

표현언어발달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5-1〉 각 발달영역간 상관관계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언어발달	
				표현언어	수용언어
신체발달	1				
인지처리	.01	1			
사회정서발달	-.02	.13**	1		
표현언어	-.01	.42***	.11*	1	
수용언어	-.01	.43***	.09	.63***	1

* p <.05, ** p <.01, *** p <.001

세부적으로 각 발달 영역내 하위영역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V-5-2), 인지발달의 경우 하위 영역인 순차처리 능력과 동시처리능력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정서 발달의 하위 영역에서는 내재적 문제와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문제와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와 외현적 문제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했다. 언어발달의 표현언어와 수용언어 발달간에도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각 발달 영역의 하위영역 간 상관도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표 V-5-2〉 각 발달영역의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신체 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언어발달	
		순차 처리	동시 처리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	외현적 문제	표현 언어	수용 언어
신체발달	1							
인지	순차처리	.04	1					
	동시처리	-.01	.44***	1				
사회 정서	친사회적행동	-.06	-.01	.05	1			
	내재적문제	.01	.04	.08	.16***	1		
	외현적문제	-.01	.20***	.09*	.26***	.43***	1	
언어	표현언어	-.01	.31***	.41***	.03	.08	.12**	1
	수용언어	-.01	.30***	.43***	.03	.06	.12**	.63***

* p <.05, ** p <.01, *** p <.001

발달영역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표 V-5-2), 인지발달의 순차처리와 사회정서의 외현적 문제, 표현언어, 수용언어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순차처리 능력이 높을수록 분노표현이나 공격성표출과 같은 외

현적 문제가 적은 것과 상관이 있고, 순차처리 능력이 높을수록 표현언어와 수용언어 능력이 높은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처리의 경우 외현적 문제, 표현언어와 수용언어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동시처리 능력이 높은 것과 분노표현이나 공격성표출과 같은 외현적 문제가 적은 것과 상관이 있고, 표현언어 능력과 수용언어 능력이 높은 것 간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정서 발달에서는 외현적 문제와 표현언어, 외현적 문제와 수용언어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표현언어와 수용언어 점수가 높으면 분노를 표출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다문화아동의 발달실태 조사 분석결과를 각 영역별로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 신체발달 영역에서 아동의 건강여부는 91.2% 대다수의 아동이 장애나 질병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장별 표준체중에 의한 신체발달 실태 역시 82.8%의 대부분의 아동이 정상으로 분류되었다. 연령에 따라서 만 2세에서 허약/비만범주에 속하는 아동이 많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허약/비만아동의 비율이 줄다가 만5세와 만7세 이상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허약/비만아동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아동의 모가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 주기적으로 산전 관리를 받았는지에 대해 95.0%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5.0%만이 산전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2006년 전국 출산력 조사결과인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및 농촌지역 산전 관리율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문화 아동의 모가 사전관리를 산전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와 조산한 경우에 아동이 질병을 가지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만산을 한 경우에 아동이 비만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은 모의 우울과 결혼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데, 모가 우울하고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언어발달 영역에서 다문화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비율이 전체 약78%로 다수였으며, 한국어와 어머니 모국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약20%로 응답되었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문화아동의 언어사용이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어머니 모국어와의 이중언어사용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입학후에 12.5%의 아동이 한국어와 어머니 언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아보다는 여아가 이중언어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언어발달 검사 결과 과반수가 정상발달 하고 있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상이상의 어휘력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만 7세의 경우 어휘력 수준이 낮은 아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2세 미만의 영아기 아동과 초등학교 진학기의 만 6, 7세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아보다 여아의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부모 특성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아동의 어휘력 수준이 높았으며 모 출신국에 따라서는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 출신국에 따라서는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주로 중국 조선족 아동의 표현언어발달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한족), 베트남과 필리핀,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능력역시 아동의 언어능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를 살펴본 결과, 아동 자신의 인지처리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변인으로는 모의 언어능력, 아동의 모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에 가장 주요한 환경은 결국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보다 직접적인 근접변인은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닌, 모의 언어능력과 모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 인지발달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라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출신국, 부 학력, 가계 소득,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에 따라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모 출신국에 따라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일본 출신의 자녀 인지발

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부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인지발달 점수는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 점수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이 낮은 집단의 모는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 보통이거나 높은 집단의 모 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한국어 표현어휘 능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순차처리에는 아동의 표현언어와 수용언어 수준, 부의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처리에는 아동의 수용언어,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학력, 성별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아버지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 출신국, 모의 한국어 능력 수준,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이나 아동의 성별과 같은 내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사회정서발달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이 증가하고, 내재적 문제행동도 증가하나, 외현적 문제행동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친사회성,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이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도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족 유형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아동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의 점수는 낮았으며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의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사회정서발달 총점에는 아동성별, 결혼만족도, 모의 체류기간, 양육행동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사회적 행동과 내재적 문제에는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적 문제에는 아동성별, 순차처리능력,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은 대체적으로 모의 연령이 높고, 모의 체류기간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모가 양육행동을 많이 하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이 주 양육자인 모의 특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모가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적일 수록 아동의 사회정서발 역시 긍정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교사가 평정한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친사회성, 사회적 유능성 발달이 대체로 양호한 편에 속하며, 문제행동은 별로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평정한 사회정서 발달과 모가 평정한 사회정서 발달을 비교해보면, 사회정서 발달의 총점과 내재적 문제에서 모의 평정과 교사의 평정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친사회적 특성과 외현적 문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또래 친구와 협동하고 놀잇감을 나누고 자신보다 어린 아동을 돌보는 등의 친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모가 교사보다 점수를 높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자주 보이는 등의 외현적 문제에서는 모에 비해 교사가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와 기관장이 평가한 다문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실태를 살펴보면, 교사와 기관장 모두 발달 영역별로 신체 발육 및 성장, 신체발달, 사회정서 발달에 비해 언어발달, 인지발달 및 학업수행에서 다문화 아동의 발달이 다른 아동에 비해 지연되었다고 평가한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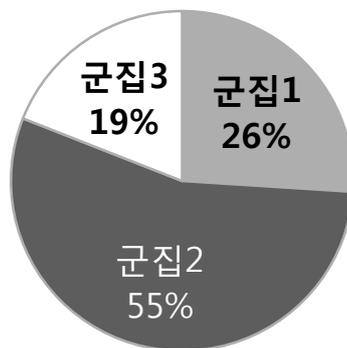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아동의 발달영역 간 상관관계는 신체발달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인지발달은 사회정서발달 가운데 외현적 문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 발달의 외현적 문제는 또 역시 언어발달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순차처리 능력)과 언어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조절하고 공격성을 덜 표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 다문화아동의 발달 유형

이 장에서는 조사된 발달점수와 수준에 근거하여, 다문화아동의 발달결과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이는 다양한 발달수준과 패턴을 보이는 다문화아동의 발달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아동 대상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이다.

1. 다문화아동 발달수준 유형화

다문화아동의 고유하면서도 다양한 요구에 맞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른 유형을 찾아내기 위해 신체발달 수준, 인지발달점수(순차처리, 동시처리, 인치처리 과정), 언어(표현언어, 수용언어)발달 수준, 사회정서발달 점수에 관련된 변인을 기준으로 이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범주형 변수는 언어(표현언어, 수용언어)발달 수준과 신체발달수준이었으며 연속형 변수는 인지발달점수(순차처리, 동시처리, 인치처리과정)와 사회정서발달 점수였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의 수를 3개로 지정했을 때 군집별 사례수가 적절하고 해석적 의미가 극대화된다고 판단되므로 군집의 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유형화한 군집의 분포는 [그림 VI-1-1] 과 같다. 군집 1은 26.2%, 군집 2는 55.2%, 군집 3에는 18.6%가 분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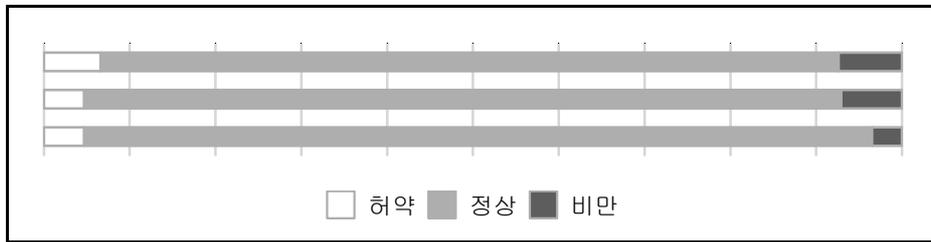


[그림 VI-1-1] 발달수준별 군집분포

최종 구분된 3개 군집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군집별로 발달변인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발달은 신장별 표준체중이 정상인 아동이 많기 때문에 군집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군집 1의 경우, 다른 군집에 비해 허약하거나 비만인 아동이 약간 더 포함되어 있고, 군집 3의 경우 허약하거나 비만인 아동이 가장 적었다.

〈표 VI-1-1〉 군집유형별 신체발달 수준

	단위: %(명)			
	허약	정상	비만	계(수)
군집 1	6.6	86.0	7.4	100.0(121)
군집 2	4.7	88.2	7.1	100.0(255)
군집 3	4.7	91.9	3.5	100.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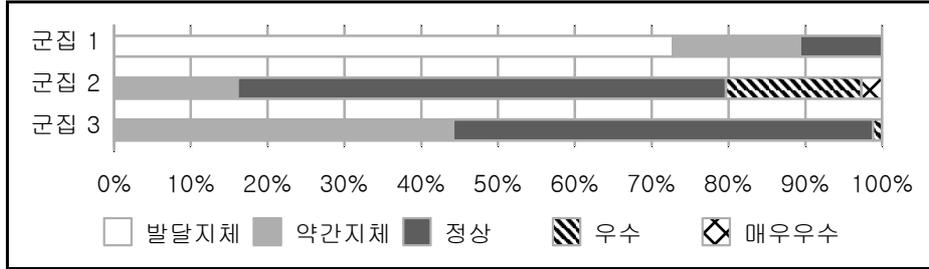


[그림 VI-1-2] 군집유형별 신체발달 수준

표현언어는 군집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표 VI-1-2). 군집 1의 경우 발달지체인 아동이 70% 이상이었고, 우수한(매우 우수+우수) 아동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군집 2의 경우 정상인 아동이 60% 이상이며 우수한(매우 우수+우수) 아동도 약 20%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 군집 3은 약간지체와 정상이 아동이 반반정도를 이루었다. 즉, 표현언어발달에 의하면 군집 2의 아동들의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군집 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균점수와 분포에서 나타났다.

〈표 VI-1-2〉 군집유형별 표현언어발달 수준

	단위: %(명), 점						
	발달지체	약간지체	정상	우수	매우우수	5점평균	계(수)
군집 1	72.7	16.5	10.7	-	-	1.38	100.0(121)
군집 2	-	16.1	63.5	17.6	2.7	3.07	100.0(255)
군집 3	-	44.2	54.7	1.2	-	2.57	100.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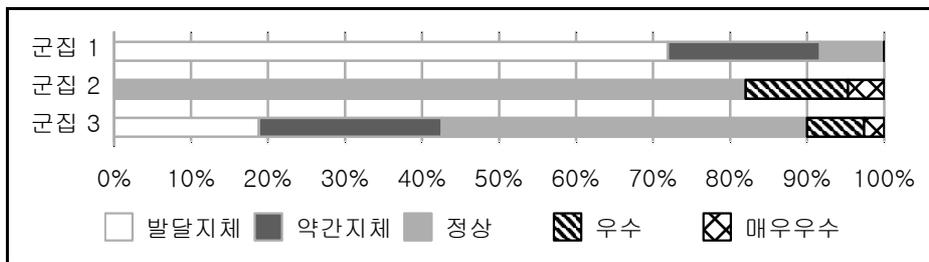
[그림 VI-1-3] 군집유형별 표현언어발달 수준

수용언어 역시 군집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표 VI-1-3). 군집 1의 경우 표현어휘력과 마찬가지로 수용어휘력 발달지체인 아동이 70% 이상이었고, 우수한(매우 우수+우수) 아동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군집 2의 경우 정상인 아동이 대부분이나 우수한(매우 우수+우수) 아동이 18.0% 포함되어 있다. 군집3은 비교적 고르게 포함되어있으나 정상인 아동이 약 절반에 해당했다. 즉, 수용현언어발달의 경우도 표현언어와 마찬가지로 군집 2의 아동들의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군집 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3> 군집유형별 수용언어발달 수준

단위: %(명), 점

	발달지체	약간지체	정상	우수	매우우수	5점평균	계(수)
군집 1	71.9	19.8	8.3	-	-	1.36	100.0(121)
군집 2	-	-	82.0	13.3	4.7	3.23	100.0(255)
군집 3	18.8	23.8	47.4	7.4	2.6	2.00	100.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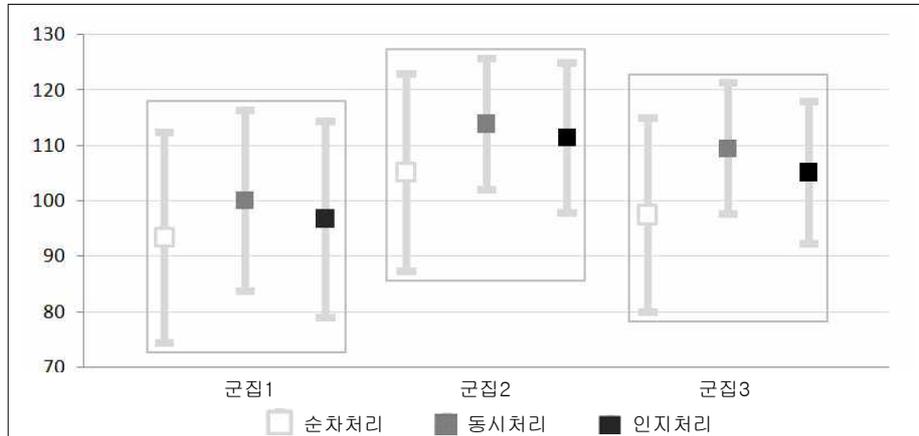
[그림 VI-1-4] 군집유형별 수용언어발달 수준

다음으로 인지발달의 경우 하위영역에 따라 살펴보면(표 VI-1-4), 순차처리 점

수의 경우 군집 2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군집3, 군집1 순이었다. 동시처리 점수역시 군집 2가 가장 높았으며, 군집 3, 군집1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처리과정도 군집 2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군집 3, 군집 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1-4〉 군집유형별 인지발달 수준

	순차처리	동시처리	인지처리과정
군집 1	93.45(18.97)	100.13(16.37)	96.79(17.69)
군집 2	105.14(17.79)	113.91(11.90)	111.41(13.52)
군집 3	97.51(17.43)	109.49(11.85)	105.19(12.90)
전체	100.66(18.73)	109.48(14.40)	106.42(15.85)



[그림 VI-1-5] 군집유형별 인지발달 수준

마지막으로 사회정서 발달을 살펴보면(표 VI-1-5), 군집 1의 경우 사회정서 발달 총점이 가장 낮았으며 친사회적 행동 점수도 가장 낮았다. 또한 내재적 문제와 외현적 문제 영역의 점수는 가장 높아, 불안 우울과 같은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는 사회정서 발달 총점은 군집 1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군집 3보다는 약간 낮았다. 친사회적 행동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외현적 문제도 가장 낮게 보인다고 평가 되었다. 내재적 문제는 군집 1보다는 낮았지만 군집 3보다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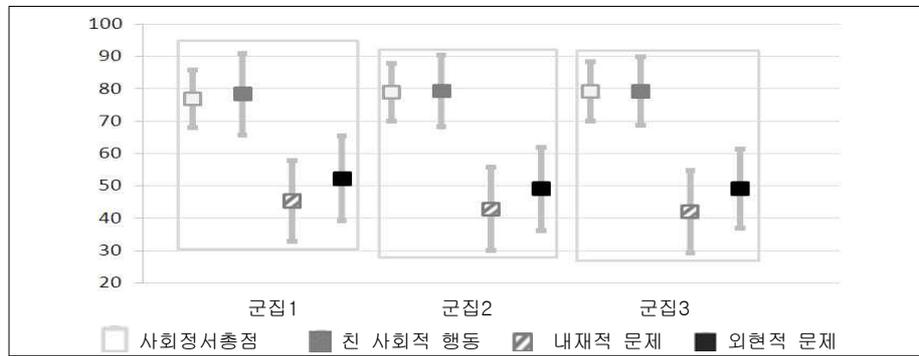
마지막 군집 3은 사회정서발달 총점이 가장 높았으며 내재적 문제도 가장 적

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과 외현적 문제는 군집 2보다 약간 낮게 평정되었지만 군집 1보다는 긍정적인 발달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군집 2와 3은 사회정서발달 점수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VI-1-5〉 군집 유형별 사회정서발달 수준

단위: 평균(표준편차), 점

	사회정서발달 총점	친사회적행동	내재적문제	외현적문제
군집 1	76.81(8.90)	78.38(12.62)	45.28(12.43)	52.30(13.21)
군집 2	79.02(8.94)	79.32(11.01)	42.86(12.89)	49.01(12.87)
군집 3	79.22(9.12)	79.25(10.59)	41.99(12.84)	49.13(12.30)
전체	78.48(9.00)	79.07(11.36)	43.33(12.79)	49.89(12.91)



〔그림 VI-1-6〕 군집유형별 사회정서발달 수준

위의 발달 영역별 특성을 요약하면 〈표 VI-1-6〉 와 같다.

〈표 VI-1-6〉 군집유형별 특성

구분	신체 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유형	
		표현 언어	수용 언어	순차 처리	동시 처리	인지 처리	사회 정서	친사 회성	내재적 문제		외현적 문제
군집1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발달부진형
군집2	中	上	上	上	上	上	中	上	中	上	언어인지우수형
군집3	上	中	中	中	中	中	上	中	上	中	사회정서우수형

주: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은 역코딩 결과임.

군집 1의 경우 모든 발달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군집 2의

경우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회정서발달도 대체로 우수했다. 군집 3의 경우 언어발달과 인지발달 수준은 평균 수준이지만 신체발달과 사회정서발달의 총점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대체로 발달 전반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군집1이 모든 영역에서 '발달부진'에 속하고 군집2는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달우수', 군집3은 전반적으로 '발달양호'에 속하는 중간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군집의 두드러진 발달특성을 발달수준과 발달영역을 고려하여 프로파일화 한 결과, 군집 1은 '발달부진형', 군집 2는 '언어인지우수형', 군집 3은 '사회정서(신체)우수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2. 다문화아동 발달유형별 차이

가. 아동특성의 차이

발달영역을 고려하여 발달수준에 따라 나는 3개 유형별로 다문화아동의 특성과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래 <표 VI-2-1> 와 같이 만 2세와 만7세 이상에서 발달부진형에 분류되는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대체로 언어인지우수형이 많은 가운데 특히 만 5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정서(신체)우수형의 경우 각 연령별로 비슷한 분포로 분류되었으나 만5세와 만 7세 이상에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VI-2-1> 유형별 아동특성의 차이

구분				계(수)	단위: %(명)
	발달부진형	언어인지우수형	사회정서우수형		$\chi^2(df)$
연령					
(전체)	26.2	55.2	18.6	100.0(462)	
만2세	50.0 ↑	27.8	22.2	100.0(18)	
만3세	24.0	54.4	21.6	100.0(125)	
만4세	24.8	55.2	20.0	100.0(125)	29.72(10)**
만5세	21.0	69.0 ↑	10.0	100.0(100)	
만6세	23.6	56.8	23.6	100.0(72)	
만7세 이상	59.1 ↑	27.3	13.6	100.0(22)	

** p <.01

나. 가족특성의 차이

가족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족의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 가정 아동이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에 비해 발달부진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아동 가운데 사회정서우수형으로 분류된 아동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반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경우 언어인지우수형으로 분류된 아동이 많았다.

〈표 VI-2-2〉 유형별 가족특성의 차이

구분	발달부진형	언어인지우수형	사회정서우수형	계(수)	단위: %(명) $\chi^2(df)$
다문화가족 유형 (전체)	26.2	55.2	18.6	100.0(462)	9.53(2)**
결혼이민자 가정	24.5	56.2	19.3	100.0(429)	
외국인근로자 가정	48.5	42.4	9.1	100.0(33)	

* p <.05

다. 부모특성의 차이

부모특성인 부 연령, 모 체류기간, 가계소득, 모 출신국에 따라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모 연령, 부학력, 모학력, 종교 유무, 맞벌이 유무, 부모의 직업군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VI-2-3).

부 연령이 젊을수록 발달부진형으로 분류된 아동이 많고 언어인지우수형과 사회정서우수형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모 체류기간에 따라서는 4년 미만인 경우 발달부진형으로 분류된 아동이 많았으며 모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언어인지우수형과 사회정서우수형으로 분류되는 아동이 많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발달부진형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언어인지우수와 사회정서우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많았다. 부모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지만, 대체로 중졸이하의 저학력 부모의 자녀가 발달부진형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언어인지우수형과 사회정서우수형에 속하는 비율은 가장 적었다.

모 출신국별로는 몽골 모 아동의 과반이상이 발달부진형에 속해 언어인지우

수형에 속한 아동이 가장 적었으며 사회정서신체우수형에서도 낮은 편에 속했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71%의 가장 높은 비율의 아동이 언어인지우수형에 속했으며, 사회정서신체우수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 한족 모의 아동 비율이 높았으며, 일본과 기타 국적의 경우에도 높은 편에 속했다.

〈표 VI-2-3〉 유형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

구분	발달부진형	언어인지우수형	사회정서우수형	계(수)	단위: %(명)	$X^2(df)$
부 연령						
(전체)	26.4	55.2	18.4	100.0(451)		
35세 미만	44.8	51.7	3.4	100.0(29)		
36~45세 미만	25.8	54.3	19.9	100.0(267)	8.22(4) ⁺	
46세 이상	23.9	57.4	18.7	100.0(155)		
모 체류기간						
(전체)	26.4	55.0	18.6	100.0(458)		
4년 미만	59.1	31.8	9.1	100.0(22)		
4년 ~ 7년미만	26.9	53.4	19.7	100.0(193)	14.21(6)*	
7년 ~ 10년미만	21.4	60.2	18.4	100.0(103)		
10년이상	24.3	57.1	18.6	100.0(140)		
가계 소득						
(전체)	26.2	55.2	18.6	100.0(462)		
150만원 미만	35.6	49.0	15.4	100.0(104)		
150 ~ 250만원 미만	27.6	55.8	16.6	100.0(217)	15.68(6)*	
250만원 이상	18.3	59.5	22.2	100.0(126)		
모름/무응답	6.7	53.3	40.0	100.0(15)		
모 출신국						
(전체)	26.2	55.2	18.6	100.0(462)		
한국	-	100.0	-	100.0(2)		
중국(조선족)	16.9	71.4 ↑	11.7	100.0(77)		
중국(한족)	21.5	54.4	24.1 ↑	100.0(79)		
일본	26.5	52.0	21.4	100.0(98)	24.36(14)*	
필리핀	31.1	55.6	13.3	100.0(45)		
베트남	27.3	53.5	19.2	100.0(99)		
몽골	52.0 ↑	32.0	16.0	100.0(25)		
기타	29.7	48.6	21.6	100.0(37)		

⁺ p <.10, * p <.05

라. 양육환경 및 모의 심리사회적특성의 차이

유형별로 양육환경특성 및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의 발달유형별로 모의 표현언어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어인지우수형의 경우 모 표현언어 점수 평균이 90.2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정서우수형 81.1점, 발달부진형이 68.0점의 순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양육환경(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의 양육참여)의 경우 발달부진형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다소 높고 긍정적 양육행동이 적었으며 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감과 부의 양육참여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모의 우울과 모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세 집단의 특성에는 일관된 경향이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2-4〉 유형별 양육환경특성의 차이

단위: 평균(표준편차), 점

구분	발달부진형	언어인지우수형	사회정서우수형	F
모 표현언어능력	67.98(37.78)	90.15(40.24)	81.09(38.30)	13.16**
양육스트레스	7.78(2.15)	7.68(1.98)	7.62(2.04)	.23
양육행동	35.40(4.59)	35.90(4.10)	36.51(3.78)	1.73
부의 양육참여	12.50(3.76)	12.43(3.90)	13.07(3.91)	.88
사회적 지지	12.42(2.70)	12.84(2.46)	12.58(2.83)	1.07
모의 우울	8.64(3.16)	8.89(3.10)	8.76(3.35)	.26
결혼만족도	15.64(2.84)	15.64(2.56)	15.56(2.85)	.03

*** p <.05

마. 서비스 이용의 차이

마지막으로 아동과 부모의 공공서비스 이용은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VI-2-5). 한편 발달부진형으로 분류된 아동가운데 세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아동도 있었는데, 이는 바우처를 통한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공공서비스를 한가지 이용한다는 아동은 언어인지우수형이 가장 많았고, 사회정서우수형도 많은 편이었다.

〈표 VI-2-5〉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유형별 차이

구분	발달부진형	언어인지우수형	사회정서우수형	계(수)	단위:%(명)	
					X^2	(df)
아동의 공공서비스이용						
(전체)	26.2	55.2	18.6	100.0(462)		
이용안함	29.2	53.6	17.2	100.0(250)		
한가지 이용	20.3	57.5	22.2	100.0(153)	5.56	(6)
두가지 이용	27.7	55.3	17.0	100.0(47)		
세가지 이상	33.3	58.3	8.3	100.0(12)		
부모의 공공서비스이용						
(전체)	26.2	55.2	18.6	100.0(462)		
이용안함	25.4	57.2	17.4	100.0(138)		
한가지 이용	31.4	50.3	18.2	100.0(159)	9.95	(6)
두가지 이용	26.1	50.0	23.9	100.0(92)		
세가지 이상	16.4	68.5	15.1	100.0(73)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유용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부모가 공공서비스를 세 가지 이상 이용하는 부모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언어인지우수형이 많고 발달부진형이 적은 양상을 보였다.

3.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실태는 조사된 발달수준과 발달영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개 그룹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 ‘발달부진형’이 있고, 둘째, 신체와 사회정서일부에서 중간수준일 뿐 그 외 모든 언어인지영역과 일부 사회정서영역에서 최고수준인 발달우수에 해당하는 ‘언어인지우수형’, 그리고 셋째 언어인지영역에서는 고르게 중간수준이나 사회정서발달 일부 영역에서 최고수준으로 사회정서발달 총점이 가장 높고 신체발달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발달양호에 해당하는 ‘사회정서(신체)우수형’이 있다.

유형화 결과, 조사대상 다문화아동의 과반에 해당하는 55%의 영유아가 ‘언어인지우수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19%는 ‘사회정서(신체)우수형’, 26%는 ‘발달부진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조사가 전국 모집단의 대표성을 띠는 결과는 아니나, 자료분석 결과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약 과반은 발달수준이 제 영역에서 고루 우수하고, 약1/5에 해당하는 다문화아동은 신체적으로, 사회정서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이해되며, 약1/4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 영역에서 발달수준이 하위에 머무르는, 발달부진의 취약층인 것으로 이해된다.

발달수준에 의한 다문화아동의 유형화 결과는, 다른 한편 우리나라 다문화아동이 이후 발달경로에서 소외되거나 양극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군집 1과 같이 모든 발달영역에서 하위 수준을 보이는 발달부진형 다문화아동은 총체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절대 취약층으로 군집 2, 3 유형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다문화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아동의 상이한 발달특성과 요구도를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VII. 다문화아동 발달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시점 우리나라 다문화아동의 발달 과정에 어떠한 특성과 유형, 그리고 분포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과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특성과 영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아동 발달지원 서비스를 내용면에서 다변화하고 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영유아 발달은 크게 인지, 언어, 사회정서, 건강·신체 발달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것이 부모 및 가정환경 변수와 사회적 특성 및 서비스 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여,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다문화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본 연구자료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취학 전 후 다문화아동의 발달 현황은 발달부진이라는 동질성이 아니라 발달 양호 혹은 우수에 근거한 다양성과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무선표집 결과는 아니나, 발달 수행검사 결과 언어의 경우 정상이상의 발달비율이 표현어휘력 56.9%, 수용어휘력 54.2%로 나타났으며, 모/교사의 주관적 평정에 의하면 이중언어사용 아동비율 19.7%, 한국어 잘함 모 평정 73.7%, 교사평정 65.6%로 나타났다. 인지의 경우, 순차처리 평균 이상 84.1%, 동시처리 보통 92.6%, 인지처리과정 90.3%로 인지능력의 평균 미만 아동의 비율이 평균 약8%였다. 언어능력에 비해 다문화아동의 기본적인 인지처리능력의 평균이상의 비율이 높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다문화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대로, 모든 발달영역에서 발달부진을 보이는 지연 아동이 본 조사대상 아동의 약1/4로 나타나, 여전히 다문화가족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동발달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절대 취약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과 아동의 다양성과 차별화된 발달적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되, 발달지연의 취약계층 다문화아동과

평균이상의 우수한 발달수준을 보이는 아동간의 격차를 고려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발달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발달 유형별 지원

1) 발달부진형 아동

발달부진형 아동의 가정환경은, 인지·언어·사회정서 발달영역의 결과를 고려할 때, 대체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고 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적은 양육환경과 상관이 있다. 앞 장에서 논의한대로 본 조사의 유형화 결과는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과 역량이 다양하면서도 발달우수·양호 집단과 발달부진 집단간의 발달 격차가 큰 양상을 보인다. 발달부진형 다문화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언어와 인지, 사회정서발달 지원, 자기조절, 문제행동 소거 등과 같은 모든 발달영역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대상 통합적 지원체계 편입을 통한 산전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조기 개입과 밀착된 사례관리를 필요로 한다.

취약계층 다문화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발달부진형 부적응 다문화아동의 발달경로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통해 유의한 판별요인으로 나타난 특성들(가구소득과 부모학력, 가족유형, 모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 부의 양육참여, 사회적 지지감, 아동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기 및 빈도, 아동-모 공공서비스 이용량, 거주지역 특성 등)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아동발달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안이 요구된다.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특정 문제점이 발생되기 이전에 조기에 중재하는 전략이 필요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다문화아동이 영아기부터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교육사업이 절대취약계층 대상으로 보다 이른 시기에 확대된 양과 질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보편적인 보육·교육 정책에 토대하여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취약계층 대상 통합 지원체계(예: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등)와 연계되어야 한다.

2) 사회정서(신체)우수형 아동

조사대상 아동의 약1/5에 해당하는 사회정서(신체)우수형 아동은 언어·인지적으로는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되 신체발달과 사회정서발달 총점이 높고 내현적 문제가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 내현적 문제행동이 가장 적은 유형이라 함은 이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활동성과 정서능력을 갖춘 유형임을 의미한다. 사회정서(신체)우수형 다문화아동의 균형잡힌 사회성과 정서지능, 그리고 신체적 역량이 이후의 성장경로를 긍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활동중심의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창의인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와 체험학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유형 아동의 강점인 사회정서발달과 신체발달 영역을 독려하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래관계에서 발달역량을 지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전달체계 프로그램이 아동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특정 주제별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심화시켜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신체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언어인지우수형 아동

본 조사대상 아동의 과반에 해당하는 55%가 신체·건강, 언어, 인지, 사회정서의 모든 영역에서 발달수준이 높거나 양호한, 특히 언어·인지영역에 최고수준을 보인 언어인지우수형에 해당된다. 이 유형에 속한 아동의 환경특성은 대체로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가정에 해당하며,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적고 적절한 양육행동이 제공되고, 부의 양육참여가 있으며, 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감과 결혼만족도가 양호하고, 자녀가 육아지원기관에 다니며, 모가 다문화 지원 공공서비스를 1개 이상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다문화아동의 가족환경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대체로 양호하고 부모 및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공공서비스의 이용률과 접근성이 좋아, 역량있는 미래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아동이 향후 지속적으로 언어·인지발달의 우수성을 유지하고 사회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competence-based)의 관점에서 가용한 서비스 이용(권)의 제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발달부진 아동에 대한 지원에

서와 같은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다문화아동 대상 지원보다, 특정 발달영역으로 심화된 상위수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즉 인지와 언어적으로 평균이상의 우수한 수준을 보이는 아동이므로, 문제예방과 소거의 소극적 지원이나 다문화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통합교육의 시스템 내에서 비다문화 아동과 함께 교육을 으며, 상위의 우수아동이 수월성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 고려할만하다. 다문화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아동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발달 경로와 기회를 제공하는 간접 지원이 언어인지우수형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3개 발달유형에 근거한 지원안은 주로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구체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 지원안은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차별화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 발달 영역별 지원

1) 언어발달 지원

본 조사 결과, 인지발달이 조사대상 전체 평균 ‘보통’에서 ‘다소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비해, 언어발달의 경우 실제연령에 비해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지연의 비율이 인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다문화아동 지원의 우선과제가 언어발달 지원, 그 중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제공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문화아동 대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본 조사 결과 만3~5세의 유아기보다는 영아기 아동과 초등 입학 이후 다문화아동의 언어가 해당연령의 언어능력 대비 지연되는 비율이 더 많았다. 따라서 현재 유아기 위주로 개발, 보급되고 있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영아기와 초등입학 전후의 다문화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맞는 발달적으로 적합한 언어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입학 이후 아동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문해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업성취를 돕는 보다 중점적인 언어발달지원이 요구된다.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에 다닐 경우 언어발달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문화아동의 경우 영아기부터 육아지원기관에 다니거나, 온라인을 통해 언어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도 필요하다.

언어발달의 경우,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아

동 자신의 인지처리능력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환경 변인으로는 모의 언어능력, 부 학력, 부모-자녀 관계 및 아동과의 상호작용이었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 발달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부모의 언어능력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부모교육 및 부모의 양육과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결혼이민자 모 중심의 한국어 교육 지원과 부의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또한 다문화아동의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2) 인지발달 지원

언어와 인지발달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또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특히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발달 경로와 영역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아동 지원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후천적 언어환경의 노출과 질에 의한 영향을 받는 언어능력에 비해 다문화아동의 기본적인 인지처리능력의 평균이상의 비율이 높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다문화아동의 타고난 인지능력은 양호하므로 인지처리능력의 훈련을 통해 다문화아동의 언어습득 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아동의 인지처리에서 동시처리보다 순차처리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아동의 학습 및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순차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단·장기 기억과 유추, 주의집중, 과제해결력 등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개념적 사고와 정보처리과정을 돕는 일종의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즉 한국어 지원 외에 아동의 인지능력(특히 순차처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활동과 게임, 교재교구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발달부진형 아동의 문제행동과 낮은 사회적유능성을 예방(prevention)하는 선행요인으로 다문화아동에 대한 언어 및 인지능력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내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정서발달 지원

사회정서발달의 경우 모와 교사 평정에 의해, 전반적인 사회정서발달 평균 점수 각 3.13, 3.13, 하위항목별로 내재적 문제행동 1.74, 1.81, 외현적 문제행동 2.01,

1.78, 친사회적 행동 3.15. 2.97, 사회적유능성 2.86으로 나타나, 모-교사 평정간 차이는 있었으나 조사대상 평균 대체로 양호한 편에 속했다.

다문화아동을 위한 학습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문화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도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부록4 참조). 언어적 소통이 어려우면 내재적, 외현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과 함께 자기표현, 의사소통, 또래관계형성과 협상, 감정조절과 자기규제 등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발달수준별 연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 다문화아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사회성과 사회적 유능이 증가하고 외현적 문제행동은 줄어들면서도 내재적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아동의 증가하는 친사회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강화하는 역량지원과 함께, 외현적으로 발현된 문제행동 외에 내재적으로 잠재되어있는 다문화아동의 불안과 우울, 초조, 무기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적절히 중재하고 예방하는 사회정서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4) 신체발달 및 건강 지원

본 조사결과, 다문화아동의 신체·건강 발달은 사회정서 발달과 연관되어 있으며, 장애와 질병을 가진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가 장애와 질병을 갖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신체건강상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함께 다중적인 취약성으로 그 적응상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므로, 다문화가족 대상 출산관리 및 지원 시스템의 도입으로 다문화아동이 출생 이전의 산전단계에서부터 보호되고 아동의 신체발달과 건강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와 장애가 있는 혹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다문화가족과 아동을 대상으로 특화된 중점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모 양육기술의 부족과 양육 소홀로 자녀가 후천적인 질병과 장애를 얻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신단계에서부터의 부모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출생이후 아동의 양육단계에서 자녀가 육아지원기관을 다녀 발달영역별로 균형 있는 양육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며, 부모 스스로 매일 바깥놀이를 하도록 하는 등의 신체·건강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교육과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아동대상으로는 신체활동 운동과 건강 유지의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

하는 지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다. 발달 시기별 지원

1) 영아기 및 초등 입학 이후의 지원 강화

발달시기별 특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아동 연령 만4, 5세의 정상이상(정상+우수) 표현언어발달비율(약62~65%)이 만2, 3세(45.0%, 51.5%)의 것보다 높아 4~5세 연령에서 정상이상의 비율이 10~1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지원기관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3세 이하에 대해, 특히 2세 미만의 영아기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대로 언어발달의 지체가 영아기와 초등 입학이후의 1~2학년에서 만3~5세보다 높게 나타나고, 다문화아동의 모 역시 영아기 양육과 초등입학자녀에의 학습지원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므로, 발달시기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과 교육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저조한 영아기와 초등 입학후 저학년 시기에의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전관리 단계에서부터의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지원서비스 이용을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영아기 양육과정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영아 대상 발달지원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양육컨설턴트의 주기적인 방문과 육아네트워킹의 가입, 부모교육의 제공, 그리고 신생아기 정기 신체검진과 발달검사의 활성화, 이와 연계된 영아 대상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2) 부모 및 아동 대상별 지원

연장선상에서 영아기와 취학전후 다문화영유아 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아동과 성인 부모에 대한 대상별 지원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와 아동의 성장발달주기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모와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입국이전-입국직후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임신이전과 임신이후, 출산이후를 연계하는 (예비)부모교육, 그리고 자녀 발달주기별로 신생아기-걸음마기-영아기-유아기-취학전-취학직후-초등저학년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발달육구를 고려한 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부모 외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체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안도 요구된다. 둘째, 앞서 논의한대로 아동의 발

달주기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3세 유아기이전과 초등입학 전후의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시기별로 응대하는 다문화아동 발달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 대상 중장기 지원 방안

1절에서 제시한 발달유형별, 영역별, 시기별(대상별) 지원의 마련이 단기 맞춤형 지원방안이라면, 2절에서의 논의는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지원 방향에의 제언이다.

가. 중기전략

1) 외국인근로자 가정 아동으로의 지원 확대

외국인근로자 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체 비율이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에 비해 약15% 높았다. 적은 사례수로 인해 조사결과의 대표성에 제한점이 있으나,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동의 경우 인지·언어발달 모두에서 지연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사회정서의 발달과 함께 문제행동의 증가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동이 정책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국제법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서 적극 포함시켜 발달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에 대해 국적과 법 체계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유아기 보육·교육과 초중등 교육에의 차별 수혜에서부터 우선되어야 하나, 민간차원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지원의 확대도 유용할 것이다.

2) 서비스 이용의 확대 및 형평성

2010년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비다문화 일반아동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

터, 지역사회 복지관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률이 아동 44.9%, 부모 71.0%로 다문화아동에 비해 부모의 서비스 이용비율이 더 높다. 일본, 몽골, 중국(조선족), 중국(한족)출신 모의 아동들이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일본과 몽골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모 학력이 낮고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일수록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적어 다문화 취약계층에의 서비스 이용이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서비스 이용률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공공서비스의 이용이 사회참여에의 적극성을 도모하고 다문화아동과 가족의 자존감을 높여 아동발달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다양한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형평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아동 대상의 방문교육사업과 이동식 서비스의 제공, 농산어촌의 소규모 보육기관 설립과 이동식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보다 확대하여, 다문화 아동이 영아기부터 보육·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다문화아동의 발달‘역량’(competence-based) 지원

아동의 발달역량은 발달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 다문화아동의 발달은 인지·언어, 사회정서, 신체적으로 우수한 분포가 약 3/4이었다. 따라서 문제해결과 처치의 예방적·후속적 접근보다는 다문화아동의 내재된 발달역량을 중심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지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아동의 이중언어능력과 2개 이상의 문화를 알고 적용하는 글로벌 시민역량에 대해 지원하고 이러한 긍정적 발달영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교육이 필요하다. 언어인지적으로 우수한 아동, 사회정서적, 신체적으로 발달한 아동의 고유한 강점을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4) 모 출신국가를 고려한 접근

모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회참여 및 서비스 이용의 적극성에 따라 다문화아동의 서비스 이용의 양과 시기가 다르고 이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차이

가 나타났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모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고 유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모의 언어적 능력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모의 국적 유형별로 아동의 서비스 이용이 달라지며 결국 아동의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아동에의 지원에 모 출신국의 변인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국가별로 접근하는 현재의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지원의 방법은 유용하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 중국(조선족, 한족 모두) 모 가정의 아동이 서비스이용도가 높고, 더욱 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조선족과 중국한족, 일본 아동의 발달수준은 베트남/필리핀/몽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각 국가별로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화하여 다문화아동의 지원서비스의 맞춤형 다변화와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5) 모의 심리사회적 건강 및 사회적지지 네트워크 증진

모의 우울감이 클수록, 모가 인식하는 주변으로부터의 도움과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모의 어휘력 습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모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와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모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모 주위의 사회적지지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지지감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네트워크 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적 모임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육과정의 어려움과 우울/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난, 아동 출생직후의 신생아기와 영아기, 취학직후의 초등 저학년 시기에 보다 중점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부의 양육참여와 확대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모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위해 부모, 아동의 각 구성원 대상 프로그램 외에 다문화가족의 결속력을 체험하고 키울 수 있는 가족체계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심리사회적 성장과 정체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문화 모의 자존감 향상과 정체감 형성으로 심리사회적 건강을 도와 다문화 아동의 원만한 발달과 성장을 돕는데 필수적이다. 모의 산전 산후관리 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다문화 아동의 출생이전부터 출생직후 신생아기와 영유아기, 그리고 취학시기로 이어지는 발달 주기를 고려하여 모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족지원/사회적지지 네트워크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6) 양육관련 부모지원 및 부모교육의 제공

다문화가족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본생활습관과 규율 등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지원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아동 담당 교사들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 하여도, 다문화가족 부모 양육특성에 적절한 훈육과 규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며, 부모가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와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장기전략

1) 일반적인 취약계층 지원체계로의 전환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다문화아동 발달에의 유의한 영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모든 다문화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이용에 대한 100% 비용지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과 아동은 동질적 취약계층이 아닌 변이와 차이를 내포한 다양한 분포를 보이므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다변화되, 우리나라의 다문화아동 지원정책은 이제 그들의 다양성과 차별화가 양극화의 격차로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

언어, 인지발달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아동 내적인 발달과정 연계의 중요성이 가장 큰 가운데, 이러한 다문화 아동의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환경변인은 아버지 학력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도 양육행동, 모 언어능력과 같은 양육환경의 질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지원 외에) 다문화가족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족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는 다문화아동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에 근거한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이와 연관된 아동발달의 지체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일반적인 취약계층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참고로 교사, 원장과 교장들은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에서 모의 사회정서 수준, 모의 아동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전반적 양육환경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¹¹⁾. 이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운 제반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양육

11) 부록 4의 교사/기관장용 설문조사 결과 참고.

에 있어서는 국내의 비다문화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차별성으로 인한 정책적 고려도 중요하겠지만, 다문화가족의 범주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가족으로서의 사회경제적·인구학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지원의 설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독일 베를린시에서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시 다문화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와 양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취학전 영유아기 양육과정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것이 취학 이후까지 발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제언된다.

2) 일하는 빈곤층 대상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

결혼이민자 가정 중 중국, 일본에 비해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와 외국인근로자가정의 모 취업률이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낮아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양상을 보였다.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을 설명하는 가장 유의한 환경변인의 하나가 부모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특성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돕는 이들 대상의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및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다문화교사와 같이 다문화지원체계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보다 구체적 노력들로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곽한영 (2008). 비교다문화정책론 -일반교사 다문화교육 연수,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교육과학기술부(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
-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김갑성(2008).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5.
- 김병순(2007).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3.
- 김순규(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학 연구, 18(3), 247-272.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옥·임진숙·정상녀(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 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43-164.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검사지침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은영·문무경·박수연·김문희(2010).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2009).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일본, 프랑스, 독일의

- 자국어 교육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장락·박정현·이재경·서상홍·방준용(1993). 농촌지역 모성의 산전관리서비스 이용양상과 결정요인. *예방의학회*, 26(4), 599-613.
- 김현자(2010). 일반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적응. *영유아교육연구*, 13(0), 83-100.
- 김혜경·조성연(2002).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환경(Home)과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한국가족복지학*, 7(2),
- 김혜련(2010)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65호, 2-141.
- 김혜련·황나미·장인순·윤강재·강복정(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식건강실태와 정책과제.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화수·이은경(2010).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209-226.
- 김희태·권영덕(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과 변화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구효진(2008).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발달 수준과 공격성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9(3), 1-21.
- 구효진·최진선(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2(6), 43-67.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안).
- 류현주·김향희·김화수·신지철(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음성과학*, 15(3), 133-144.
- 모선희(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 연구원.
- 무지개청소년센터(2006). 독일의 이주청소년 정책.
- _____ (2007).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교육.
- _____ (2009). 스웨덴의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정책.

- 문무경·조혜주(2008). 다문화 가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박경자·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한국아동학회지, 28(5), 91-108.
- 박성혁(2008). 다문화교육정책 비교 연구.
- 박성혁·곽한영(2009).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41(2), 97-127.
- 박주희·남지숙(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129-152.
- 박미경(2006). 교사를 통해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 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민정(2010). 교사가 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상호작용 행동유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단국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방영신(2010).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함께 주의하기와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1(6), 35-50.
- 법무부(2008).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 보건복지가족부(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1). 「영유아보육법」
- 보건사회연구원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
- 서문희·설동훈·최윤경·김은영·조혜주(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윤진·김진경·최윤경·이정원·박금혜(2010). 중국동포 자녀양육 지원방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10.
- 서종남(2010).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연구. 여성가족부.

- 송미경·신효정·이은경(2008).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267.
- 시도교육청(2011). 2011 주요업무계획.
- 신순식(2010).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특성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녀를 위한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30(6), 175-193.
- 양계민·조혜영(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참여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학업성취요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2(1), 61-92.
- 양숙자·김정아·김성남·최혜영·박찬선·단현주(2009). 도시와 농촌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개념, 건강상태와 보건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건강증진사업지원단(건강증진연구사업)·이화여자대학교.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안)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32(3), 61-83.
- _____(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기회실태와 대안모색. 인간연구, 12, 1-15.
- 오소정·김영태·김영란(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연구. 특수교육, n8(1), 13-161.
- 오연경(2008). 다문화가족 상담을 위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역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현경·이순형·최나야·정현심·이강이(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 30(3), 23-36.
- 은선경(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가족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덕희(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3), 77-96.
- 이민경·김경근(2009). 이주 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전용전략, 한국교육사회학회, 19(2), 107-132.

- 이상영·한달선·서미경·이규식·김동진·문옥륜·홍미영·배상수·김광기(2009).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건강증진사업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주(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용승(2007). 특집: 현대의 다문화 가족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 한국민족연구원, 31, 113~130.
-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2009). 다문화 가족 역량개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 지원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이해영(2007).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재한몽골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33, 469-496.
- 장명림·민현숙·이세원·임영심(2010).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인순·황나미·윤미선·박승미(2010). 결혼이민여성의 산전관리 실태와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4), 326-335.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전혜정·민성혜·이민영·최혜영·장수지·조을순 외(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 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전혜정·민성혜·최혜영·이민영 외(2009).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가족부.
- 정금희, 고효정, 김계숙, 김선희, 김진향, 박혜숙, 이영숙, 한영란, 김경원(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건강관리 실태, 여성간호학회지, 15(4), 261-269.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순연(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주(2009).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과 국어과 교수·학습에 영향을

- 미치는 변인, 청람어문교육학회, 39, 73-108.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조수진·윤희원·진대연(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한국어'교재 개발의 방향, 이중언어학회, 37, 235-264.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18(2), 105-134.
- 질병관리본부(2010). 국내이주자코호트사업(2008-2010년) 보고서. Retrieved July 8, 2011, from <http://www.cdc.go.kr/>
- 최윤경(2010).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육아정책포럼, 20, 7-17.
- 최종렬·김정규·임운택·최인영(2008).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통계청(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0 보도자료. Retrieved July 12, 2011, from <http://kostat.go.kr>
-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10). 이주아동 청소년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자료. Retrieved July 11, 2011, from <http://munk.org/>
-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학지사.
-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 현정환(2010). 다문화 가정 유아 보육의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아동학회, 31(1) 235-248.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 황상심(2008).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5세 전 후 집단 간 언어발달 특성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265-281.

- 황혜신·황혜정(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 Aroian, Hough, Templin, Kulwicki, Ramaswamy, & Katz (2009). A model of mother-child adjustment in Arab Muslim immigrants to the US. *Social Science & Medicine*, 29, 1377-1386.
- Bates, E., Thal, D., Trauner, D., Fenson, J., Aram, D., Eisele, J., & Nass, R. (1995). From first words to grammar in children with focal brain injury.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13, 275-343.
- Benabou, R., Kramarz, F., & Prost, C. (2007). The France Zones Education Priority: Much ado about nothing? Labour Economics and Public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No. 5085.
- Bradley, R. H., Corwyn, R. F., Burchinal, M. R., Pipes McAdoo, H., & Garcia Coll, C. (2001). The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I: Relations with behavioral development through age thirteen. *Child Development*, 72, 1868-1886.
- Brody, G., Chen, Y., Murry, V. M., Ge, X., Simons, R. L., Gibbons, F. X., et al. (2006).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youths: A 5 year longitudinal analysis with contextual moderation effects. *Child Development*, 77, 1170-1189.
- Brooks-Gunn, Klebanov, & Duncan (1996). Ethnic difference in children's intelligence test scores: role of economic deprivation, home environment, and maternal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7, 396-408.
- Burchinal, M., McCartney, K., Steinberg, L., Friedman, S. L., McLoyd, V., Pianta, R., & NICHD-ECCRN. (in press). Examining the Black-White achievement gap using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 Bus, A. G., van IJzendoorn, M. H., & Pellegrini, A. D. (1995). Joint book reading makes for success in learning to read: A meta-analysis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iterac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5, 1 - 21.

- Carpenter, M., Akhtar, N. & Tinasello, M. (1998). Fourteen-through 18-month-old infants differentially imitate intentional and accidental action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315-330.
- Castles, S., & Miller, M. J.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astles, S. and Miller, M. J. (200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 Basingstoke and New York: Palgrave-Macmillan and Guilford.
- Choi, Y. K. (2008). Child Care Effects and Attachment Continuity on the Growth of Social Compe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Michigan State University.
- De Feyter, J. J. & Winsler, A. (2009). The early developmental competencies and school readiness of low-income, immigrant children: influences of generation,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logy*, 5, 517-528.
- Etienne, R. (2008). France case study report: Priority Education Zone(ZEP) and Priority Educaiton Network(REP). EPASI(Educational policies that address social inequality).
- Garcia Coll, C., Lamberty, G., Jenkins, R., McAdoo, H. P., Crnic, K., Wasik, B. H., et al. (1996). An integrative model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competencies in minority children. *Child Development*, 67, 1891-1914.
- Gathercole, S. E., Service, E., Hitch, G., Adams, A-M., & Martin, A. J. (1999).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and vocabulary development: Further evidence of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3, 65-77.
- Heike, B. (2006) The input-output relationship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1, 2-24.

- Hoff, E. & Naigles, L.(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Johnson, D. J. (2000). Disentangling poverty and ra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 55-67.
- Johnson, D. J., Jaeger, E., Randolph, S. M., Cauce, A. M., Ward, J., and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Studying the effects of early child care experience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of color in the United States: Toward a more inclusive research agenda. *Child Development, 74*, 1227-1244.
- Johnson, L. & Joshee, R. (2000). A comparative view of multi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ymbol or substa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 Johansen, A., Leibowitz, A. & Waite, L. J.(1996)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haracteristics to choice of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759-772.
- Kumpfer, K. L. (1999). Factors and processes contributing to resilience: The Resilience framework. In D. G. Meyer & L. J. Jeannette (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 (pp. 179-224). New York: Kluwer Academic/Plnum Publishers.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 children ages 3 to 6 years: The short form(SCBE-30). *Psychological Assessment, 8*, 369-377.
- LaFreniere, P. J., Dumas, J. E., Capuano, F., & Dubeau, D. (1992). The developmental validation of the preschool socio-affective profile.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 442-450.
- Lanza, E. (2001). Bilingual first language acquisition: A discourse perspective on language contact in parent-child interaction. In J. Cenoz & F. Genesee (Eds.), *Trends in bilingual acquisition* (p. 95-106). Amsterdam: Benjamins.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04.
- Murray, S. S., & McKinney, E. S. (2006) Foundation of maternal-newborn nursing(4th ed). NY: Saunders.
- NICHD-ECCRN(2001). Nonmaternal care and family factors in early development: An overview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59-579.
- _____ (2004).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beliefs as predictors of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the transition to school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628-638.
- Pan, B. A., Rowe, M. L., Singer, J., & Snow, C. E.(2005). Maternal correlates of toddler vocabulary production in low-income families. *Child Development, 76*, 763-782.
- Radey, M., & Brewster, K. L.(2007). The influences of race/ethnicity on disadvantaged mothers' child care arrangeme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379-393.
- Reardon, S. F., & Robinson, J. P. (2008). Patterns and trends in racial/ethnic and socioeconomic academic achievement gaps. In Helen F. Ladd & Edward B. Fiske (Eds.), *Handbook of Research in Education Finance and Policy* (pp. 499 - .518). New York: Routledge.
- Rescorla, L. & Alley, A.(2001) Validation of the language development survey(LDS): A parent report tool for identifying language delay in toddl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 434-445.
- Shonkoff, J., & Phillips, D. (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Taguma, M., Kim, M., Brink, S., & Teltemann, J. (2010). OECD Reviews of Migrant Education: Sweden. OECD.
- Turney, K. & Kao, G. (2009). Assessing the private safety net: social support among minority immigrant parents. *Sociological Quarterly, 50*, 666-692.
- Vaisse, J. (2006) "Unrest in France, November 2005: Immigration, Islam and

the challenge of integration”, Paper presented to Congressional Staff on January 10, 12, 2006, Washington D. C.

Vygotsky, L. S. (1986).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MIT Press.

Weizman, Z. & Snow, C. (2001). Lexical output as related to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Effects of sophisticated exposure and support for mea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7*, 265-279.

부 록

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부록 3. 기관장용 설문지

부록 4. 교사/기관장용 설문지 결과 - 다문화 아동의 교육과 정책

[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 올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실태 및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대부분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수준의 차이와 요구에 근거한 차별화된 양육지원 안을 제시하고자 취학 전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실태와 양육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육아지원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것이오니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사표는 연구 외의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다문화 영유아 발달 연구팀

이보람 위촉연구원 ☎ 02)398-7705, FAX 02)730-3317

e-mail: bboram7@kicce.re.kr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자	이름:	소속:	연락처:

육아정책연구소

II. 귀하와 배우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본인)
1. 출생일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2. 현재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_____	
	① 초혼 ② 재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비혼인·동거 ⑥ 사별 ⑦ 기타()	
3.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2,3년제 대학 ⑥ 4년제 대학 ⑦ 대학원 이상	
4.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무교 ② 불교 ③ 기독교 ④ 천주교 ⑤ 원불교 ⑥ 통일교 ⑦ 기타()	
5.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6.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7. 출생 국가는 어디입니까?(②~⑧ 응답자는 문항 7-1로)	_____	
	① 한국 ② 중국 ③ 일본 ④ 필리핀 ⑤ 베트남 ⑥ 우즈베키스탄 ⑦ 몽골 ⑧ 기타()	
7-1. 최초 한국 입국 시 목적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결혼 ② 취업 ③ 연수 ④ 유학 ⑤ 관광 ⑥ 기타()	
7-2. 최초 입국 시 비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한국인의 배우자(F-1, F-2, F-3) ② 비전문취업(E-9) ③ 방문취업(H-2) ④ 산업연수(D-3) ⑤ 그 외 취업(E-1부터 E-8까지, H-1, C-4) ⑥ 기타() ⑦ 모름	
7-3. 현재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_____	
	① 한국 ② 중국 ③ 일본 ④ 필리핀 ⑤ 베트남 ⑥ 우즈베키스탄 ⑦ 몽골 ⑧ 기타()	
↳ 문항12로 ②~⑧ 응답자는 문항 5-3-1로		
7-3-1. 현재 비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한국인의 배우자(F-1, F-2, F-3) ② 비전문취업(E-9) ③ 방문취업(H-2) ④ 산업연수(D-3) ⑤ 그 외 취업(E-1부터 E-8까지, H-1, C-4) ⑥ 영주(F-5) ⑦ 기타() ⑧ 모름	
8. 한국최초입국일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9. 가족의 한 달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지난달 기준)	_____만원	

III.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평소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양육·교육 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2. 귀하는 평소 자녀를 기르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아이와 놀아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아이와 함께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아이가 무슨 일든 자기 힘으로 해 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아이가 모르는 것을 물어 보면 몇 번이라도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데에 열심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아이에게 칭찬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아이에게 기본생활습관(이 닦기, 정리정돈 등)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때린다	①	②	③	④
9) 나는 TV 시청, 컴퓨터 게임시간을 정하고 지키게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아이에게 매일 애정표현(뽀뽀, 포옹, 예쁘다/사랑한다고 말하기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①	②	③	④

IV. 다음은 남편의 양육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남편은 다음과 같은 자녀 기르는 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까?
지난 한 주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안 한다	가끔 (1-2일)	종종 (3-4일)	거의 항상 (5-7일)
1) 밥 먹고 옷 입는 것	①	②	③	④
2) 함께 놀아 주기	①	②	③	④
3) 아플 때 돌봐 주기	①	②	③	④
4)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 돌봐 주기	①	②	③	④
5)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시키기	①	②	③	④

V. 귀하의 부부관계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남편은 화가 났을 때 나를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남편은 술을 자주 마신다	①	②	③	④
4) 남편은 나의 기분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한다	①	②	③	④

VI. 어머니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필요할 때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남편 ② 시부모 ③ 그 외 시댁식구 ④ 한국 친구/이웃
 ⑤ 본국 친구/이웃 ⑥ 친정 식구 ⑦ 센터 종사자(다문화/외국인지원센터, 복지관)
 ⑧ 종교기관(성당, 교회) ⑨ 기타() ⑩ 없음

2. 다음은 귀하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그들은 내가 도움을 청하면 대가없이(보상 없이) 도와 준다	①	②	③	④
3) 그들은 평소에 나의 기분을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4) 그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VII. 어머니의 기분과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지난 한주 동안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행동했는지 각각의 질문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하루 미만)	가끔 (1-2일)	종종 (3-4일)	거의 항상 (5-7일)
1)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3) 잠을 잘 못잔다	①	②	③	④
4)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무언가를 할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VIII. 자녀의 건강 · 섭식 · 신체활동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자녀의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키()cm
몸무게()kg
2. 출생 시 이 자녀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kg
3. 출생 시 자녀는 출산예정일에 나왔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3-1. 출산예정일보다 몇 일 전 · 후에 나왔습니까? _____ 일 전 · 후
4. 출생 시 자녀의 분만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자연분만 ② 제왕절개 ③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출산 전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현재 자녀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 6-1.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② 아니오 ① 질병(병): _____ ② 장애 _____
7. 자녀가 매일 밖에서 놀이를 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아니다
8. 자녀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잠을 잡니까? _____ 시간 _____ 분
9. 자녀의 사회 · 정서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님	대체로 아님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내 아이는 피곤해 하거나 지쳐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내 아이는 쉽게 좌절한다	①	②	③	④
3) 내 아이는 안달하거나 쉽게 화낸다	①	②	③	④
4) 내 아이는 소심하고 두려워한다(예: 새로운 상황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5) 내 아이는 행복하지 않거나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6) 내 아이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가만히 있거나 불편해 한다	①	②	③	④
7) 내 아이는 쉽게 소리치거나 고함지른다	①	②	③	④
8) 내 아이는 다른 아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내 아이는 비활동적이며, 다른 아동의 놀이를 쳐다본다	①	②	③	④
10) 내 아이는 다른 아동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11) 내 아이는 집단에서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른 아동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13) 다른 아동을 때리고, 물거나 찬다	①	②	③	④
14) 다른 아동과 협동한다	①	②	③	④
15) 어려움에 처한 다른 아동을 위로하거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아동과 놀잇감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7) 집단 활동 시 말이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어른에게 화가 났을 때, 어른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다	①	②	③	④
19) 일상적인 일을 돕는다(예: 식사준비, 정리정돈)	①	②	③	④
20) 합당한 이유가 주어지면, 타협안을 수용한다(예: 기다릴 줄 안다)	①	②	③	④
21) 어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2) 혼나면 반항한다	①	②	③	④
23) 무엇을 해냈을 때 기뻐한다	①	②	③	④

10.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좋지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비해당/없음
1) 아버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2) 어머니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3) 할아버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할머니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5) 형제 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6)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11. 자녀의 언어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 1) 자녀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어 ② 어머니 모국어 ③ 한국어와 어머니 모
- 2) 자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못함 ② 잘 못함 ③ 잘함 ④ 매우
- 3)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사용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못함 ② 잘 못함 ③ 잘함 ④ 매우

X.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사교육 기관(학원),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주 양육자)은 누구입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친조부모 ④ 외조부모 ⑤ 부모의 형제자매
 ⑥ 기타 친인척 ⑦ 비혈연 ⑧ 혼자 지냄 ⑨ 기타(누구:)
2. 자녀가 현재 일정하게 다니고 있는 기관(반일제 이상)은 어디입니까?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학원(반일제 이상) ⑤ 선교원/종교기관(교회, 성당) ⑥ 기타(반일제 이상) 기관
 ⑦ 없음 → **문항 6으로**

※ 다음은 문항 2에서 ① ~ ⑥에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3.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적응하지 못함 ② 별로 적응하지 못함 ③ 비교적 잘 적응함 ④ 매우 잘 적응함
4.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육아지원기관/학교)에 외국인·다문화가족 자녀나 부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① 예 → 6-1.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대로 모두 적어 주십시오.
 ② 아니오
5. 귀하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부모교육, 교사 면담 등에 참여하십니까?
 ① 반드시 참여한다 ② 가끔 참여한다 ③ 참여하지 않는다 → 문항5-1로
- 5-1.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행사, 부모교육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② 교사와 대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③ 취업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④ 기타()

※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는 기타 기관(지역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6. 귀하는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는 기타 기관(지역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의 배우자는 외국인·다문화가족 대상의 지원 서비스(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멘토 프로그램 등)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 7-1문항으로
- 7-1.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문화가족이라는 점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② 외출하는 것을 싫어해서
 ③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④ 기타()

※ 다음은 자녀의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유치원), 사교육 기관(학원),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8. 자녀가 현재까지 다녔던/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사교육 기관(학원)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가 있다면 해당하는 곳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현재, 과거 이용 모두 포함)

서비스 종류	종류 및 내용	이용기간	지원 여부		이용 만족도
<보기>	어린이집, 피아노학원, 영어학원, 한글교육, 놀이치료 등	___개월 (주)	① 받음	② 안 받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1) 육아지원기관 (예: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2) 학원					
3) (방문)학습지					
4) (준)공공 서비스 (예: 구민회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센터, 지역주민센터) ※ 이용 기관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서비스)					
5) 기타 교육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실태조사(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 올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실태 및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 수준과 부모님의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양육지원 안을 제시하고자, 만 3세~7세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실태를 알아보고,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환경 및 다문화가족관련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발달 검사의 경우, 인지·언어 영역은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조사가원이 직접 검사하는 수행조사를 실시한 반면, 사회성발달 검사는 대체로 결혼 이민자 어머니의 설문응답을 통해 살펴본 바, 사회성 발달에의 응답이 문항의 이해 및 응답의 정확성 등에서 편차가 큼니다. 육아지원기관 이용 상황에서의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해당 아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응답이 필요하여, 부모 설문시에 아동의 이용기관 정보를 구하여 이렇게 조사를 문 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아동의 현재 발달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평정할 수 있도록 본 설문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다문화 및 육아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것이오니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다문화 영유아 발달 연구팀
이보람 위촉연구원 ☎ 02)398-7705, FAX 02)730-3317
e-mail: bboram7@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I. 귀 원 및 귀 하의 사항을 간략히 기록해 주십시오.

※ 귀 하의 사항을 간략히 기록해 주십시오.

기 관 명	() 어린이집
주 소	시·도 시·군·구 동·읍·면 번지 ※상품권 발송지로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II. 담당 다문화 및 외국인 아동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동이름	연령	성별
	만 _____세	① 남 ② 여

※아동 부모의 출생 국가는 어디입니까?

부:	모:
----	----

- ① 한국 ②-1 중국-조선족 ②-2 중국-한족 ③ 일본 ④ 필리핀 ⑤ 베트남
⑥ 우즈베키스탄 ⑦ 몽골 ⑧ 기타() ⑨ 없음 ⑩ 모름

II. 아동의 발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해당 아동의 사회·정서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님	대체로 아님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피곤해 하거나 지쳐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쉽게 좌절한다	①	②	③	④
3) 안달하거나 쉽게 화낸다	①	②	③	④
4) 소심하고 두려워한다(예: 새로운 상황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5) 슬프고 행복하지 않거나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가만히 있거나 불편해 한다	①	②	③	④
7) 쉽게 소리치거나 고함지른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아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비활동적이며, 다른 아동의 놀이를 쳐다본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아동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11) 집단에서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른 이동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13) 다른 이동을 때리고, 몰거나 찬다	①	②	③	④
14) 다른 아동과 협동한다	①	②	③	④
15)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동을 위로하거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아동과 놀잇감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7) 집단 활동 시 말이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교사(어른)에게 화가 났을 때, 교사(어른)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다	①	②	③	④
19) 일상적인 일을 돕는다(예: 간식나누기, 정리정돈, 식사준비 등)	①	②	③	④
20) 합당한 이유가 주어지면, 타협안을 수용한다(예: 기다릴 줄 안다)	①	②	③	④
21) 교사의 제안에 반대한다 (어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2) 꾸지람을 들으면 반항한다	①	②	③	④
23) 무엇을 해냈을 때 자신의 성취에 대해 기뻐한다	①	②	③	④
24) 평소 얼굴에 표정이 없다	①	②	③	④
25) 방해받으면 바로 성을 낸다	①	②	③	④
26) 다른 이동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27) 자신보다 나이 어린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8) 집단에서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9) 학급에서 편안하게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30)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31) 집단에서 소심하여 억제되어 있거나 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32) 화가 나거나 힘든 갈등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33)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34)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35)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36) 또래와의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37)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조리있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38) 친구들과 노는 중에 다른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활동에 유도하고 끌어들이는다.	①	②	③	④
39) 할 일이 정해져있지 않은 자유시간을 잘 보낸다	①	②	③	④
40) 시간 내에 정해진 과제나 숙제/활동을 끝낼 줄 안다	①	②	③	④
41) 친구들을 쉽게 사귀다	①	②	③	④
42) 또래의 놀림에 적절히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43)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 대화와 활동을 주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4) 학업 관련 수행을 잘 해낸다	①	②	③	④
45)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다니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6) 선생님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47)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에 대해 의사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48) 또래와의 그룹활동 중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49) 자신과는 다른 친구들과/사람들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50) 지속적인 활동과 집단 일에 끝까지 잘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 해당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또래 아동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수준인지 4점 척도로 평정하고, 공란에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의 신체발육 및 성장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약간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양호함/정상발달	<input type="checkbox"/> 발달이 빠름
(*신체발육 및 성장영역 참조-예: 키, 몸무게, 장애, 질병 여부 등)				
2. 아동의 신체 발달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약간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양호함/정상발달	<input type="checkbox"/> 발달이 빠름
(*신체발달영역 참조-예: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동작성 등)				
3. 아동의 언어 발달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약간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양호함/정상발달	<input type="checkbox"/> 발달이 빠름
(*언어 하위영역 참조-예: 어휘, 화용, 발음, 문법, 이해, 읽기, 쓰기 등)				
4. 아동의 인지 발달 및 학업수행능력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약간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양호함/정상발달	<input type="checkbox"/> 발달이 빠름
5.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약간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양호함/정상발달	<input type="checkbox"/> 발달이 빠름
6. 아동의 기관·학교 적응	<input type="checkbox"/>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양호함	<input type="checkbox"/> 매우 좋음
7. 아동-교사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매우 좋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좋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양호함	<input type="checkbox"/> 매우 좋음
8.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시오.				

3. 해당 아동의 어머니 및 양육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선생님께서 관찰하고 느끼신 바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고, 비교란에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머니의 언어	<input type="checkbox"/>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때때로 의사소통이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모든 의사소통이 원활함
(*언어 하위영역 참조-예: 어휘, 화용, 발음, 문법, 이해, 읽기, 쓰기 등)				
2. 어머니의 사회정서행동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적절하지 않은 편	<input type="checkbox"/> 적절함	<input type="checkbox"/> 매우 양호함
3. 아동-어머니의 상호작용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적절하지 않은 편	<input type="checkbox"/> 적절함	<input type="checkbox"/> 매우 양호함
4. 양육환경 전반에 대한 소견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적절하지 않은 편	<input type="checkbox"/> 적절함	<input type="checkbox"/> 매우 양호함
* 기타 의견 (4점 척도에 담지 못한 상황을 자유로이 남겨주세요):				

4. 다문화아동을 교육·보육 하면서 교사로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4점척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① 매우 어렵다 ② 다소 어렵다 ③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않는다 ④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4-1. (4번에서 ①②-(매우/다소) 어렵다 고 응답하신 경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다문화아동을 위한 정책 제언이 있다면,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

[부록 3] 기관장용 설문지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실태조사(원장/교장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 올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실태 및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수준의 차이와 요구에 근거한 차별화된 양육지원 안을 제시하고자, 만 3세~7세 아동을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실태와 양육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 많은 다문화·외국인 아동 및 부모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시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양육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요구(needs)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육아지원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것이오니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사표는 연구 외의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다문화 영유아 발달 연구팀
이보람 위촉연구원 ☎ 02)398-7705, FAX 02)730-3317
e-mail: bboram7@kicce.re.kr

육 아 정 책 연 구 소

II. 외국인·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외국인·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또래 아동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수준인지 4점 척도로 평정하고, 비교란에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의 신체발육 및 성장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약간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정상 발달	<input type="checkbox"/> 발달이 빠름
2. 아동의 신체발달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약간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정상 발달	<input type="checkbox"/> 발달이 빠름
3. 아동의 언어발달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약간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정상 발달	<input type="checkbox"/> 발달이 빠름
4. 아동의 인지발달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약간 지연됨	<input type="checkbox"/> 정상 발달	<input type="checkbox"/> 발달이 빠름
5.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적절하지 않은 편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편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함
6. 외국인·다문화아동의 발달에 대해 4점 척도로 답지 못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7. 외국인·다문화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6.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어머니 및 양육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대체로 원장님께서 관찰하고 느끼신 바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고, 비교란에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머니의 언어수준	<input type="checkbox"/>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때때로 의사소통이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모든 의사소통이 원활함
2. 어머니의 정서/행동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적절하지 않은 편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편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함
3. 아동-어머니의 상호작용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적절하지 않은 편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편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함
4. 양육환경 전반에 대한 소견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적절하지 않은 편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편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함
5.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어머니 및 양육환경에 대해 4점 척도로 담지 못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6.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질 높은 양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IV. 외국인·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p>1. 외국인·다문화아동을 교육·보육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4점 척도에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매우 어렵다 ② 다소 어렵다 ③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않는다 ④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p>	
<p>1-1. (위 2번에서 ①②-(매우/다소) 어렵다 고 응답하신 경우)</p> <p>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p>	
<p>2. 현재 외국인·다문화아동을 위한 정책의 양(종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한 편이다 ③ 별로 충분하지 않다 ④ 부족하다.</p>	
<p>3. 현재 외국인·다문화아동을 위한 정책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잘 이루어지고 있는편이다 ③ 미흡한 편이다 ④ 매우 미흡하다</p>	
<p>4. 현재 외국인·다문화아동을 위한 정책의 수행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잘 이루어지고 있는편이다 ③ 미흡한 편이다 ④ 매우 미흡하다</p>	
<p>5. 외국인·다문화아동을 위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p>	

*****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부록 4] 교사/기관장용 설문 결과 : 다문화아동 대상 교육 및 정책

1. 교사와 기관장이 생각하는 다문화아동 교육

조사대상 다문화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 및 원장/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및 원장/교장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교사는 조사대상 아동 534명 가운데 45.51%(243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지역으로는 서울 24.7%, 경기/충청35.8%, 경상 18.1% , 전라 21.4%였다. 기관 유형으로는 어린이집교사 65.4%, 유치원 16.9%, 초등학교 16.9%, 학원 0.4%, 선교원/종교기관 04%였다.

한편 기관장인 원장 및 교장은 162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서울지역이 27.8%, 경기/충청 34.6%, 경상 20.4%, 전라 17.3%였다. 기관유형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74.7%, 유치원원장이 12.3%, 초등학교 교장이 13.0%였다.

〈부표 1〉 조사참여 교사 및 기관장의 특성

교사		기관장	
전체	100.0(243)	전체	100.0(162)
거주지역		거주지역	
서울	24.7	서울	27.8
경기/충청	35.8	경기/충청	34.6
경상	18.1	경상	20.4
전라	21.4	전라	17.3
기관유형		기관유형	
어린이집	65.4	어린이집	74.7
유치원	16.9	유치원	12.3
초등학교	16.9	초등학교	13.0
(반일제 이상)학원	0.4	(반일제 이상)학원	-
선교원/종교기관	0.4	선교원/종교기관	-

조사에 참여한 육아지원기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규모로 학급 수는 평균 9.28개 이었고, 교사는 평균 12.91명, 재원하는 다문화아동 수는 6.06명으로 나타났다.

〈부표 2〉 조사참여 육아지원기관의 특성

구분	최소값	최대값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수)
학급수	1	50	9.28(9.81)	(158)
교사수	1	241	12.91(22.44)	(160)
재원하는 다문화아동 수	1	65	6.06(7.57)	(161)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있다고 답한 기관은 26.9%였으며 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상담, 다문화아동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어머니 대상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다문화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없다고 답한 기관은 73.1%였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6.3%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부모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의견이 9.7%,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정보전달이 어렵다는 의견이 8.0%,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0.9%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비다문화가족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 특별한 지원을 해줄 만큼 재정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비다문화아동과 가족을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 다문화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부표 3〉 다문화아동 대상 특별프로그램이나 혜택 여부

프로그램/ 혜택 여부	계(수)	단위: %(명)	
		특별 프로그램/혜택이 없는 이유	계(수)
(전체)	100.0(160)	(전체)	100.0(113)
있음	26.9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부모가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	15.0
없음	73.1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보전달이 어려워서	8.0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0.9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36.3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9.7
		기타	30.1

다문화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에게 다문화아동을 담당하는 것이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 4점 척도로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가운데 54.4%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5.3%는 다소 어

럽다, 19.4%는 전혀 어렵지 않다, 0.9%는 매우 어렵다고 답하였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답한 교사가 과반수였다.

〈부표 4〉 교사의 다문화아동 교육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어렵다	다소 어렵다	별로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계(수)합계
비율(규모)	0.9	25.3	54.4	19.4	100.0(217)

다문화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가운데 다문화아동을 보육/교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한 교사에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이는 개방형 질문(open-question)으로 물었고, 다중응답도 허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에서 교사가 자유롭게 적은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다문화아동을 담당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33.8%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20.3%는 아동의 인지, 언어발달 지연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라고 응답하였고, 16.2%는 식습관, 생활태도와 같은 아동 양육에 대한 문화차이, 13.5%는 부모의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10.8%는 다문화아동의 정서, 행동과 같은 사회성발달 문제, 2.7%는 일반 아동, 부모, 교사 등이 가진 다문화아동이나 부모에 대한 편견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외 의견이 2.7%였다.

〈부표 5〉 교사가 인식하는 다문화아동 교육의 어려운 점

구분	반응백분율		사례백분율
	(수)	%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25)	33.8	45.5
아동의 인지/언어/학습문제	(15)	20.3	27.3
문화차이(식습관, 생활태도, 양육방식)	(12)	16.2	21.8
부모의 비협조적/소극적 태도	(10)	13.5	18.2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8)	10.8	14.5
다문화에 대한 편견(일반아동, 부모, 교사)	(2)	2.7	3.6
기타	(2)	2.7	3.6
합계	(74)	100.0	134.5

다음으로 다문화아동이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원장/교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먼저 다문화아동을 보육/교육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 4점 척도로 물었다. 이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원장/교장 가운데 48.7%가 별로 어렵지 않다, 38.6%가 다소 어렵다, 10.8%가 전

히 어렵지 않다, 1.9%가 매우 어렵다고 답하였다. 원장/교장 역시 담당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과반수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부표 6〉 기관장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

구분	매우 어렵다	다소 어렵다	별로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합계
비율(규모)	1.9	38.6	48.7	10.8	100.0(158)

구체적으로 다문화아동을 보육/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역시 개방형 질문(open-question)으로 물었고, 다중응답도 허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에서 원장/교장들이 자유롭게 적은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응답 중 50.0%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20.0%는 식습관, 생활태도와 같은 아동 양육에 대한 문화차이, 12.5%는 부모의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6%는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6%는 인지, 언어, 학습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다문화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와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아동의 발달보다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의 태도 등이 다문화아동을 보육/교육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부표 7〉 기관장이 인식하는 다문화교육의 어려운 점

구분	반응백분율		사례백분율
	(수)	%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40)	50.0	67.8
문화차이(식습관, 생활태도, 양육방식)	(16)	20.0	27.1
부모의 비협조적/소극적 태도	(10)	12.5	16.9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6)	7.5	10.2
아동의 인지/언어/학습문제	(6)	7.5	10.2
다문화에 대한 편견(일반아동, 부모, 교사)	(1)	1.3	1.7
기타	(1)	1.3	1.7
합계	(80)	100.0	135.6

2. 교사와 기관장이 제안한 다문화아동 및 가족 관련 정책

교사들이 제안하는 다문화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정책은 개방형 질문(open-question)으로 물었고 다중응답도 허용하였는데, 회수한 설문에서 교사가 자유롭게 적은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교사들 중 32.3%는 다문화아동/가족을 위해서 부모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양육에 대한 문화 차이가 다문화아동을 보육/교육하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응답한 것과 같이 결혼이민자 모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비롯하여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25.0%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다문화아동의 언어나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 반면 사회성 발달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0.4%는 다문화 관련 과학교사 제도를 제안하였는데,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다문화아동이 학습이나 언어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아동을 전담해줄 수 있는 과학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7.3%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문화아동'이라고 구분하는 것을 피하고 비 다문화아동이나 부모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6.3%는 다문화가족 내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다문화가족 내에서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소득이나 요구(needs)에 맞게 차등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5.2%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응답하고, 3.1%는 다문화가족 가운데 맞벌이 하는 부부들을 위해 방과 후나 휴일에 아동을 돌보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지역사회 여러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외국인 근로자 아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교사와 기관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문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부표 8〉 교사가 제안하는 다문화아동/가족관련 정책

구분	비율
부모대상 프로그램 확대(문화, 양육방식, 아버지 대상, 가족모두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	32.3
아동대상 프로그램 확대 (언어 이외에 사회성발달, 문화교육 등)	25.0
다문화 관련 파견교사 제도 (외국어에 능통한 다문화관련 전문교사)	10.4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 (다문화아동 라벨링 피하기, 비다문화아동과 부모를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	7.3
다문화가족 내 차등지원필요 (다문화가족 내 편차 심함, 일반 저소득층으로 지원 확대)	6.3
다문화가족 경제적 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5.2
방과후/휴일 케어프로그램	3.1
지역사회 여러 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문상담기관, 의료서비스)	2.1
외국인근로자 아동 및 가족 지원 확대	2.1
교사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원 (교사교육, 교재/교구 지원)	1.0
다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램 홍보	1.0
기타	4.2
합계	100.0(96)

원장/교장들이 제안하는 다문화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정책은 개방형 질문(open-question)으로 물었고 다중응답도 허용하였는데, 회수한 설문에서 원장/교장이 자유롭게 적은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원장/교장들이 제안한 정책가운데 33.5%는 다문화아동/가족을 위해서 부모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이는 교사들이 제안한 정책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양육에 대한 문화 차이 및 부모의 비협조적 태도로 다문화아동을 보육/교육하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응답한 것과 같이 결혼이민자 모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비롯하여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내에서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내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5%를 차지하였다. 지원이 불필요한 다문화아동/가족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지원이 꼭 필요한 비다문화아동/가족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소득이나 요구(needs)에 맞게 차등지원 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아동/가족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저소득층 아동/가족에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언어발달이나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사회성 발달이나 문화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0.0%였다. 뒤를 이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였으며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1%,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5.3%, 교사와 기관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4.7%, 다문화 관련 전문 교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 맞벌이 하는 다문화 가정의 부부들을 위해 방과 후나 휴일에 아동을 돌보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7%였다. 그 외에 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 외국인 근로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부표 9〉 기관장이 제안하는 다문화 관련 정책

구분	반응백분율 (수) %	사례 백분율
부모대상 프로그램 확대(문화, 양육방식, 아버지 대상, 가족모두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	(57) 33.5	54.3
다문화가족 내 차등지원필요 (다문화가족 내 편차 심함, 일반 저소득층으로 지원 확대)	(23) 13.5	21.9
아동대상 프로그램 확대 (언어 이외에 사회성발달, 문화교육 등)	(17) 10.0	16.2
다문화가족 경제적 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14) 8.2	13.3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 (다문화아동 라벨링 피하기, 비다문화아동과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12) 7.1	11.4
지역사회 여러 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문상담기관, 의료서비스)	(9) 5.3	8.6
교사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원 (교사교육, 교재/교구 지원)	(8) 4.7	7.6
다문화 관련 파견교사 제도 (외국어에 능통한 다문화관련 전문교사)	(8) 4.7	7.6
방과후/휴일 케어프로그램	(8) 4.7	7.6
다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램 홍보	(5) 2.9	4.8
기타	(5) 2.9	4.8
외국인근로자 아동 및 가족 지원 확대	(4) 2.4	3.8
합계	170 100.0	161.9

마지막으로 다문화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현황에 대해 원장/교장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책의 종류에 대해서는 49.0%가 별로

충분하지 않다, 31.1%가 충분한 편이다, 17.2%가 부족하다, 2.6%가 매우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문화아동/가족 대상 정책의 양에 대해 과반수가 별로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정책의 질에 대해서는 52.3%가 별로 충분하지 않다, 37.9%가 충분한 편이다, 7.8%가 부족하다, 2.0%가 매우 충분하다고 평가하여 정책의 질 역시 과반수가 별로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수행과정에 대해서는 56.6%가 미흡하다, 33.6%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7.2%가 매우 미흡하다, 2.6%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책 수행과정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0〉 기관장이 보는 다문화아동/가족대상 정책현황

단위: %(명)

	매우 충분하다 (매우 잘 이루어짐)	충분한 편이다 (잘 이루어지는 편)	별로 충분치 않다 (미흡하다)	부족하다 (매우 미흡하다)	계(수)
정책의 양(종류)	2.6	31.1	49.0	17.2	100.0(151)
정책의 질	2.0	37.9	52.3	7.8	100.0(153)
정책의 수행과정	2.6	33.6	56.6	7.2	100.0(152)

연구보고 2011-15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및 맞춤형 지원 방안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양동문화사 02)2266-08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81-3 93330